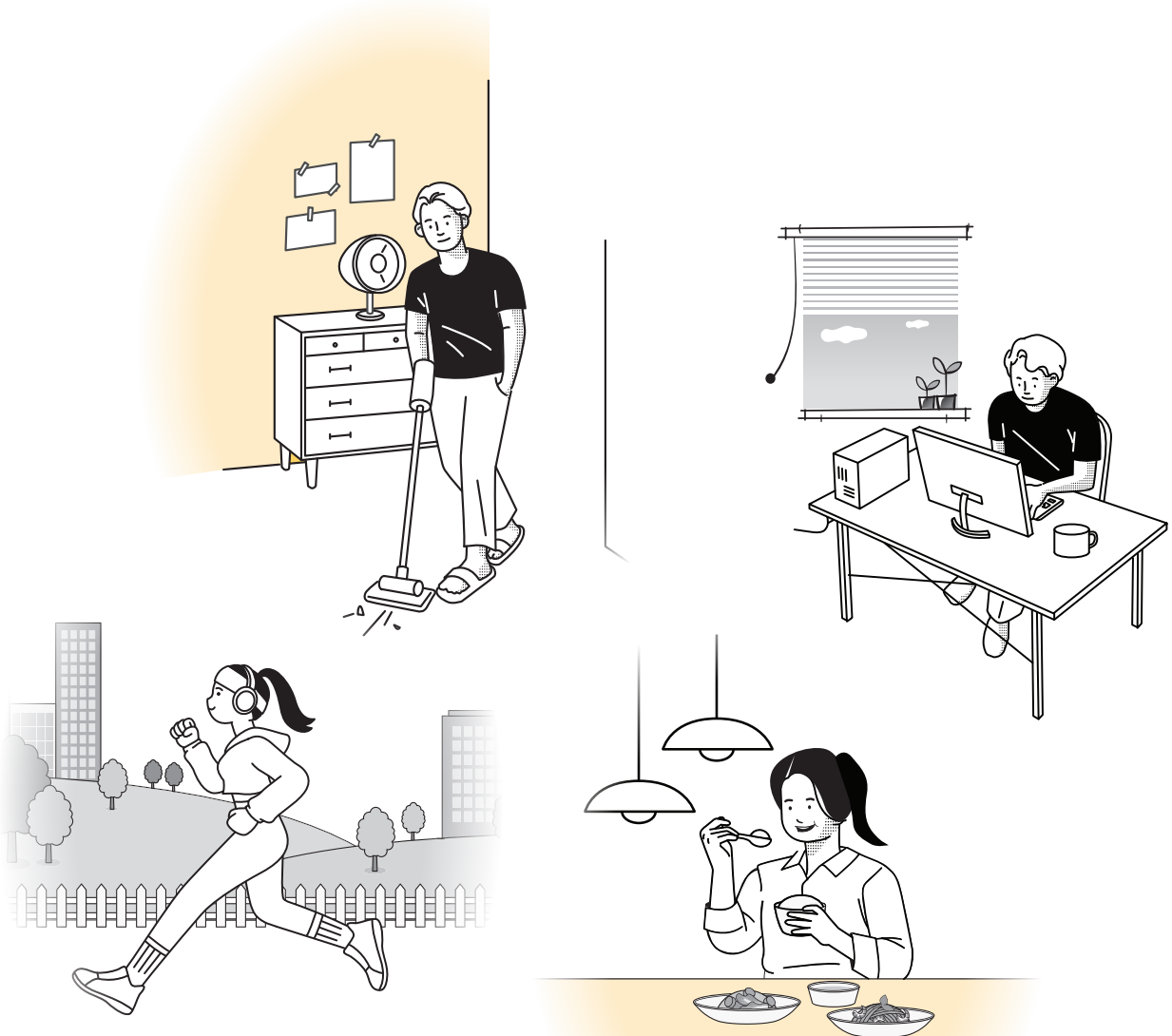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

202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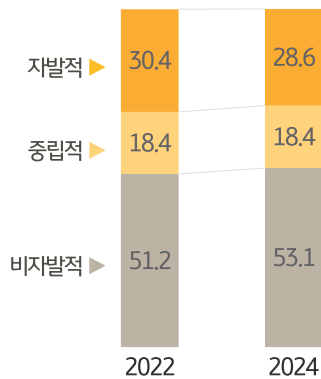
황원경 | 강윤정

 KB 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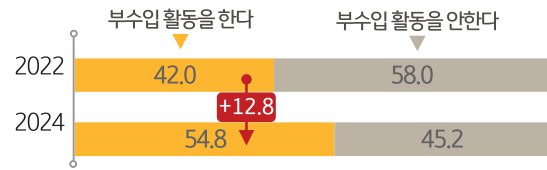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

1인가구 2명 중 1명은 **비자발적 계기**로 독립
비자발적 독립이 **2022년 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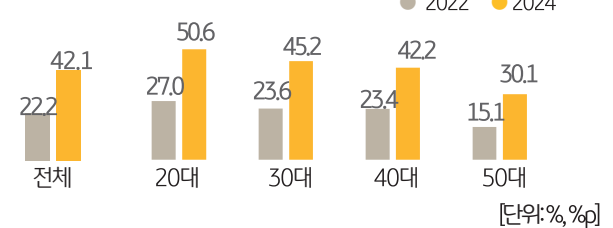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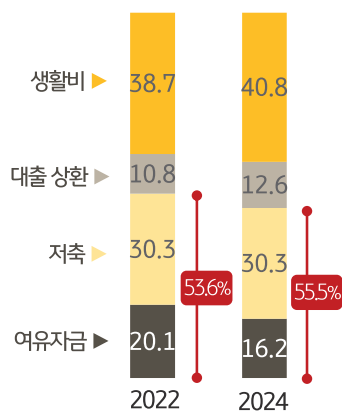
2년 전보다 **부업을 더 많이하고**
특히 **앱테크 이용률이 증가**



• 연령대별 앱테크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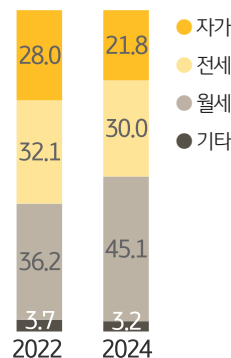
월 소득 중 **40.8%**를 **생활비**로 지출,
생활비 및 대출상환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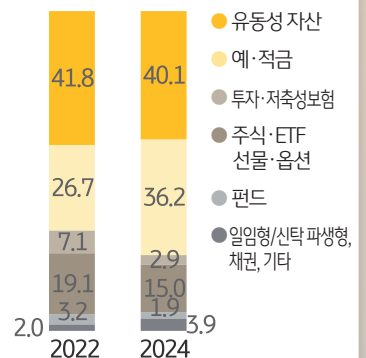
[단위: %]

월세로 사는 비중이 증가
금융자산 중 예·적금 비중이 증가

• 주택 소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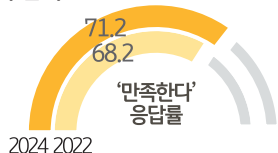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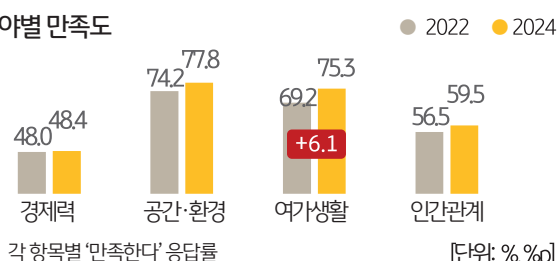
[단위: %]

10명 중 7명이 **1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여가생활 만족도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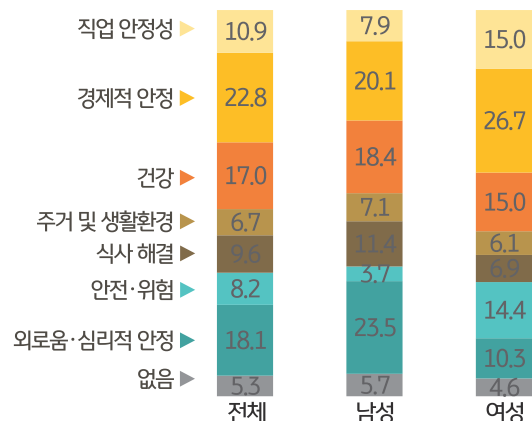
• 1인 생활 전반적 만족도



• 분야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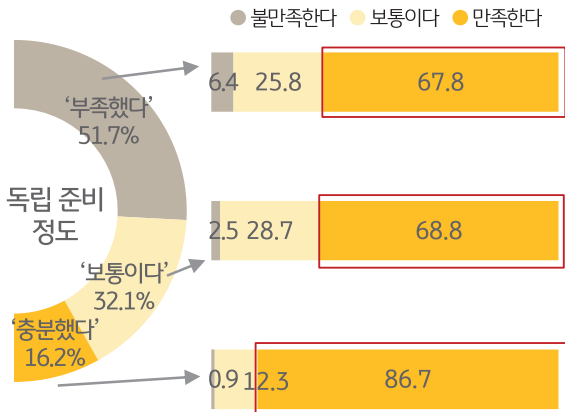


여성은 경제적 안정, 남성은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거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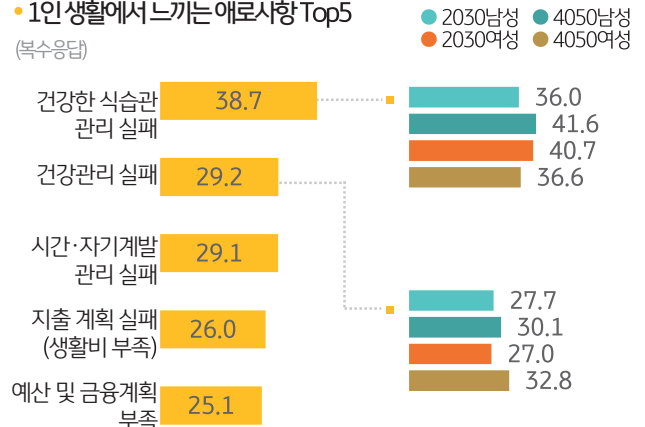
독립 준비가 충분했다고 진단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음



[단위: %]

1인 생활을 하면서 식습관 관리 실패와 건강관리 실패의 고충을 겪음

• 1인 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Top5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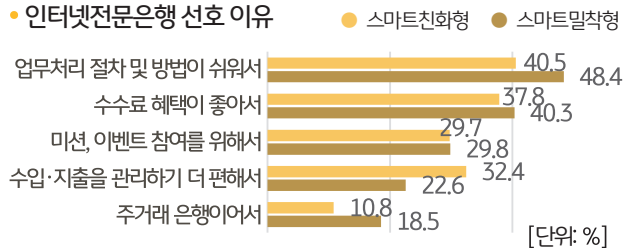
스마트말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높은 금융권 이용률을 보임

• 거래하는 금융업권 (복수응답)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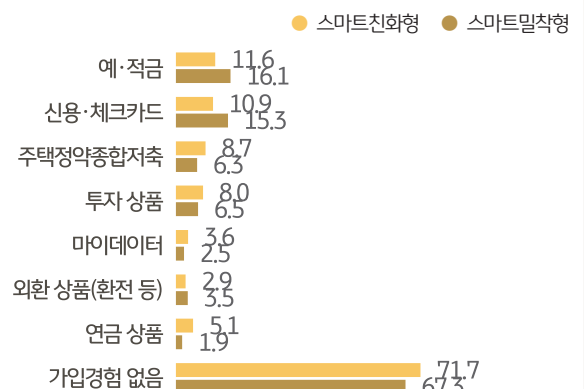
• 인터넷전문은행 선호 이유



[단위: %]

스마트말착형은 SNS를 통해 예·적금과 카드를 스마트친화형은 주택청약저축과 투자상품을 더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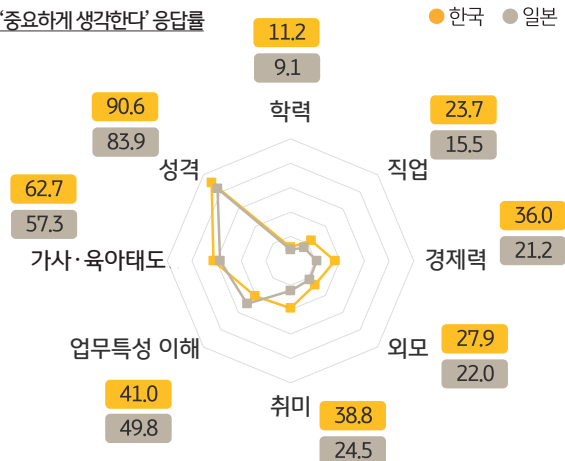
•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가입한 금융상품·서비스



[단위: %]

한국 청년 1인가구(25~34세)는 일본(18~34세)보다 엄격한 배우자 선택 요건을 가지고 있음

※ '중요하게 생각한다'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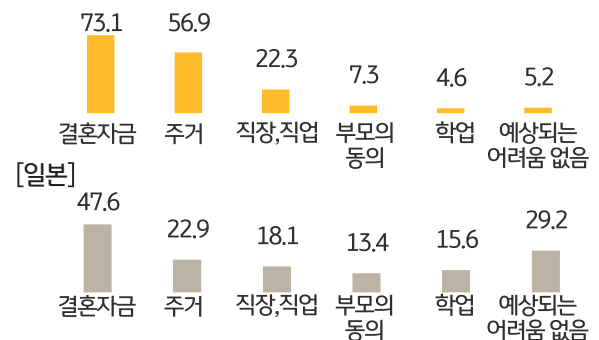


[단위: %]

한국 청년 1인가구(25~34세)는 일본(18~34세)보다 결혼 시 경제적 여건에 큰 부담을 느낌

• 결혼에 따른 예상 우려사항 (1+2순위)

[한국]



[단위: %]

Executive Summary 1

2017년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올해 여섯번째 발간되는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의 인식적, 활동적, 금융 행태적 특징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행동을 이해하며 시의성 있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서울 경기 및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25~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①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②1인가구의 금융생활 ③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④1인가구의 독립 준비 ⑤2030 디지털 금융생활 ⑥韓-日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의 내용을 담았다.

【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 한국 1인가구는 하루 평균 두 끼도 못 먹고 과거보다 직접 밥을 해서 먹는 비율이 늘었다. ('20 55.5%→'24 60.4%)

올해 1인가구는 하루 평균 1.8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하루 평균 2.2끼)에 비해 끼니 수가 감소했다. 반면 혼밥 비율은 67.8%로 2020년(65.2%)에 비해 2.6%p 증가했다. '혼밥'을 할 때는 '직접 밥을 해서'(60.4%)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음식을 배달해서'(31.6%), '인스턴트나 밀키트를 이용해서'(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직접 밥을 해서'(+4.9%p) 또는 '직장·학교 식당에서'(+4.9%p) 먹거나 '음식을 배달해서'(+4.6%p) 식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전반적으로 혼밥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 2022년보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아파트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22 35.3%→'24 38.4%)

1인가구의 주생활에서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38.4%)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30.7%), '오피스텔'(22.2%) 순이었다. 2022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주율을 차지했던 '아파트'(36.2%)는 5.5%p 감소하고, 다음으로 많았던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3.1%p 증가하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텔'은 올해 22.2%로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낮은 거주율을 기록했으나 2022년(19.6%)에 비해서는 2.6%p 높아졌다.

■ 절반 이상이 부업 활동을 하고 앱테크를 하는 1인가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2 22.2%→'24 42.1%)

올해 1인가구의 54.8%가 부업 활동 중이며 2022년(42.0%)에 비해 12.8%p 증가했다. 부업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가 42.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응답률이 크게 떨어진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6.2%), '서비스직 아르바이트'(3.8%)가 뒤를 이었다. 앱테크 이용률은 2022년(22.2%) 대비 올해(42.1%)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20대와 30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 2023년 이후 35.1%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절반 이상은 올해 '100~200만원' 정도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직되었던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1인가구 응답자 중 35.1%가 '2023년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도 52.0%에 달했다.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고민하는 1인가구의 예상 경비는 '100~200만원 미만'(44.2%)이 가장 많았다.

【 1인가구의 금융생활】

■ 1인가구는 월 소득의 40.8%를 생활비로 지출했고 2022년 대비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비중이 늘었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 원이고 그중 40.8%를 주거비, 식비, 여가비 등 생활비로 지출했다. 이는 2022년 월 생활비 지출비중인 38.7%에 비해 2.1%p 늘어난 수치다. 1인가구가 월 소득에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액을 지출하고 30.3%는 저축을 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16.2% 수준이었다.

■ 1인가구의 월세 거주율은 45.1%로 2022년(36.2%)대비 8.9%p 증가했다.

1인가구는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21.8%, '전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30.0%, '월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45.1%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 '월세' 비중은 8.9%p 증가한 반면 '자가'(-6.2%p), '전세'(-2.1%p) 비중은 감소하였다.

■ 유동성자금과 예·적금으로 구성된 '안정형 자산'이 금융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2022년보다 예·적금이 증가했다.

1인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유동성 자산'(40.1%)과 '예·적금'(36.2%)이었다. 이외에 차순위로 '주식·ETF·선물·옵션'(15.0%), '일임형·신탁 파생형, 채권, 기타'(3.9%), '투자·저축성보험'(2.9%), '펀드'(1.9%)의 순이었다.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2022년에 비해 '유동성 자산'은 1.7%p감소했으나 '예·적금'비중은 9.5%p 증가했다.

■ 대출 보유율은 54.9%로 2022년에 비해 7.2%p 증가했으나 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1인가구의 대출보유율은 올해 54.9%로 지난 2022년(47.7%)보다 7.2%p 증가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 대출'이 각각 3.4%p, 2.8%p로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감소했다. 대출을 보유한 1인가구(54.9%)의 대출 잔액은 7천800만 원으로 2022년(9천900만 원)에 비해 2천1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는 대출액이 큰 '부동산담보대출' 보유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

■ 10명 중 7명이 1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만족도는 3.0%p 증가했다. ('22 68.2%→'24 71.2%)

1인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1인가구가 7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2년(68.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여가생활' 만족도가 75.3%로 2022년 대비 6.1%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외 '경제력'(+0.4%p), '공간·환경'(+3.6%p), '인간관계'(+3.0%p)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만족도가 상승했다.

■ 1인 생활에서 느끼는 3대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 '외로움', '건강'이었다.

1인가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로움'(18.1%), '건강'(17.0%)의 순이었다. 2022년에는 '외로움'(19.6%), '경제적 안정'(19.1%), '건강'(16.7%)의 순으로 나타나 '외로움'을 걱정하는 1인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올해는 '경제적 안정'이 3.7%p 증가하며 최대 걱정거리로 나타났는데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1인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1인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결혼 의향이 높고 특히 20·30대의 경우 생활만족도와 결혼 의향은 정비례했다.

1인 생활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인가구는 '보통'이거나 '만족한다'는 1인가구에 비해 향후 결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1인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강했다. 1인 생활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0·30대 1인가구의 57.6%가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1인가구의 62.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4.6%p가 컸다.

Executive Summary 3

【 1인가구의 독립준비】

■ 1인 생활을 시작한 계기는 ‘학교나 직장이 멀어서’이거나 ‘혼자가 편해서’ 독립한 경우였다.

1인가구의 53.1%는 비자발적으로 1인 생활을 시작했다. 1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주된 계기는 ‘학교나 직장 때문이 거냐’(29.5%),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22.8%),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18.4%) 독립한 경우였다. 1인가구가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자발적인 의사로 1인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많았지만, 반면 학교나 직장의 거리가 멀거나 같이 살던 가족이 이혼이나 사망으로 떠나게 되면서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1인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 공간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독립 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회상한 부분으로는 ‘주거 인프라’측면의 거주지 주변 ‘의료 및 레저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인’(42.8%)했는지에 대한 점검 부족을 꼽았다. 다음으로 ‘거주 공간’ 측면에서는 혼자 산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연락처를 작성’(54.5%)했는지나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비상키트를 준비’(47.7%)했는지, 그리고 거주지에 상주 경비원이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있는지 등의 ‘주거 보안에 대해 확인’(38.4%)했는지, 거주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37.4%)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의 순으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회상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비상 지출 대비’(38.5%)에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독립 준비가 부족, 독립 준비가 충분했다고 평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는 응답률은 51.7%로 절반 정도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로 1인 생활을 시작했다. 독립 준비 정도별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한 1인가구 중 67.8%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준비 정도가 ‘보통이다’고 응답한 1인가구 중 68.8%, 준비 정도가 ‘충분했다’고 응답한 1인가구 중 86.7%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1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질수록 생활 만족도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인 생활 중 애로사항으로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와 ‘건강 관리 실패’를 꼽았다.

1인가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38.7%)였고,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강 관리 실패’(29.2%)가 두번째였다. 외식이나 배달음식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제대로 균형잡힌 영양의 식사를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외 ‘시간관리·자기계발 실패’(29.1%), ‘지출 계획 실패(생활비 부족)’(26.0%), ‘예산 및 금융 계획 부족’(25.1%) 등의 순이었다.

【 2030 디지털 금융생활】

■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가계부전용앱, 금융사 앱을 활용한 지출관리에 적극적이었다.

‘지출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스마트밀착형’이 64.7%, ‘스마트친화형’이 6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에 비해 지출 관리를 위해 별도로 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고, ‘가계부 전용 앱’(16.5%)이나 ‘금융사 앱’(14.7%), ‘핀테크 앱’(14.5%) 등을 주로 사용했다. 반면 ‘스마트친화형’은 ‘스마트밀착형’보다 지출 관리에 덜 적극적이었고 엑셀 등을 활용한 ‘수기 가계부’ 이용률이 16.1%로 ‘스마트밀착형’보다 5.7%p 높았다.

■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금융권 이용률이 높았다.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전반적으로 금융권 이용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증권사’(-2.0%p)를 제외한 ‘은행’(+3.8%p), ‘인터넷전문은행’(+6.9%p), ‘카드사’(+4.5%p), ‘비은행(새마을금고, 우체국 등)’(+2.2%p), ‘생명보험사’(+3.6%p), ‘손해보험사’(+6.1%p)등 모든 금융권에서의 이용률이 높았다.

■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SNS를 활용한 금융상품 가입에 적극적이었다.

‘SNS를 통해 알게되어 가입하거나 이용한 금융상품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SNS를 활용한 금융상품 가입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밀착형’은 ‘SNS를 통해 알게되어 가입한 금융상품·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로 ‘스마트친화형’(71.7%)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입한 상품으로는 ‘예·적금’과 ‘신용·체크카드’가 많았으며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예·적금’은 4.5%p, ‘신용·체크카드’는 4.4%p 높은 가입률을 나타냈다.

【韓-日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

■ 한국 청년 1인가구(25~34세)는 일본 청년 1인가구(18~34세)보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부모의 결혼생활을 청년 1인가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한국 청년 1인가구의 25.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일본 청년 1인가구는 49.8%가 동의하며 절반정도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더 엄격한 배우자 선택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청년 1인가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비교해보면 한국 청년 1인가구는 ‘나의 업무 특성 이해’를 제외하고 ‘성격’(90.6%), ‘가사·육아태도’(62.7%), ‘취미’(38.8%)등 선택 항목에서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더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해 더 엄격한 배우자 선택 기준을 가지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나의 업무 특성 이해’는 일본 청년 1인가구(49.8%)가 한국 청년 1인가구(41.0%)보다 8.8%p 높게 나타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 향후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 의지는 한국 청년 1인가구보다 일본 청년 1인가구가 강했다.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7.2%가 ‘향후에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데 비해 일본 청년 1인가구는 19.4%가 동의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비혼 유지 의지가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80.6%가 향후 결혼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한국 청년 1인가구의 92.8%는 ‘언젠가 결혼할 예정’(64.5%)이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28.3%)는 유보적 의향을 나타내 향후 유동층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 1인가구는 ‘결혼 자금 마련’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상했고, 한국 청년 1인가구(73.1%)가 일본 청년 1인가구(47.6%)에 비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25.5%p). 다음으로는 ‘결혼해서 살 집 마련’으로 ‘결혼 자금 마련’과 마찬가지로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에 비해 두 배 정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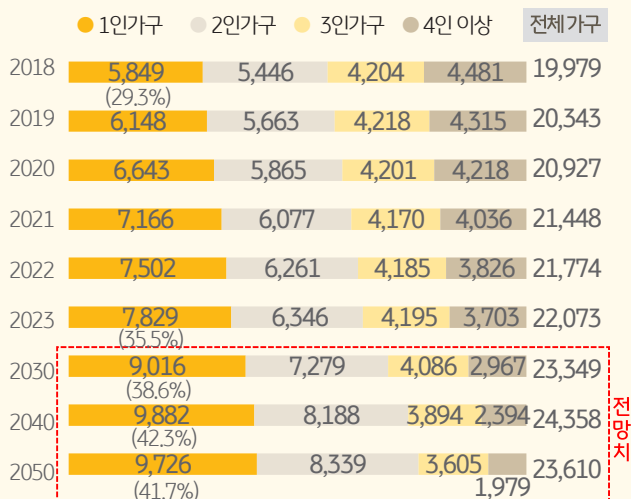
한국 1인가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1인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이는 한국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였던 4인 이상 가구(370만 가구)의 두 배 수준이다. 1인가구의 증가는 만혼, 저출생, 고령화 등과 함께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의 하나로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1인가구는 2018년 전체 가구의 29.3%에서 2030년 38.6%(901만 가구), 2040년 42.3%(988만 가구)를 거쳐 2050년에는 41.7%(972만 가구)로 증가하며 다섯 가구 중 두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인가구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양적 증가를 거듭해 왔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20대가 1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순위로 60대와 30대가 각각 17.3%였다. 2018년에 비해 60대(14.9%)가 2.4%p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20대(17.4%)가 0.5%p, 30대(17.0%)가 0.3%p 증가하며 증가폭이 컸다. 반면 2018년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50대 1인가구(16.7%)는 1.6%p 감소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각종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60세 이상 1인가구뿐 아니라 20대와 30대 1인가구도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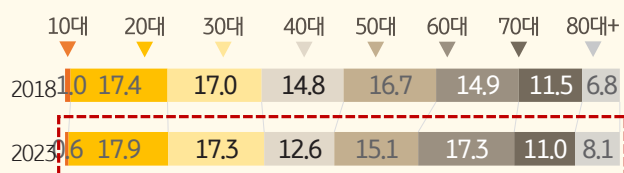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1인가구 현황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20~50대는 남성이, 60대 이상은 여성이 많았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과 비교해 남성은 6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3.4%p), 여성은 20대(+1.5%p), 60대(+1.5%p), 80대 이상(1.9%p)에서 각각 1%p 이상 늘었다.

【한국 가구수 추이 및 전망(가구원수별)】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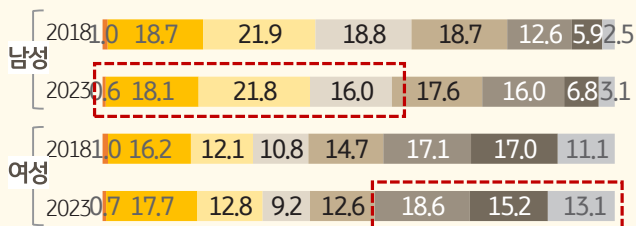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장래가계추계 2022~2052', 연구자 재구성

【성별*연령별 1인가구 구성】 (단위: %)



▶ 성별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KB금융그룹이 지난 2017년부터 발간해온 『한국 1인가구 보고서』가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간되어 오다가 2020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에서 현재 한국 세 집 중 한 집꼴인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신뢰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 단적인 예로 노인 1인가구에 분석이 집중되어 1인가구 전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의성 있고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

【목적】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의 인식적·활동적·금융 행태적 특징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행동을 이해하며 니즈를 읽어내어 시의성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인가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과 금융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는 ‘파트1’(1~3장)과 올해의 이슈를 짚어보는 ‘파트2’(4~6장)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은 시계열 조사 결과를 정리한 부분으로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금융생활, 생활 만족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변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파트2’는 세 가지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슈는 ‘1인가구의 독립 준비’로 독립 준비 과정에서 1인가구가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1인가구로서의 생활에 대한 분석 자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1인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춰 독립 준비 정도를 분석하고, 독립 준비를 돕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했다. 두 번째 이슈는 ‘2030 디지털 금융생활’로 20·30대 1인가구의 금융생활을 디지털 밀착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이슈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 1인가구 결혼관’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비교하여 한·일 간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과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기대 효과】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한국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제도 수립과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의 초점을 독립 전 시점으로 넓힘으로써 1인가구의 독립준비에서 1인 생활에 이르는 라이프스테이지별 생활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 생활의 안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연구방법】『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1인가구의 가치관, 생활상, 금융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량조사방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량 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1인가구 개개인의 심층적인 인식, 동기, 니즈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정성조사방법인 표적집단심층면접(FGD, Focused Group Discussion) 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5~59세 남녀 1인가구 2천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인 1인가구는 1인 생활 기간 6개월 이상의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 성별, 지역, 나이를 고려하여 추출했다.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1인 생활 기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남녀 1인가구를 독립 전 준비 정도와 연령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 정량조사: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 | | |
|---|---|
|  조사대상 | • 1인 생활 기간 6개월 이상의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남녀 |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조사 |
|  조사기간 | • 2024년 2월 19일 ~ 3월 8일 |
|  표본추출 방법 | • 유의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
|  표본구성 | • 총 2천 명, 전국(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위주, 강원·제주 제외) |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계
남성	20대	85	75	16	19	11	8	5	13	1	233
	30대	127	140	28	28	21	16	11	18	6	395
	40대	70	104	22	22	17	13	10	12	4	274
	50대	66	103	24	27	20	13	7	13	1	274
여성	20대	94	51	12	17	11	9	4	11	3	212
	30대	102	68	15	19	12	9	5	10	3	243
	40대	55	56	12	15	10	7	4	7	2	168
	50대	50	70	17	20	16	10	7	9	2	201
계		649	667	146	167	118	85	53	93	22	2,000

■ 정성조사: FGD(Focus Group Discussion)

- | | |
|--|--|
|  조사대상 | • 1인 생활 기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독립적 경제 활동을 하는 25~59세 남녀 |
|  조사방법 | • 표적집단심층면접 |
|  조사기간 | • 2024년 4월 1일 ~ 4월 4일 |
|  표본구성 | • 4그룹, 총 28명
- 그룹1: 독립준비가 부족한 2030대 남녀(7명) - 그룹2: 독립준비가 충분한 2030대 남녀(7명)
- 그룹3: 독립준비가 부족한 4050대 남녀(7명) - 그룹4: 독립준비가 충분한 4050대 남녀(7명) |

CONTENTS

PART 1

I.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01 1인 생활 시작 동기	2
02 식생활	4
03 주생활	6
04 직장생활	8
05 여가생활	10

II. 1인가구의 금융생활

01 소비지출	14
02 부동산자산 현황	16
03 금융자산 현황	18
04 자산관리	20

III.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01 1인 생활 만족도	26
02 1인 생활 애로사항	28
03 1인 생활 만족도와 인식	32

PART 2

IV. [이슈1] 1인가구의 독립 준비

01 1인 생활의 시작 계기	36
02 1인가구 독립 시 준비 정도	38
03 1인가구의 독립 준비도와 만족도	42
04 1인가구의 생활 애로사항	44

V. [이슈2] 2030 디지털 금융생활

01 디지털 생활	50
02 디지털 지출관리	52
03 디지털자산관리	54
04 디지털금융행태	56

VI. [이슈3] 韓-日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

01 주변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60
02 결혼관	62
03 향후 결혼 의향	64
04 예상되는 결혼에 따른 애로사항	66

I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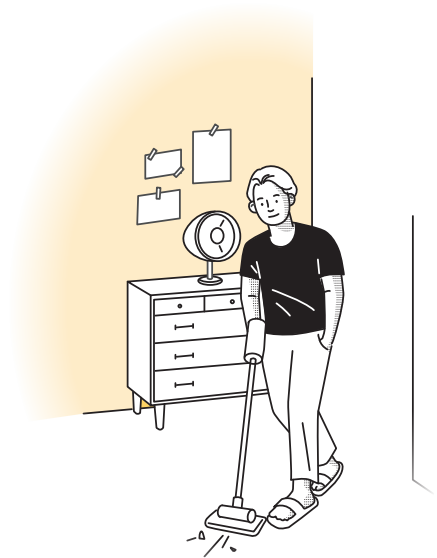
01 | 1인 생활 시작 동기

02 | 식생활

03 | 주생활

04 | 직장생활

05 | 여가생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 1인가구는 783만 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1.7%로 확대되어 다섯 집 중 두 집이 1인가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은 1인가구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파트1에서는 시계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금융생활,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분석을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인가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금융니즈가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25세부터 59세의 1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장에서는 본격적인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앞서 1인가구가 어떻게 혼자 살게 되었는지 독립 동기를 살펴보고, 식생활·주생활·직장생활·여가생활에 대해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변화 정도를 알아본다. 직장생활과 관련해서는 직업관과 함께 부업 행태를 살펴보고,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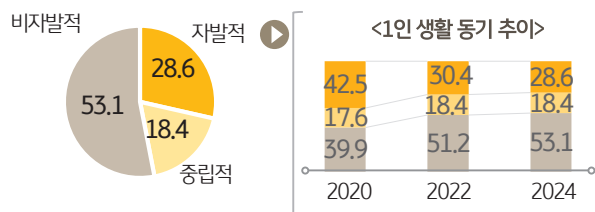
01 | 1인 생활 시작 동기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동기로 독립하며,
1인 생활 지속 의향은 20·30대 여성 중심으로 다소 감소

2024년 한국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게 어떤 계기로 독립하게 되었고, 향후 1인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1인가구가 독립하게 된 계기는 비자발적 이유가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발적 이유는 28.6%에 불과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된 중립적 이유도 18.4%를 기록했다. 학교나 직장, 사별이나 이혼 등의 비자발적 이유로 1인 생활을 하게 된 경우는 2020년 39.9%에서 2024년 53.1%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이 각각 5.5%p, 6.9%p로 큰 폭으로 늘었다.

향후 1인 생활을 지속할 의향에 대해서는 1인가구 중 55.8%가 지속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고,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1인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높았다. 전체 응답률은 2022년 대비 0.5%p 감소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20·30대 1인가구의 경우 비자발적 동기로 1인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생활비 및 거주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 1인 생활 시작 동기 추이 (단위: %)



1인 생활 시작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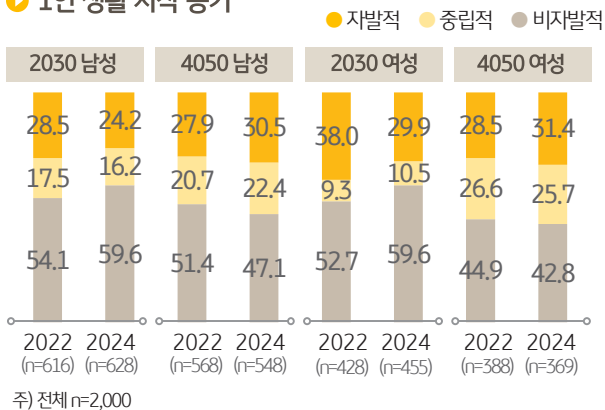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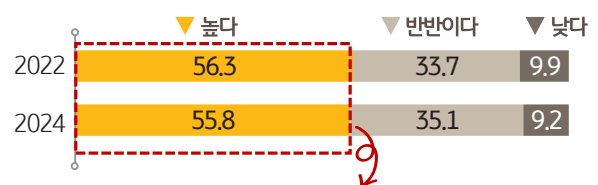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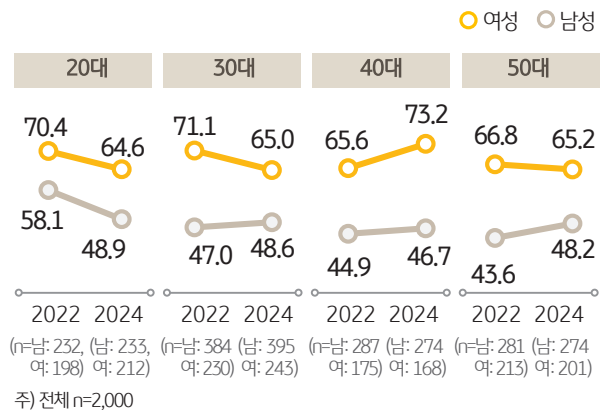


그림 1-2 | 1인 생활 지속의향 추이 (단위: %)



연령별 1인 생활 지속의향 변화 (지속의향 '높음' 응답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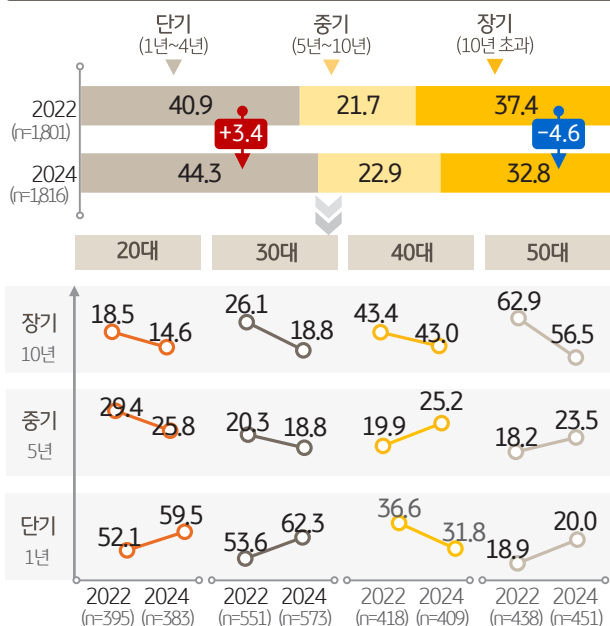


향후 1인 생활 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하려는 의향이 늘었고, 1인 생활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하고 싶거나' '외로워서'

1인 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응답자에게 예상 기간을 '단기'(1~4년), '중기'(5~10년), '장기'(10년 초과)로 구분하여 물어보았다.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하려는 의향은 2022년 대비 4.6%p 감소한 반면 4년 이하 단기간 지속하려는 의향은 3.4%p 증가하여 1인 생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향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하려는 의향은 40대(43.0%)와 50대(56.5%)에서 높았으나 2022년에 비해 각각 0.4%p, 6.4%p 줄었다. 반면 4년 이내 단기간 지속하려는 의향은 20대와 30대에서 절반이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022년 대비 각각 7.4%p, 8.7%p 늘었다. 유일하게 40대는 단기간 1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향이 2022년에 비해 4.9%p 줄었다.

1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가 63.5%로 가장 많았고 2022년과 비교해 2.2%p 증가했다. 반면 1인 생활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결혼하고 싶어서'(50.0%), '외로워서'(3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의 응답률은 남성(51.7%)이 여성(43.2%)보다 더 높았고, '외로워서'도 남성(32.4%)이 여성(24.3%)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의 응답률은 여성(18.9%)이 남성(6.8%)의 세 배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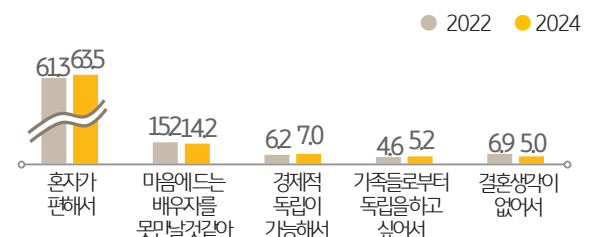
그림 1-3 | 1인 생활 지속 예상 기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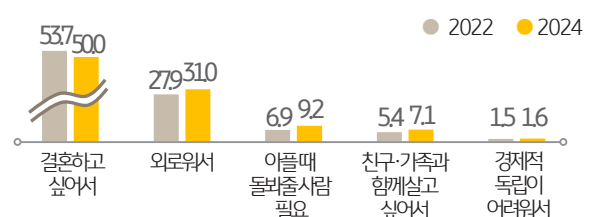
주) 지속의향자(지속의향 '높다' + '반반이다') 2022 n=1801, 2024 n=1816

그림 1-4 | 1인 생활 지속의향 및 중단의향 이유 (단위: %)

▶ 1인 생활 지속의향 이유 Top5



▶ 1인 생활 중단의향 이유 Top5



주1) 지속의향자(지속의향 '높다' + '반반이다') 2022 n=1801, 2024 n=1816

주2) 지속 비의향자(지속의향 '낮다') 2022 n=199, 2024 n=184

02 | 식생활

하루 평균 두 끼도 못 먹고 70% 정도가 혼밥을 하며,
끼니 수는 감소하고 혼밥은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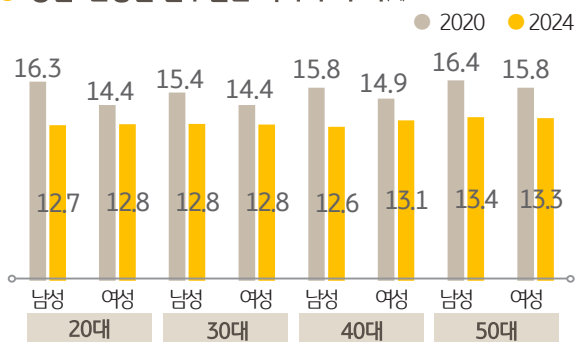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1인가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챙기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끼니다. 한국 1인가구는 주간 평균 12.9끼, 하루 평균 1.8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주간 평균 15.5끼, 하루 평균 2.2끼)에 비해 덜 챙겨 먹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챙겨 먹는 끼니 수가 많았고, 지난 조사와 비교해 20~50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챙겨 먹는 끼니 수가 크게 줄었다. 반면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0년 65.2%에서 2024년 67.8%로 2.6%p 증가했다.

‘혼밥’을 할 때는 ‘직접 밥을 해서’(60.4%)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을 배달해서’(31.6%)와 ‘인스턴트나 밀키트를 이용해서’(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직접 밥을 해서’(+4.9%p) 또는 ‘직장·학교 식당에서’(+4.9%p) 식사하거나 ‘음식을 배달해서’(+4.6%p) 식사하는 경우가 늘었다. 전반적으로 혼밥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림 1-5 | 주간 평균 및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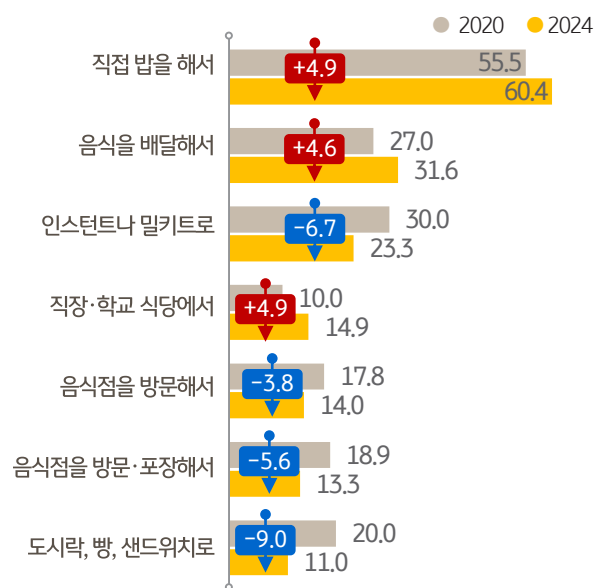
2020	vs	2024	
15.5끼	주간 평균	12.9끼	-2.6끼
2.2끼	하루 평균	1.8끼	-0.4끼
65.2%	혼밥 비율	67.8%	+2.6%p

▶ 성별*연령별 일주일간 식사 수 추이(끼)



주) 2022년 n=2,000, 2024년 n=2,000

그림 1-6 | 혼자 식사하는 방식 (1+2순위, 단위: %)



주1) 2020년 n=2,000 2024년 n=1,990 (혼밥하지 않음 10명 제외)

주2) 보기 응답률 10%이상, 식단 새벽배송, 정기배송, 반찬가게는 5%미만으로 제외

1인가구의 식생활 관련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평소 간헐적 단식 등 식이요법을 하는 편이다’는 의견에 대해 1인가구 25.8%가 동의했고, 20대 여성(32.1%)과 40대 여성(28.6%)의 동의율이 높았다. ‘내가 먹는 음식의 영양성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인가구 27.7%가 동의했다. 이 의견에 대한 응답은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남성(36.1%)과 30대 남성(30.9%)이 20대 여성(30.7%)과 30대 여성(26.7%)에 비해 동의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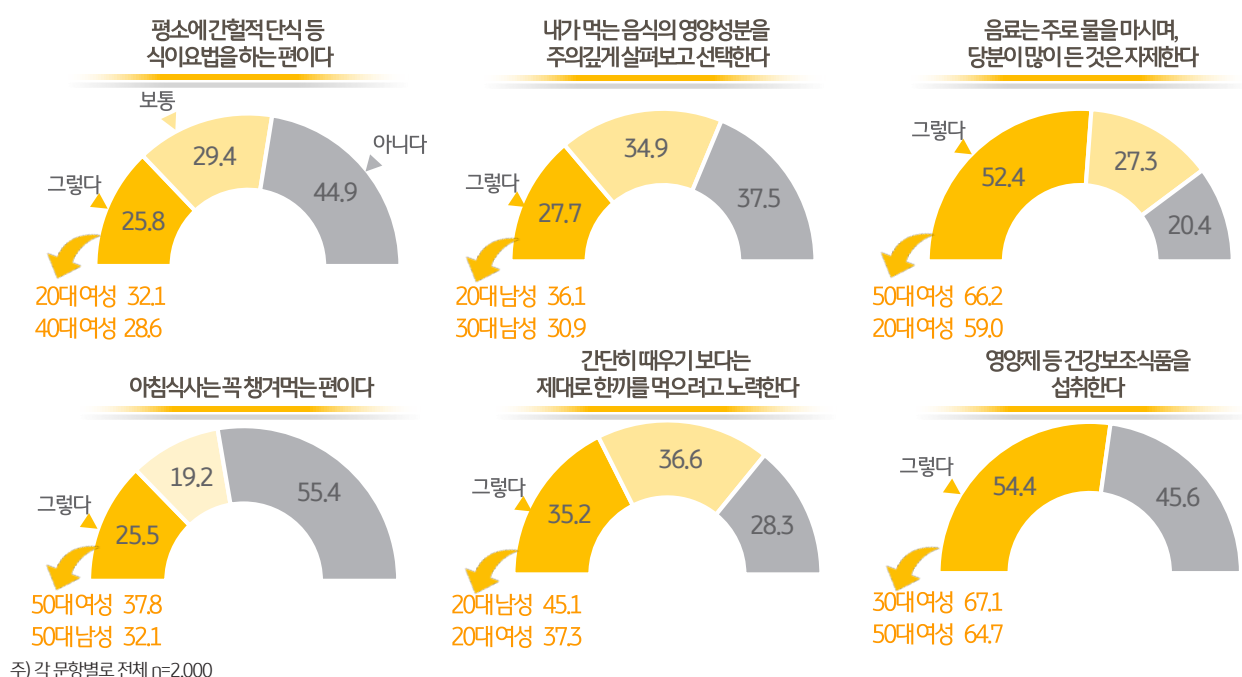
‘음료는 주로 물을 마시며 당분이 많이 든 것은 자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5명이 동의했고, 50대 여성(66.2%)과 20대 여성(59.0%)의 동의율이 높았다. 이는 최근 식품업계 전반에 부는 ‘제로 슈거(무설탕)’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식사 습관과 관련해 ‘아침식사는 꼭 챙겨먹는 편이다’는 의견에 대해 1인가구 25.5%가 동의했다.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낸 50대 여성(37.8%)과 50대 남성(32.1%)은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 20대 여성(16.5%)과 30대 남성(18.5%)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조사(28.7%)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앞서 살펴본 하루 평균 끼니 수의 감소와 관련이 컸다. 반면 ‘간단히 때우기보다는 제대로 한 끼를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35.2%가 동의하여 아침을 챙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한 끼를 제대로 먹겠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20대 남성(45.1%)과 20대 여성(37.3%) 1인가구의 동의율이 높았다.

식사 외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1인가구 비율은 54.4%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30대 여성(67.1%)과 50대 여성(64.7%)의 건강기능·보조식품 섭취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1-7 | 식생활 관련 인식 및 태도

(단위: %)



03 | 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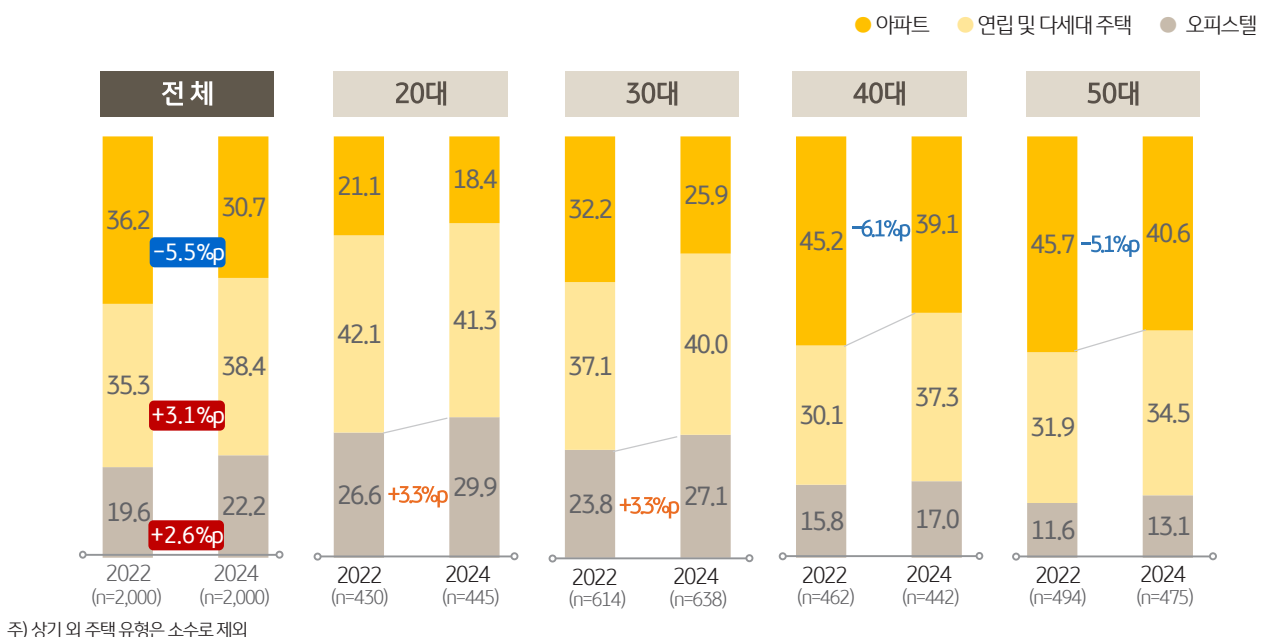
1인가구는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집은 쉬기 위한 공간’으로 ‘자가가 아니더라도 꾸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

1인가구의 주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택 유형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1인가구 38.4%가 거주했고, 다음은 ‘아파트’로 30.7%가 거주했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아파트’(36.2%)는 5.5%p 감소하고, 다음으로 많았던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3.1%p 증가하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텔’은 올해 22.2%로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낮은 거주율을 기록했으나 2022년(19.6%)에 비해서는 2.6%p 높아졌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 1인가구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각각 41.3%와 40.0%로 주를 이루었고, ‘아파트’(20대 18.4%, 30대 25.9%)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한 ‘오피스텔’(20대 29.9%, 30대 27.1%) 거주율이 높았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아파트’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비해 많았고, ‘오피스텔’은 20·30대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립 및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1인가구가 많았는데, 이는 나이 들면서 자산 여력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8 | 1인가구 현재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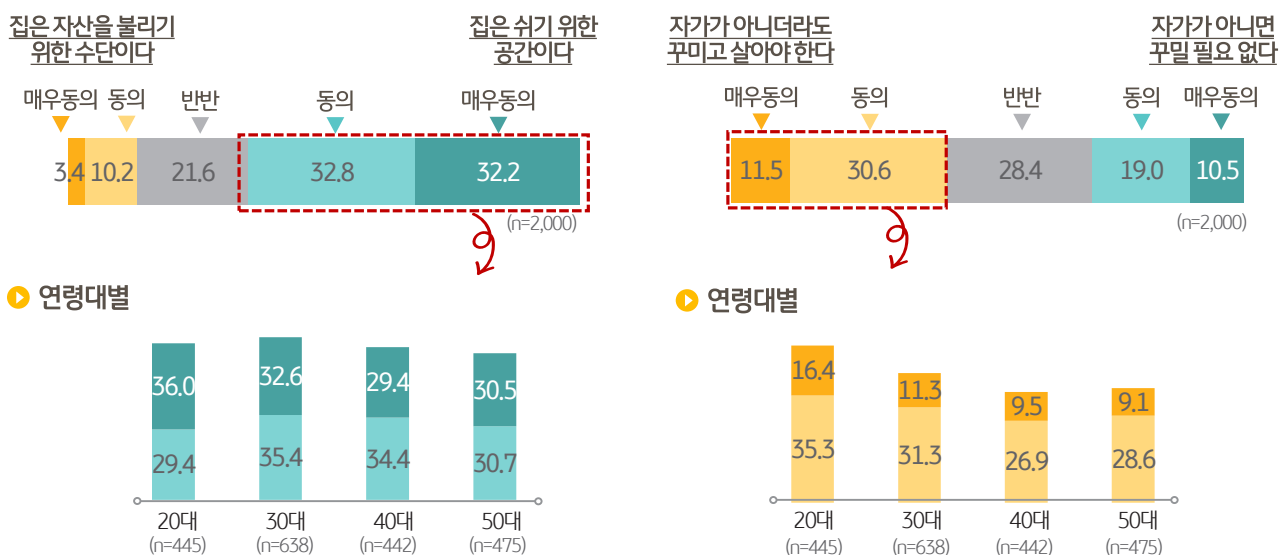
2022년 조사와 비교해 20대와 30대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주된 거주 주택 유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오피스텔’ 거주율은 202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20대 3.3%p, 30대 3.3%p). 반면 40대와 50대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2022년 조사와 같았으나, ‘아파트’ 거주율은 40대에서 6.1%p, 50대에서 5.1%p 감소했다.

다음으로 주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주거 공간에 대한 철학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먼저 집에 대한 철학을 알아보기 위해 한 축은 ‘집은 자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다’로, 다른 한 축은 ‘집은 쉬기 위한 공간이다’로 두고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집은 쉬기 위한 공간이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동의’가 32.2%, ‘동의’가 32.8%로 전체 응답자의 65%가 투자 수단보다는 거주 공간으로서 본연의 집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집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의 거주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가가 아니더라도 꾸미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1인가구의 42.1%는 ‘자가가 아니더라도 꾸미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자가가 아니면 꾸밀 필요가 없다’는 의견(29.5%)에 비해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율이 높아, 20대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7%가 동의해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30대 42.6%, 40대 36.4%, 50대 37.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그림 1-9 | 집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단위: %)



04 | 직장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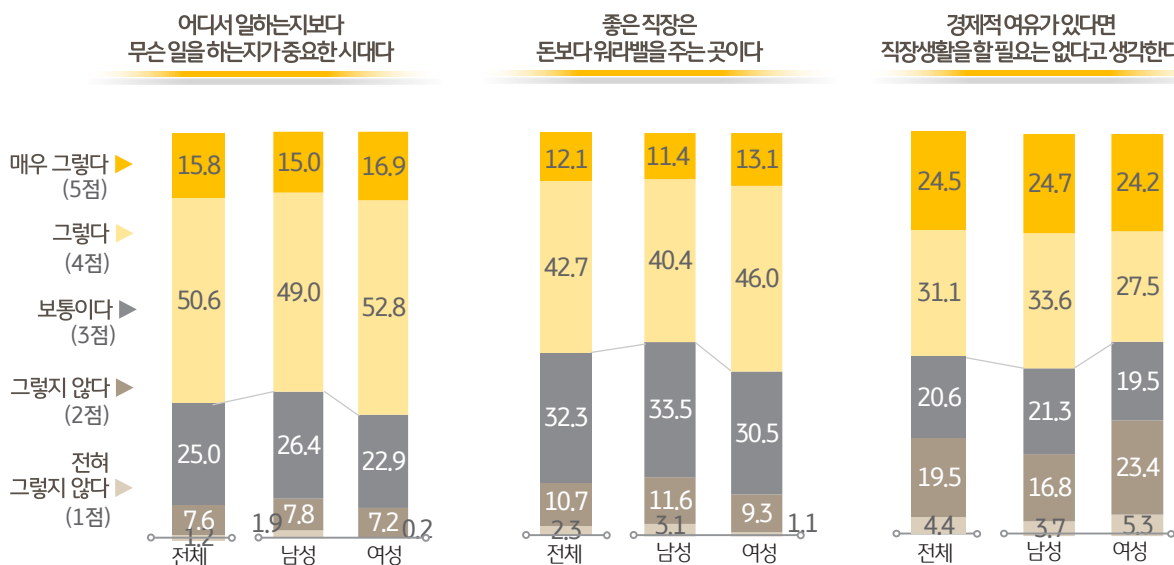
“
‘직장’보다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보다 ‘워라밸’을 주는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지난 10년 동안 200시간 가까이 줄었다. 과거보다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인가구의 직장관과 직업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어디서 일하는지보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다’라는 의견에 대해 절반이 넘는 1인가구가 동의하며(매우 그렇다+그렇다, 66.4%) 직장보다 일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직장은 돈보다 워라밸을 주는 곳이다’라는 의견(54.8%)과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장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55.6%)에 대해서는 1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동의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직장보다 일의 가치를 중시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강했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시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69.7%)이 남성(64.0%)보다 동의율이 높았고, ‘직장은 돈보다 워라밸을 주는 곳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여성(59.1%)이 남성(51.8%)보다 동의율이 높았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장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58.3%)이 여성(51.7%)보다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 직장의 필요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1-10 | 직장관과 직업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전체 n=2,000, 남성 n=1,176, 여성 n=824

절반 이상이 부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보다 12.8%p 증가, 부업 활동으로는 앱테크로 자금을 마련하는 1인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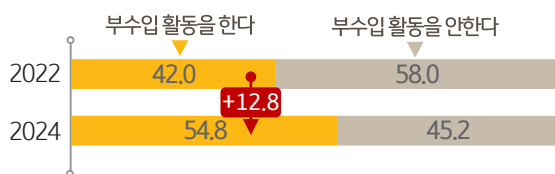
이번 조사 대상자의 80.4%가 상용직 임금 근로자였다. 임시직과 일용직까지 합하면 임금 근로자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94.3%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의 54.8%가 부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42.0%)에 비해 12.8%p나 증가한 결과다. 1인가구가 부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유·비상자금 마련’(38.7%)으로 2022년 대비 7.2%p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부업 인구는 57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고물가·고금리로 생계 부담이 더해지고 일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부업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부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고를 시청하거나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얻는 애플리케이션 재테크인 ‘앱테크’가 42.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6.2%), ‘서비스직 아르바이트’(3.8%)가 뒤를 이었다. ‘앱테크’는 2022년(22.2%)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고물가로 잔테크가 유행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중 50.6%가 앱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30대(45.2%), 40대(42.2%), 50대(30.1%) 순으로 젊은 층에서 앱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22년과 비교해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가 2.6%p 증가했고, ‘서비스직·아르바이트’도 소폭 늘었다(0.6%p). 반면 ‘택배기사·대리운전 등 배송’(1.2%p)과 ‘배달 라이더’(1.1%p)는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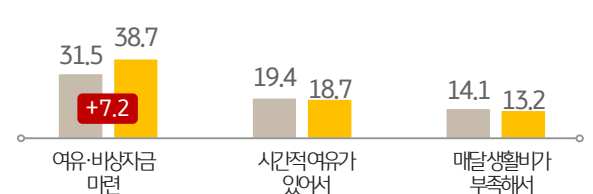
그림 I-11 | 부업에 대한 인식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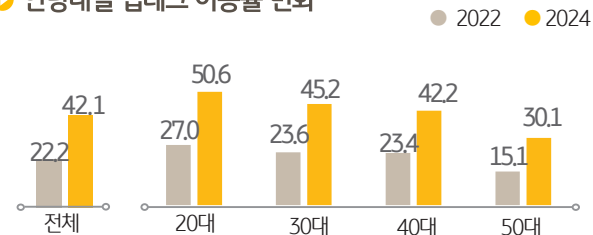
▶ 부업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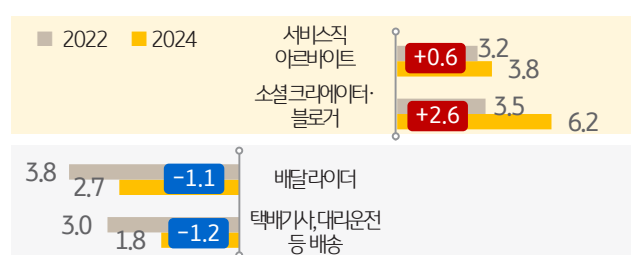
▶ 부업하는 이유 1순위



▶ 연령대별 앱테크 이용률 변화



▶ 뜨는 부업 vs 지는 부업 (변동률 높은 순 Top2)



주1) 2022 n=2,000, 2024 n=1,924 (정규 소득활동이 없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제외)
주2) 2022 20대 n=430, 30대 n=614, 40대 n=462, 50대 n=494
2024 20대 n=415, 30대 n=615, 40대 n=436, 50대 n=458

주1) 부업 활동자 2022 n=839, 2024 n=1,054
주2) 2022 n=2,000, 2024 n=1,924 (정규 소득활동이 없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제외)

05 |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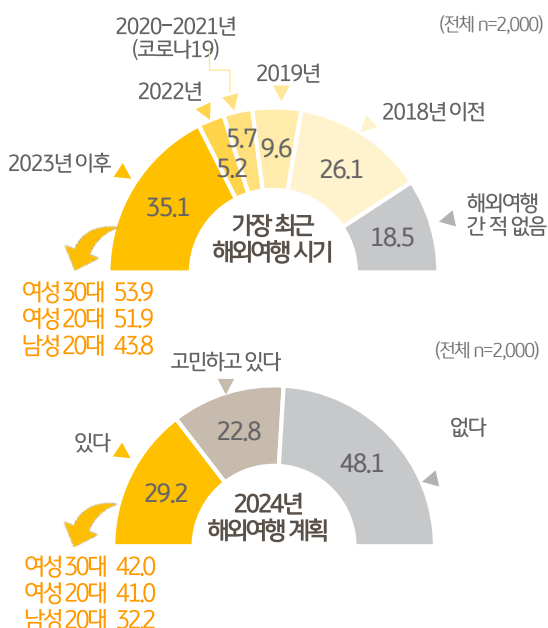
엔데믹 이후 35.1%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절반 이상은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며 예상 경비는 ‘100~200만 원’ 정도

올해는 1인가구의 식생활, 주생활, 직장생활에 더해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가장 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중 하나가 해외여행일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2천272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인가구에서도 나타나 조사 대상자 중 35.1%가 ‘2023년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52.0%는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23년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20대(56.7%)와 30대(50.4%)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연령대별로는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30대여성(42.0%)과 20대여성(41.0%)에서 가장 많았다. 가장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가는 ‘일본’이 34.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2.4%), ‘태국’(8.5%)이 뒤를 이었으며,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가도 동일하게 ‘일본’, ‘베트남’,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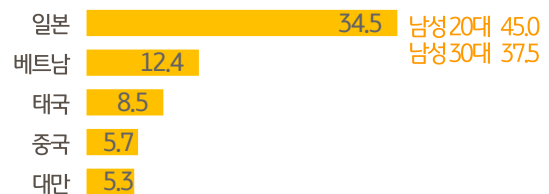
그림 1-12 | 해외여행 시기와 방문국

(단위: %)



▶ 가장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가

(복수응답, 해외여행 경험자 n=1,631)



▶ 2024년 해외여행 계획 국가

(해외여행 희망자 n=1,038)

	전체		2030		405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	베트남	태국	베트남	베트남, 태국	베트남	태국
3	태국	베트남	태국	대만	태국	서유럽, 남유럽
4	대만	대만	대만	서유럽	대만, 서유럽	베트남, 동유럽
5	서유럽	서유럽	서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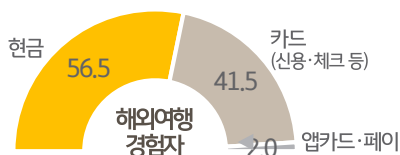
해외여행지로 일본과 베트남, 태국 등을 선택한 이유에는 환율, 물가 등이 낮아 여행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주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했는지 질문한 결과, ‘카드’(41.5%)보다 ‘현금’(56.5%)을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1인가구는 ‘현금’(40.3%)보다 ‘카드’(52.8%)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금융권에서 수수료 면제 등 해외여행에 대한 혜택이 많은 카드를 출시하면서 카드 사용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해외여행 시 느꼈던 금융 관련 불편 사항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불편사항은 귀국 후에 ‘여행 후 남은 현금을 처치하기 곤란’하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환전 시 은행·회사별 수수료 및 환율 비교’가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현금 이용 시 도난·분실 위험’, ‘카드 이용 시 수수료 발생’도 4명 중 1명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금융 관련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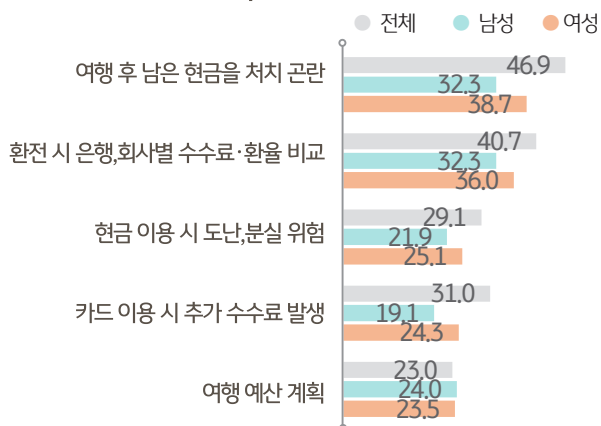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고민하는 1인가구가 예상하는 비용 규모는 ‘100~200만 원 미만’(44.2%)이 가장 많았다. 금액대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200만 원 미만’은 20대(54.0%), ‘500만 원 이상’은 50대(12.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외여행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의향을 보였다. 예상하는 여행 비용 규모를 통해 방문 희망 국가를 유추해 보면 50대는 ‘유럽’·‘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단거리인 ‘아시아’를 계획하는 경우는 가장 적었다.

그림 1-13 | 해외여행 예상 결제수단 및 금융 불편사항 (단위: %)

▶ 해외여행 시 주된 결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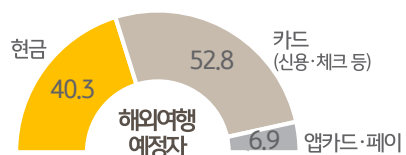
▶ 금융관련 불편사항 Top5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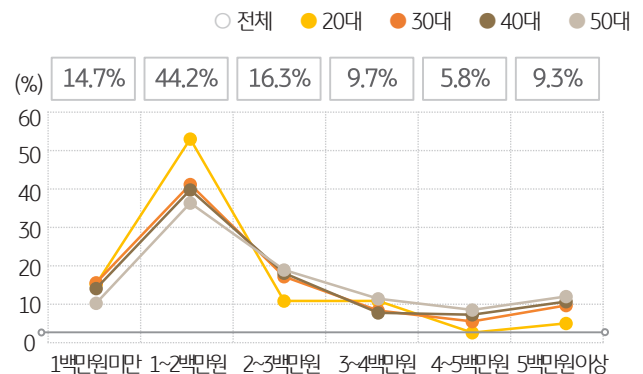
주) 해외여행 경험자 전체 n=1,631, 남성 n=914, 여성 n=717

그림 1-14 | 해외여행 예상 결제수단 및 예상 경비 (단위: %)

▶ 해외여행 시 예상 결제수단



▶ 해외여행 예상 경비



주) 올해 해외여행 계획자 전체 n=1,038, 20대 n=287, 30대 n=381, 40대 n=200, 50대 n=170

New Findings



1인가구 53.1%는 '비자발적' 이유로 독립, 1인 생활 지속의향은 소폭 감소

- ✓ 학교나 직장, 사별이나 이혼 등 비자발적 이유로 1인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2020년 39.9%, 2022년 51.2%, 2024년 53.1%로 지속적으로 증가
- ✓ 1인 생활 지속 의향이 높은 응답자 비율은 55.8%로 2022년(56.3%)보다 소폭 감소
- ✓ 1인 생활을 4년 이내 단기로 단축하려는 경향은 2년 전보다 3.4%p 증가



한국 1인가구는 하루 평균 두 끼도 못 먹고 70%정도는 '혼밥'

- ✓ 1인가구는 하루 평균 1.8끼를 식사하며 2020년(하루 평균 2.2끼)보다 덜 챙겨 먹음
- ✓ 혼밥 비중은 2020년 65.2%에서 2024년 67.8%로 2.6%p 증가
- ✓ 혼자 식사하는 방식은 '직접 밥을 해서' 먹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4.9%p 증가



1인가구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거주율이 가장 높고 '아파트' 거주율은 감소

- ✓ 1인가구의 38.4%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다음으로 '아파트(30.7%)', '오피스텔(22.2%)' 순
- ✓ 2022년과 비교해 '아파트' 거주율은 5.5%p 감소하고,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율은 3.1%p 증가
- ✓ 20·30대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율이, 40·50대는 '아파트' 거주율이 높음



직장보다 직업, 돈보다 워라밸을 중시하고 앱테크 이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

- ✓ '어디서 일하는지보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다'는 의견에 1인가구의 66.4%가 동의
- ✓ '좋은 직장은 돈보다 워라밸을 주는 곳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1인가구의 54.8%가 동의
- ✓ 1인가구 절반 이상(54.8%)은 부업 활동 중이며 2022년(42.0%)보다 비율이 크게 증가
- ✓ 부업 활동으로 앱테크를 하는 1인가구 비율은 42.1%로 2022년(22.2%)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



1인가구 절반 이상은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거나 고민 중

- ✓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거나 고민 중인 1인가구 비율은 52.0%이며, 특히 20·30대 여성 응답률이 높음
- ✓ 1인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국가는 일본, 베트남, 태국 순
- ✓ 여행 비용 규모는 '100~200만 원'(44.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300만 원'(16.3%), '100만 원 미만'(14.7%) 순

II 1인가구의 금융생활

- 01 | 소비지출
- 02 | 부동산자산 현황
- 03 | 금융자산 현황
- 04 | 자산관리



1인가구는 식생활과 주생활, 여가생활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소득 활동과 소비지출 활동, 자산관리 활동 등 금융생활 또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행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원은 근로나 사업 등 노동을 통한 소득이 76.3%를 차지하고, 재산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노동 이외의 활동을 통한 소득은 23.7%에 불과했다. 1인가구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 대부분이며 월평균 251만 원(연평균 3천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44.5%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적극적 경제 활동이 어려운 60세 이상 1인가구(35.3%)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1인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 등에 대해 다룬 통계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1인가구의 금융생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1인가구를 세분화하여 각 그룹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형 1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현황, 최근 자산관리 이슈와 관리 행동 등을 분석하여 1인가구의 자산관리 현황 및 니즈를 파악하고,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변화 정도를 알아본다.

01 |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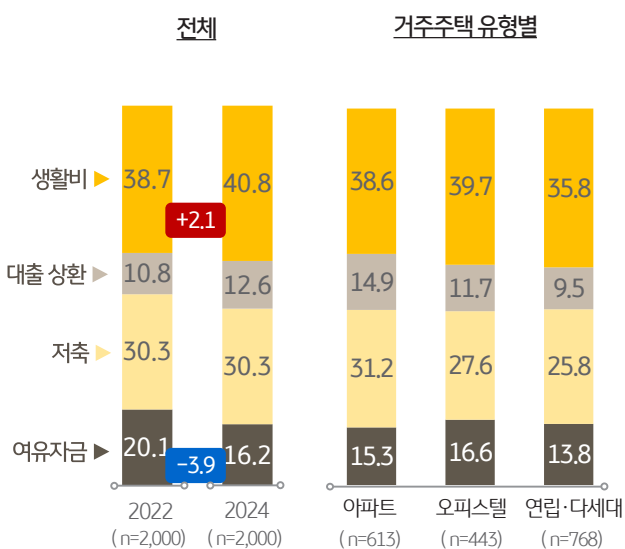
1인가구는 월 소득의 40.8%를 생활비로 지출,
2022년 대비 생활비와 대출상환 비중이 늘면서 여유 자금도 감소

이번 연구는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는 25~59 남녀로 연평균 소득 1천200만 원 이상의 경제 활동을 하는 1인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3천780만 원(월평균 315만 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인 3천10만 원(월평균 251만 원)보다 높다. 이는 통계청에서 선정한 1인가구에는 60세 이상(전체 1인가구 중 35.3%)이 포함된 데 비해 본 연구는 25~59세의 경제 활동 중인 1인가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1인가구는 월 소득 중 주거비, 식비, 여가비 등 생활비로 40.8%를 지출했으며 2022년(38.7%)보다 2.1%p 늘었다. 거주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월 소득 중 생활비 비중이 39.7%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항목 중 '월세·관리비' 비중이 27.1%로 아파트(19.2%)나 연립·다세대(23.3%)보다 높았다. 1인가구의 생활비 항목 중 '월세·관리비'와 '식비' 비중은 55.5%로 2022년(53.6%)에 비해 1.9%p 늘었는데, '월세·관리비'가 2년 전보다 2.4%p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II-1 | 항목별 월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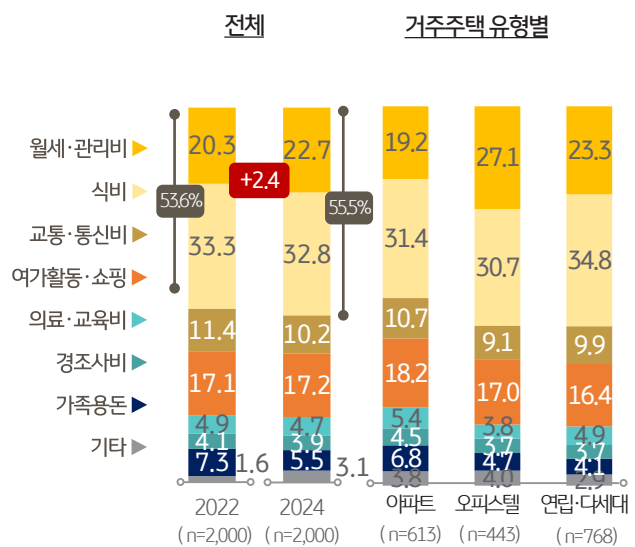
(단위: %, %p)



주) 거주주택 유형은 상위 3가지만 분석

그림 II-2 | 생활비 구성 항목별 지출액

(단위: %, %p)



주) 거주주택 유형은 상위 3가지만 분석

2022년과 비교해 더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자산관리를 하며, 20대가 자산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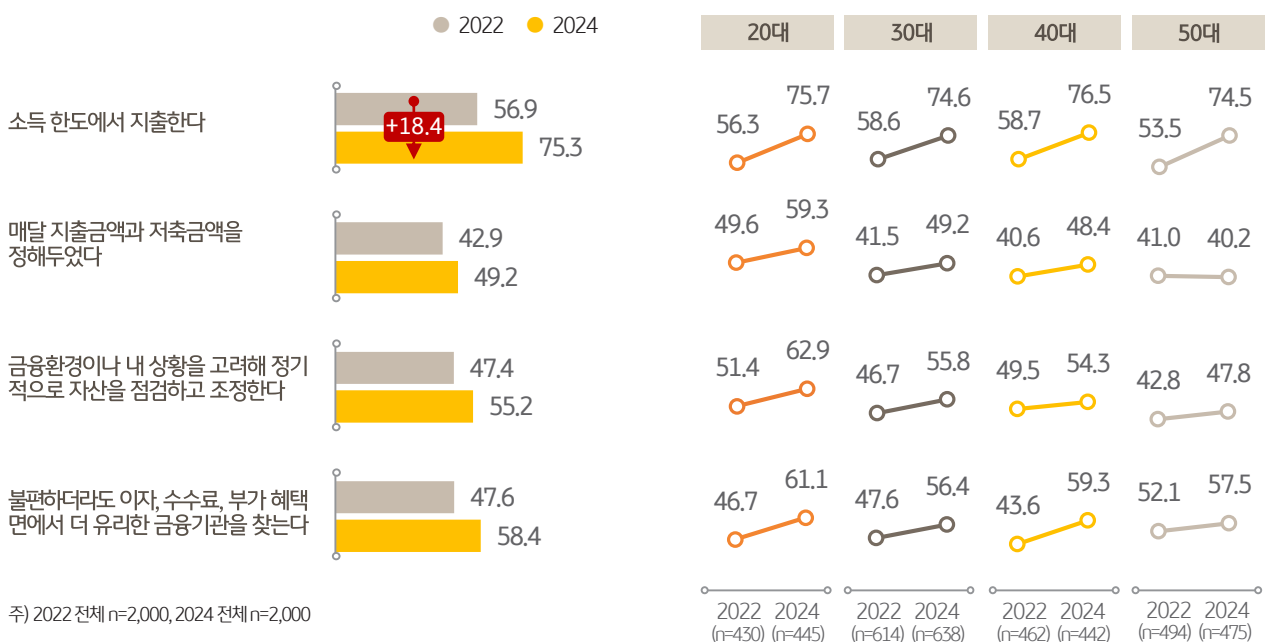
고금리·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인가구도 지출 및 자산관리 행태에 변화가 있는지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지출 행태부터 보면 ‘소득 한도에서 지출한다’는 의견에 대해 1인가구의 75.3%가 동의했고 2022년(56.9%)에 비해 18.4%p나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해 2022년에 비해 20대에서 19.4%p, 30대 16.0%p, 40대 17.8%p, 50대 21.0%p 상승했다. 계획적 지출관리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매달 지출금액과 저축 금액을 정해두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1인가구의 49.2%가 계획적으로 지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022년(42.9%)에 비해 동의율이 소폭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동의율이 59.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감소했다.

자산관리 행태를 보면 ‘금융 환경이나 내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의견에는 1인가구의 55.2%가 동의했고 2022년(47.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20대가 가장 높은 동의율(62.9%)을 보이며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하더라도 이자, 수수료, 부가 혜택 면에서 더 유리한 금융기관을 찾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20대가 61.1%로 가장 동의율이 높았고, 2022년(46.7%)에 비해 동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관리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그림 II-3 | 1인가구의 지출 및 자산관리 행태 변화

(단위: %p)



02 | 부동산자산 현황

1인가구의 45%가 월세에 거주하며,
2022년과 비교해 전 연령대에서 월세 거주자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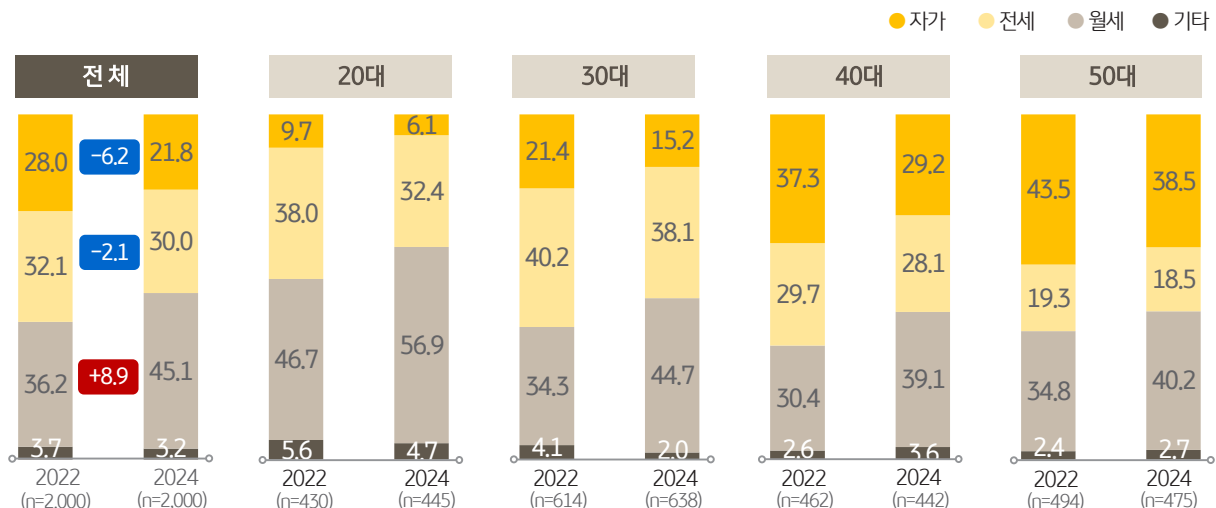
1인가구가 보유한 부동산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주주택으로 주택 소유형태로 부동산자산을 가늠해 보았다. 1인가구는 ‘월세’ 거주자가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 거주자(30.0%), ‘자가’ 거주자(21.8%) 순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월세 거주자는 8.9%p 증가한 반면 자가 거주자와 전세 거주자는 각각 6.2%p, 2.1%p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과 전세금으로 구성된 1인가구의 부동산자산 규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월세’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세’, ‘자가’의 순이었다. 특히 20대는 ‘월세’ 거주자가 56.9%로 절반이 넘었다. 40대와 50대도 ‘월세’ 거주자가 가장 많으나 20·30대 대와 달리 ‘자가’ 거주자가 ‘전세’ 거주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의 경우에는 ‘자가’ 거주자(29.2%)가 ‘전세’ 거주자(28.1%)보다 1.1%p 많은 데 불과하나 50대의 경우 ‘자가’ 거주자가 38.5%로 ‘전세’(18.5%) 거주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2022년과 비교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대에서 ‘월세’ 거주율은 증가한 데 비해 ‘자가’ 거주율과 ‘전세’ 거주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변화가 큰 ‘월세’ 거주율의 경우 20대와 30대는 각각 10.2%p, 10.4%p 증가한 데 비해 40대는 8.7%p, 50대는 5.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자가’ 거주율은 20대에서 3.6%p, 30대에서 6.2%p, 40대에서 8.1%p, 50대에서 5.0%p 줄었고, ‘전세’ 거주율은 20대에서 5.6%p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그림 II-4 | 주택 소유 형태 변화

(단위: %p)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을 희망하며 2022년에 비해 의향이 늘었고, 대부분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구입을 희망

올해 조사에서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인가구 비율은 53.6%로 2022년(50.9%)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택 구입 의향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사는 1인가구(55.2%)가 그 외 지역에 사는 1인가구(49.3%) 보다 약간 높았다. 구입하고 싶은 주택 유형은 ‘아파트’(77.5%)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2022년(75.4%)에 이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1인가구 중 아파트 거주자가 30.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구입 의향은 2배 이상 높았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1인가구에게 예상하는 주택 면적을 질문한 결과, ‘20~25평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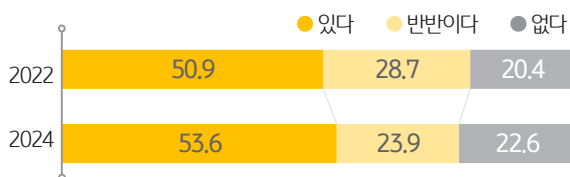
주택 구입 예상 기간은 ‘3~5년 이내’(32.6%)가 가장 많았고, ‘1~3년 이내’(21.8%)가 그 뒤를 이어 1인가구의 58.5%가 ‘5년 이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주택 구입 예상 금액은 ‘3~4억 원 미만’(19.5%), ‘2~3억 원 미만’(16.9%), ‘4~5억 원 미만’(15.6%), ‘5~6억 원 미만’(14.0%)의 순으로, ‘6억 원 미만’을 예상하는 경우가 77.6%로 2022년(67.9%)보다 9.7%p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5~6억 원 미만’(16.7%)을 목표 금액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5억 원 미만’(16.4%), ‘3~4억 원 미만’(14.8%), ‘2~3억 원 미만’(13.1%), ‘9억 원 이상’(12.0%)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예상 금액이 높았다.

그림 Ⅱ-5 | 1인가구의 주택 구입 의향과 유형, 시기, 예상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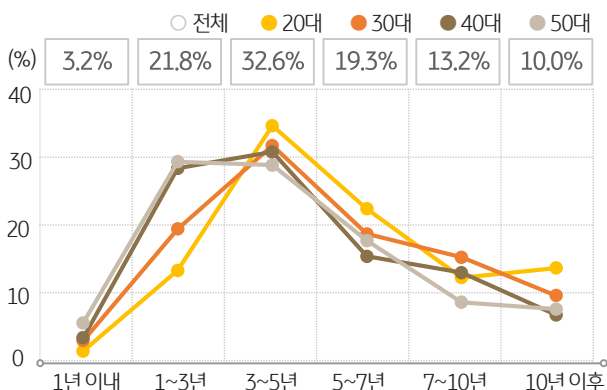
▶ 주택 구입 의향

(2022, 2024 각각 n=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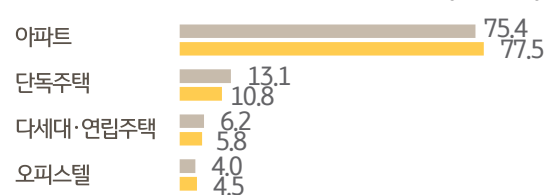
▶ 주택 구입 예상 시기

(주택구입 의향자 2024 n=1,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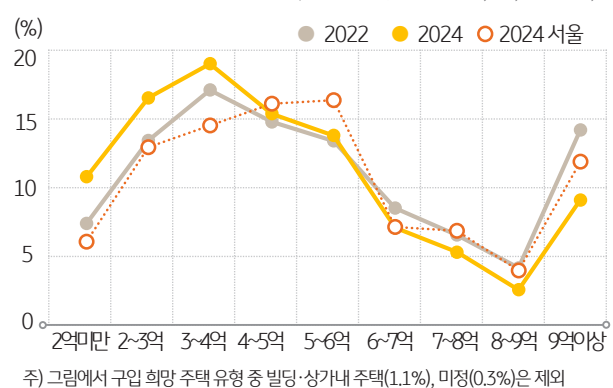
▶ 구입 희망 주택 유형

(주택구입 의향자 2022 n=1,018, 2024 n=1,072)



▶ 주택 구입 예상 금액

(주택구입 의향자 2022 n=1,018, 2024 n=1,072)



03 | 금융자산 현황

유동성 자금과 예·적금이 금융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금리 인상으로 2022년에 비해 예·적금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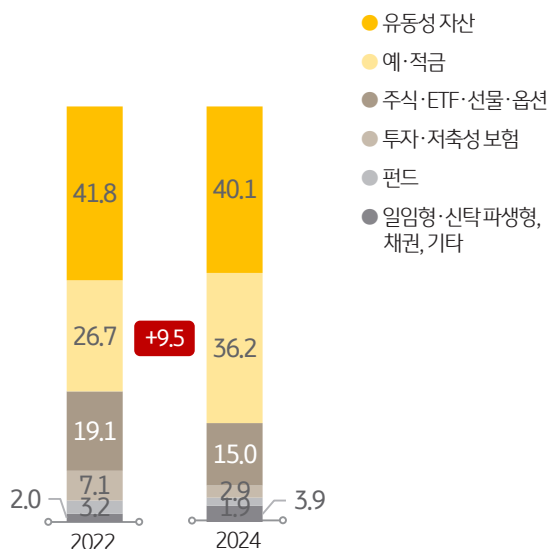
주택 소유 형태와 구입 의향, 목표 금액 등을 통해 부동산자산 운용 니즈를 가늠한 데 이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와 대출 보유 현황을 통해 금융자산 운용 니즈도 살펴보았다.

먼저 1인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현금과 수시입출식 예금, CMA, MMF 등의 '유동성 자산'(40.1%)이었다. '예·적금'(36.2%)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금리 인상으로 2022년(26.7%)에 비해 9.5%p 증가했다. 유동성 자산과 예·적금으로 구성된 '안정형 자산' 비율은 76.3%로 2022년(68.5%)에 비해 7.8%p 늘었다.

다음으로 세부 금융자산별 보유율을 살펴보았는데, '유동성 자산'(100%)은 모든 1인가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유동성 자산' 다음으로 보유율이 높은 '예·적금'은 1인가구의 73.8%가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67.7%)에 비해 6.1%p 늘었다. 그 외 '주식·ETF·선물·옵션'(44.4%), 'CMA·MMF'(23.6%), '가상자산'(17.2%)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ETF·선물·옵션'과 '투자·저축성 보험'은 2022년에 비해 각각 9.1%p, 19.6%p 줄었다. 올해 처음 조사한 '가상자산' 보유율은 17.2%로 남성(21.5%)이 여성(1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II-6 | 1인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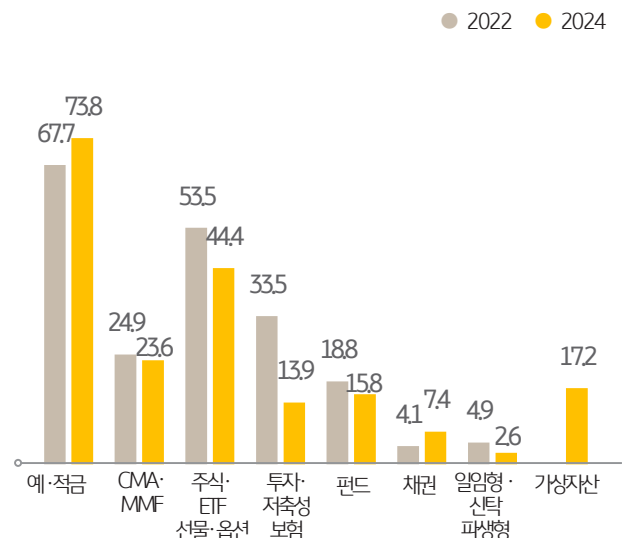
(단위: %, %p)



주1) 2022 전체 n=2,000, 2024 전체 n=2,000
주2) 유동성 자산 = 현금, 수시입출식 예금, CMA, MMF

그림 II-7 | 1인가구의 세부 금융자산 보유율

(단위: %)



주1) 2022 전체 n=2,000, 2024 전체 n=2,000
주2) 2022년 가상자산 보유율은 미조사

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2022년에 비해 증가했고, 자가·전세·월세 거주자 모두 대출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증가

금융자산 운용에서 보유 자산의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출 관리다. 1인가구의 대출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대출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먼저 대출을 가지고 있는 1인가구 비율은 54.9%로 2022년(47.7%)보다 7.2%p 증가했다.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주택 소유 유형이므로 자가·전세·월세 거주자로 나누어 대출 보유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대비 자가 거주자(11.1%p)와 전세 거주자(10.7%p)는 10%p 이상, 월세 거주자는 4.0%p로 소폭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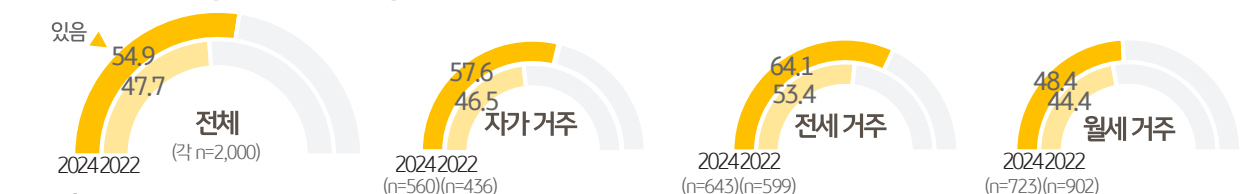
2022 년과 비교해 대출상품 전반적으로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3.4%p, 2.8%p로 크게 증가했고, ‘예·적금담보대출’(1.1%p), ‘마이너스통장’(0.9%p) 등의 늘었다. 반면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감소했고, 그 외 자동차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도 소폭 감소했다.

대출을 보유한 1인가구의 평균 대출 잔액은 7천800만 원으로 2022년(9천900만 원)에 비해 2천100만 원이 줄었다. 평균 대출 잔액은 자가 거주자가 1억 3천100만 원, 전세 거주자가 8천500만 원, 월세 거주자가 4천100만 원이었다. 보유한 대출 유형은 담보대출이 56.0%, 신용대출이 32.9%, 자동차대출·카드론·학자금대출 등의 기타대출이 11.1%로 2022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주택 소유 유형별로도 지난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Ⅱ-8 | 1인가구의 주택 소유유형별 대출 보유율 및 규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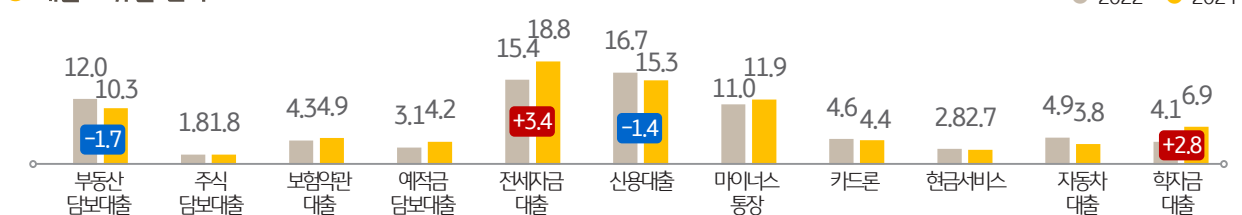
▶ 거주주택 소유유형별 대출 보유 현황



▶ 대출 비중

[주택 유형]	담보	신용	기타
[전체]			
2022	57.6	33.6	8.8
2024	56.0	32.9	11.1
[자가 거주]			
2022	73.6	20.7	5.7
2024	76.4	18.4	5.3
[전세 거주]			
2022	72.6	21.9	5.5
2024	74.7	17.9	7.3
[월세 거주]			
2022	31.7	54.5	13.8
2024	29.4	54.6	16.0

▶ 대출 보유율 변화



주) 2022 대출보유자전체 n=953(자가 n=261, 전세 n=343, 월세 n=321, 기타 n=28), 2024 대출보유자전체 n=1,097(자가 n=251, 전세 n=384, 월세 n=437, 기타 n=25), 기타 제외

04 | 자산관리

1인가구의 76.8%가 ‘스스로 계획해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21.8%만이 스스로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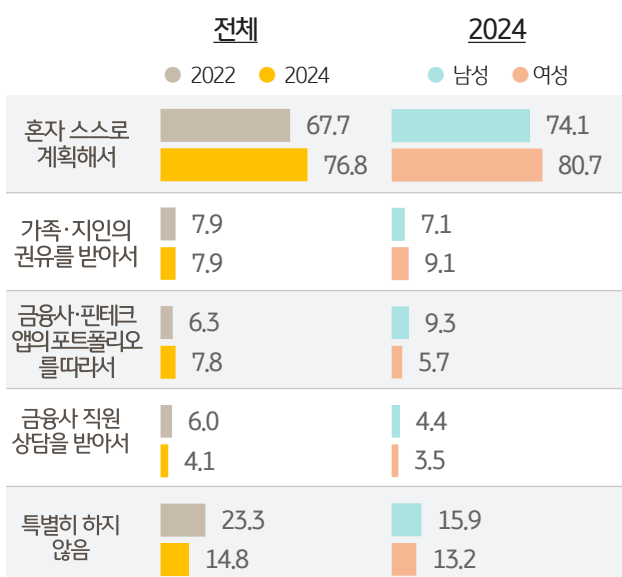
1인가구의 자산관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조사 대상자의 76.8%가 ‘스스로 계획해서’ 자산관리를 한다고 응답했고, 특별히 자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은 14.8%에 불과했다. 2022년에 비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8.5%p 감소하여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스스로 계획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비율은 여성(80.7%)이 남성(74.1%)보다 높았고, 특별히 자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남성(15.9%)이 여성(13.2%)보다 높아 여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다.

자산관리에 대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와 표적집단심층면접(FGD, Focus Group Discussion) 조사를 실시했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가 “...이제는 목돈을 만들고 굴리다 보니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도하는 편이에요”나 “독립 전에는 별생각이 없다가 1인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조바심이 생겨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서 뒤쳐진 생각도 들어요”라고 이야기하여 1인가구가 되면서 자산관리 필요성과 관심, 재테크 의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 자산관리 방법 Top4

(복수응답, 단위: %)



주) 전체 n=2,000, 남성 n=1,176, 여성 n=824, 3%미만 소수 의견 제외

그림 II-10 | 자산관리에 관한 인식

(단위: %)

2030 여성

독립 전에는 용돈을 받으니까 재테크라고 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목돈을 만들고 굴리다 보니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도하는 편이에요

2030 남성

독립 전에는 별생각이 없다가 1인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조바심이 생겨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서 뒤쳐진 생각도 들어요

4050 여성

노후에 폐지 주우려 다니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금과 주식을 조금 하고 있어요

2030 남성

4050 남성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목표여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비중을 늘릴 생각이예요

주)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Discussion, FGD) 결과

자산관리의 목적은 달라도 1인가구의 상당수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4분의 3 정도는 스스로 계획해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다.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는 자산관리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자신의 자산관리 행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1인가구는 스스로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다’(21.8%)고 평가하는 경우보다 ‘못하고 있다(32.0%)’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2022년과 비교해 ‘잘하고 있다’(19.6%)는 응답률과 ‘못하고 있다’(29.3%)는 응답률이 각각 2.2%p, 2.7%p 증가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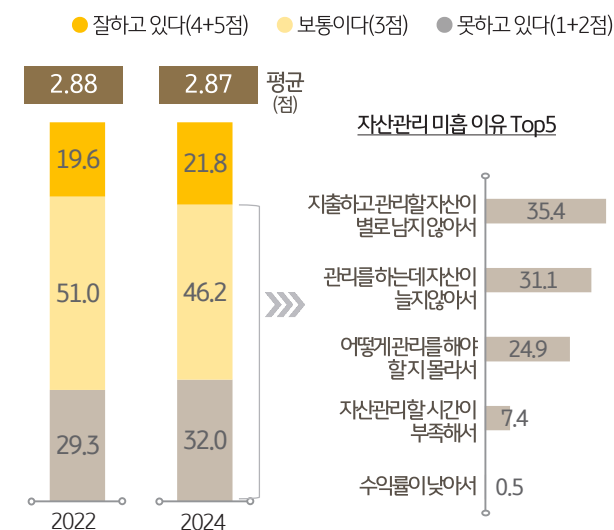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 자산관리의 실행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지출하고 관리할 자산이 별로 남지 않아서’(35.4%)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관리를 하는데 자산이 늘지 않아서’(31.1%)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24.9%)의 순으로 나타나, 자산관리의 실행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30대 남성의 경우 ‘잘하고 있다’의 응답률은 30.2%, ‘못하고 있다’의 응답률은 26.2%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았다. 이들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40·50대 여성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12.2%로 가장 낮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36.4%에 달했으며, 20·30대 여성은 자산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0.7%로 가장 높았다.

2022년과 비교해 전 연령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자산관리 행태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 20·30대 여성이 평균 2.72점으로 2022년(평균 3.69점)보다 0.97점 낮아졌고, 다음으로 40·50대 여성이 2.69점으로 2022년(3.21점)보다 0.52점 하락해 남성보다 여성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하려는 경향은 늘었으나 자신감 있게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1 | 자산관리 실행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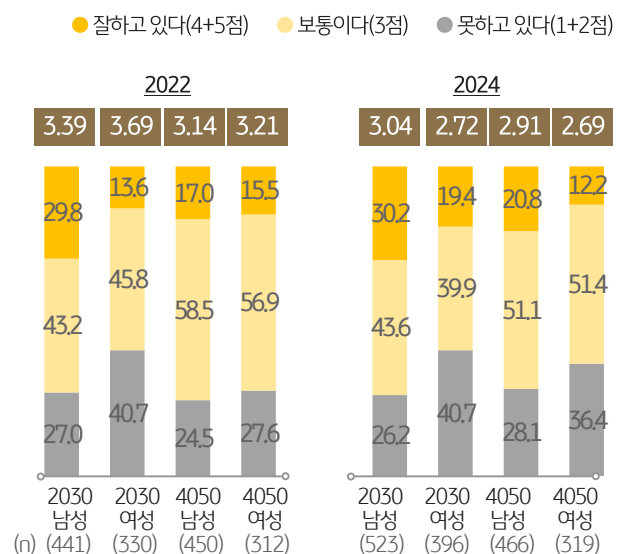
(단위: %)



주1) 2022 전체 n=1,533, 2024 전체 n=1,704 (자산관리 하지 않음 제외)
 주2) 자산관리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전혀 못하고 있다(1점), 거의 못하고 있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잘하고 있다(4점), 매우 잘하고 있다(5점)
 주3) 자산관리 미흡자=전혀 못하고 있다(1점)+못하고 있다(2점)+보통이다(3점), n=1,333

그림 II-12 | 성별·연령별 자산관리 평가

(단위: %)



주1) 남성 n=989, 여성 n=715
 주2) 자산관리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전혀 못하고 있다(1점), 거의 못하고 있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잘하고 있다(4점), 매우 잘하고 있다(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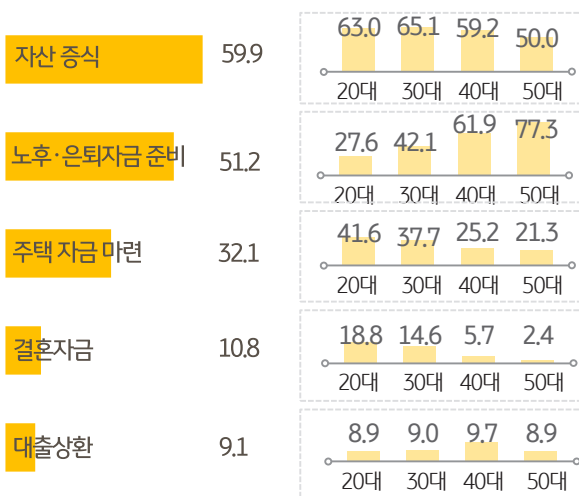
주된 재테크 목적은 ‘자산 증식’과 ‘노후 및 은퇴자금 준비’, ‘노후 및 은퇴자금 준비’는 40대부터 관심이 크게 증가

1인가구는 혼자 사는 만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실행에서 자신감이 부족했다. 이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행 사이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여 재테크를 실행하는지 알아보았다.

재테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자산 증식’(59.9%)과 ‘노후·은퇴자금 준비’(51.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산 증식’은 20대(63.0%), 30대(65.1%), 40대(59.2%)에서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고, ‘노후·은퇴자금 준비’는 40대(61.9%)와 50대(77.3%)의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노후·은퇴자금 준비’에 대해서는 20·30대 대에 비해 40·50대에서 크게 증가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주택자금 마련’도 32.1%로 높았으며 특히 20대(41.6%)와 30대(37.7%)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테크 정보 탐색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1인가구의 49.0%가 꼽았고, 다음은 ‘유튜브’로 37.5%가 활용했다. 연령별로 보면 1인가구의 절반이 활용하는 ‘인터넷 검색’은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56.0%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37.5%) 활용은 30대 남성(45.4%)이 선호했다. 그 외 ‘가족 및 지인의 추천’(19.2%), ‘신문·잡지·TV’(13.0%), ‘자산관리 앱’(12.4%)이 뒤를 이었다. 자산관리 앱의 경우 1인가구의 12.4%가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20대 남성의 응답률도 17.4%에 불과해 고객 니즈에 맞춘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II-13 | 재테크 활동의 목적 Top5 (1+2순위, 단위: %)



주) n=1,825 (현금, 수시입출금만 보유자 제외)

그림 II-14 | 재테크 정보탐색 방법 Top5 (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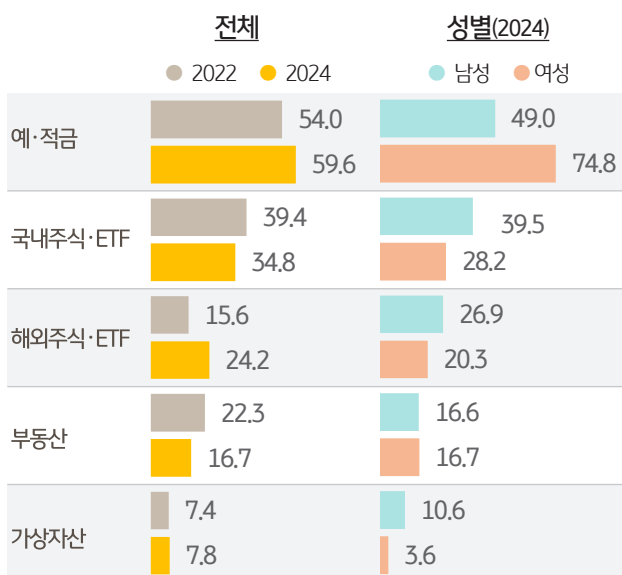
주) 복수응답 포함 n=1,919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은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예·적금’이 대세, 2022년에 비해 ‘예·적금’ 선호도가 증가

1인가구가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은 ‘예·적금’(59.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 주식·ETF’(34.8%), ‘해외 주식·ETF’(24.2%), ‘부동산’(16.7%), ‘가상자산’(7.8%) 순으로 선호했다. 2022년과 비교해 ‘예·적금’과 ‘해외 주식·ETF’ 선호도는 증가한 반면 ‘국내 주식·ETF’와 ‘부동산’의 선호도가 감소했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을 축적하는 주된 방법으로 ‘예·적금’ 선호도가 높아지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매력도가 떨어진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74.8%)이 남성(49.0%)보다 ‘예·적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 안정성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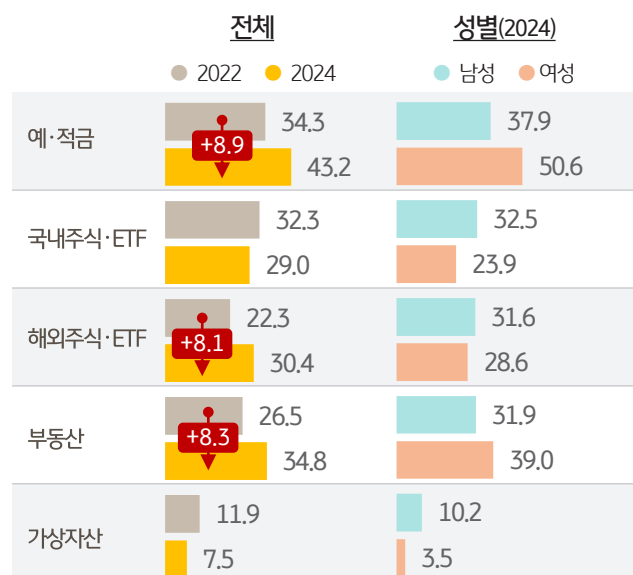
향후 관심 있는 재테크 방법도 ‘예·적금’(43.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해 ‘예·적금’(+8.9%p), ‘부동산’(+8.3%p), ‘해외 주식’(+8.1%p)의 선호도가 증가했고, 금이나 예술품 등 ‘실물자산’(-5.4%p), ‘가상자산’(-4.4%p)의 선호도는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과 마찬가지로 ‘예·적금’에 대한 관심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동산’도 여성(39.0%)의 관심도가 남성(31.9%)보다 높았다. ‘해외 주식·ETF’에 대한 관심은 20대 남성(40.8%)과 30대 여성(39.1%)이 특히 높았고, ‘국내 주식·ETF’는 50대 남성(36.1%)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림 II-15 |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 Top5 (1+2순위, 단위: %)



주1) 2022, 2024 각각 n=2,000
주2) 2024 남성 n=1,176 여성 n=824

그림 II-16 | 향후 관심있는 재테크 방법 Top5 (1+2순위, 단위: %, %p)



주) n=2,000, 남성 n=1,176, 여성 n=824

New Findings



1인가구는 월 소득의 40.8%를 생활비로 지출, 과거보다 여유자금은 감소

- ✓ 2024년 조사 대상 1인가구(25~59세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 원 수준
- ✓ 2022년 대비 월 생활비(+2.1%p)와 대출금 상환(+1.8%p) 비중이 늘면서 여유자금(-3.9%p)은 감소
- ✓ 1인가구의 월 생활비 중 월세·관리비(22.7%)와 식비(32.8%)가 높은 비중을 차지



1인가구 45%가 월세에 거주하며 전 연령대에서 월세 거주자가 증가

- ✓ 2024년 1인가구는 '월세'(45.1%), '전세'(30.0%), '자가'(21.8%) 순으로 거주
- ✓ 2022년과 비교해 '월세' 거주율은 8.9%p 증가하고 '자가'와 '전세' 거주율은 각각 6.2%p, 2.1%p 감소
- ✓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을 희망하며 대부분이 6억 원 미만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을 희망



유동성 자금과 예·적금이 금융자산의 76.3%를 차지하며 2년 전보다 8%p 증가

- ✓ 1인가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성 자산'(40.1%)과 '예·적금'(36.2%)으로 구성된 '안정형 자산' 비중은 2022년 68.5%에서 76.3%로 증가
- ✓ 2022년과 비교해 예·적금 보유율은 6.1%p 증가한 반면 '주식·ETF·선물옵션' 보유율은 9.1%p 감소
- ✓ 1인가구의 55%는 대출을 보유하고 평균 대출 잔액은 7천800만 원으로 나타남



1인가구 중 21.8%만이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

- ✓ 1인가구의 76.8%가 스스로 계획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반면, 14.8%는 자산관리를 하지 않음
- ✓ 스스로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1인가구(21.8%)보다 못하고 있다는 1인가구(32.0%)가 더 많음
- ✓ 20·30대 대의 재테크 목적은 '자산 증식', 40·50의 재테크 목적은 '노후 및 은퇴자금 준비'
- ✓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으로 2022년 대비 부동산 선호도는 감소하고, 해외 주식 선호도는 증가

III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01 | 1인 생활 만족도

02 | 1인 생활 애로사항

03 | 1인 생활 만족도와 인식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2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이 낮고 주거가 취약하며 사회적 고립, 외로움,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한국의 현실에서 1인가구 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생활상의 애로사항, 정서적 애로사항 등 생활과 인식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장에서는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1인가구의 생활과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1인가구의 1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경제력, 공간·환경, 여가생활, 인간관계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활상의 애로사항과 정서적 애로사항을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다각도로 짚어본다. 이와 함께 생활 만족도가 향후 결혼 의향이나 건강관리, 금융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1인 생활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01 | 1인 생활 만족도

10명 중 7명이 1인 생활에 만족하며 2022년에 비해 소폭 상승,
이 중 엔데믹 이후 방역 지침이 완화되며 여가생활 만족도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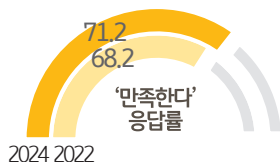
1인가구는 1인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1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1인가구가 전체의 71.2%로 10명 중 7명 정도가 동의하며 2022년(68.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가생활' 만족도가 75.3%로 2022년 대비 6.1%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일상 생활과 여행 등이 자유로워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 외 '경제력'(+0.4%p), '공간·환경'(+3.6%p), '인간관계'(+3.0%p)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만족도가 상승했다.

연령 집단별로 전반적인 1인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1인 생활에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30대 여성(83.5%)이었고, 다음으로 40·50대 여성(72.6%), 20·30대 남성(70.2%), 40·50대 남성(61.1%)의 순이었다. 세부 분야별 만족도에서도 '경제력'을 제외한 '공간·환경', '여가생활', '인간관계' 분야에서 20·30대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50대 남성은 '경제력'(50.5%)에서는 40·50대 여성(52.3%)과 유사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III-1 | 1인 생활 만족도 -전반적 & 세부분야별 (단위: %, %p)

▶ 1인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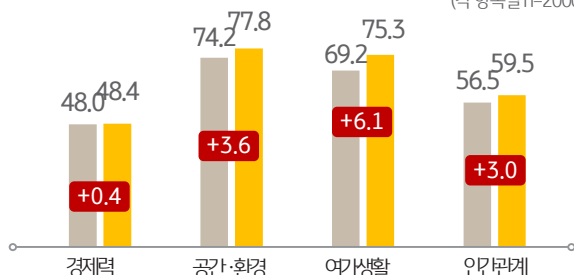
(전체 n=2,000)



▶ 세부분야별 만족도 추이

1인 생활 "만족한다" 응답자

● 2022년 ● 2024년
(각 항목별 n=2000)



주)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1점) ~ 매우 만족(5점)]
"만족한다"의 응답은 매우 만족(5점)과 만족(4점)의 응답률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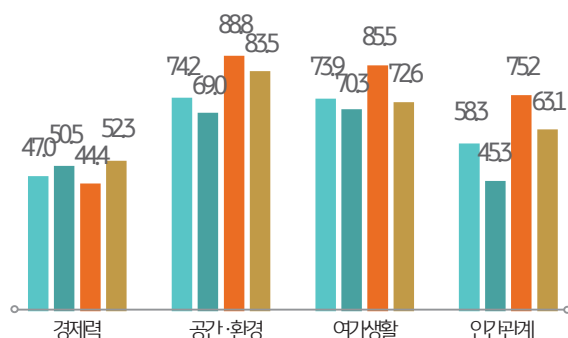
그림 III-2 | 성별·연령대별 1인 생활 만족도 (단위: %)

▶ 성별·연령대별 전반적 만족도



▶ 성별·연령대별 세부 분야별 만족도

● 2030 남성 ● 4050 남성 ● 2030 여성 ● 4050 여성



주1) '만족한다' 응답자 = 매우 만족(5점) + 만족(4점)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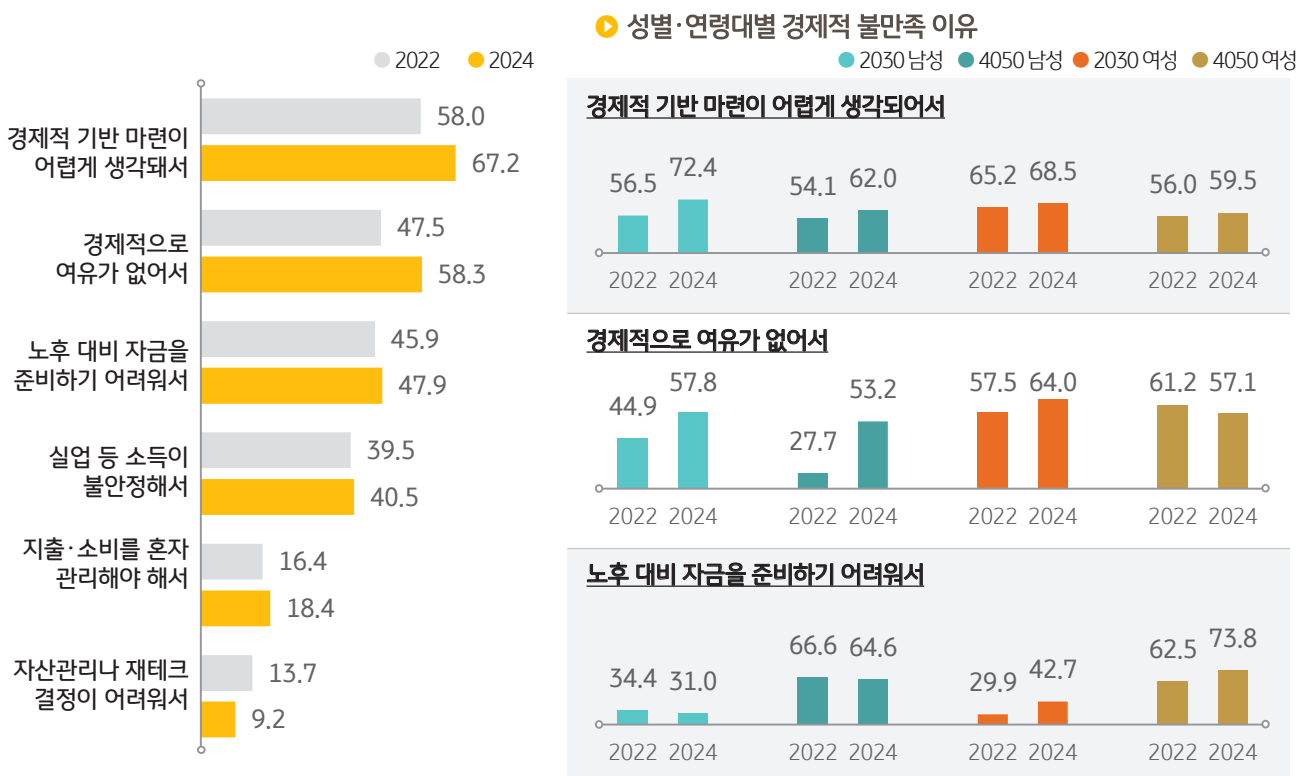
주2) 2030남성 n=628, 4050남성 n=548, 2030여성 n=455, 4050여성 n=369

여가생활, 경제력, 공간·환경, 인간관계 중 가장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경제력’이었다. 경제적 만족도는 48.3%로 2022년(48.0%)과 비슷했으나 그 외 분야의 만족도가 5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낮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 어렵게 생각되어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2022년(58.0%)에 비해서도 응답률이 증가했다. 이는 자산관리의 목표이자 기준인 경제적 기반 마련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자산관리의 목표나 기준 설정의 어려움에 비해 자산관리의 실행인 ‘지출·소비를 혼자 관리해야 해서’(18.4%)나 ‘자산관리나 재테크 결정이 어려워’(9.2%)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 그 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58.3%), ‘노후 대비 자금을 준비하기 어려워’(47.9%), ‘실업 등 소득이 불안정해서’(40.5%)가 경제적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투자 여력의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제적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 상위 세 가지를 성별과 연령대로 살펴본다. ‘경제적 기반 마련이 어렵게 생각되어서’는 20·30대 남성(72.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0대 여성(68.5%), 40·50대 남성(62.0%), 40·50대 여성(59.5%)의 순이었다. 특히 20·30대 남성과 40·50대 남성이 어려움을 크게 느꼈고, 2022년에 비해서도 불만족한 정도가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는 20·30대 여성(64.0%)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30대 남성(57.8%), 40·50대 여성(57.1%), 40·50대 남성(5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남성이 2022년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노후 대비 자금을 준비하기 어려워’는 연령대가 높은 40·50대 남성과 40·50대 여성이 1인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림 Ⅲ-3 |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 경제적 만족도가 '불만족하다'의 경우만, 2022년 n=331, 2024년 n=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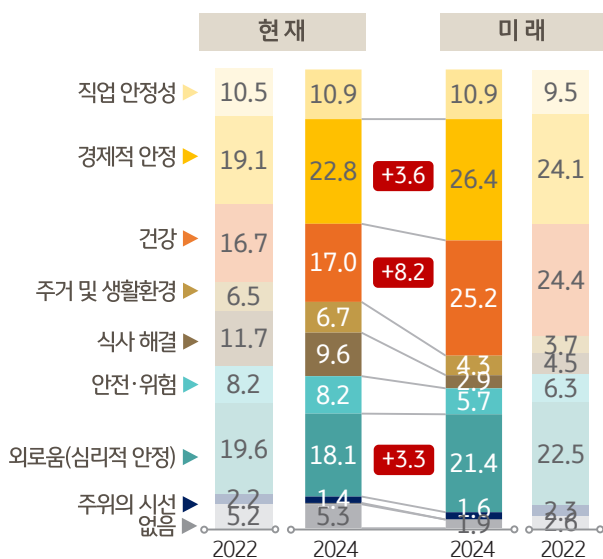
02 | 1인 생활 애로사항

1인 생활에서 느끼는 3대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 ‘외로움’, ‘건강’이며
미래에는 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

1인가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현재와 미래의 걱정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1인가구가 현재 생활에서 느끼는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로움’(18.1%), ‘건강’(17.0%)의 순이었다. 미래의 걱정거리 역시 ‘경제적 안정’(26.4%)이 가장 많았고, ‘건강’(25.2%)과 ‘외로움’(21.4%)이 순위가 뒤바뀌어 뒤를 이었다.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주요 걱정거리는 같았으나, 현재보다 미래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8.2%p 높았고 ‘경제적 안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도 각각 3.6%p, 3.3%p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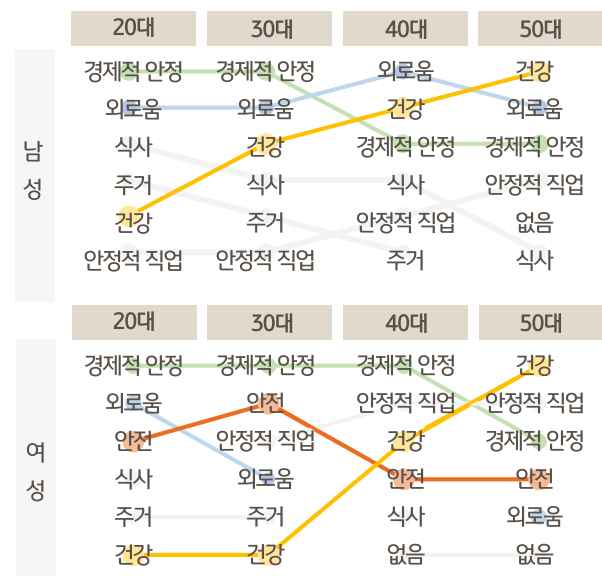
현재 걱정거리에 대해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 연령대에서 ‘경제적 안정’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로움’은 남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상위 순위의 걱정거리로 나타났으며, ‘안전’은 여성의 경우 2~4위를 차지하며 남성(7~8위)에 비해 우려감이 컸다.

그림 III-4 | 현재 및 미래의 1인 생활 걱정거리 (단위: %, %p)



주) 2022 전체 n=2,000, 2024 전체 n=2,000 (기타는 1%미만 소수의견으로 제외)

그림 III-5 | 성별·연령대별 현재의 1인 생활 걱정거리 To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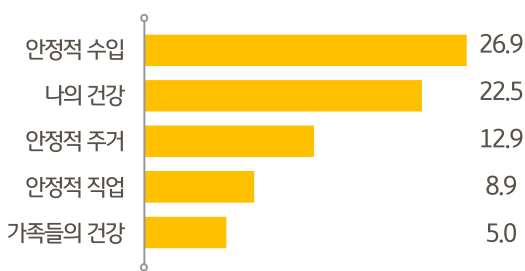


주) 남성 20대 n=233, 30대 n=395, 40대 n=274, 50대 n=274
여성 20대 n=212, 30대 n=243, 40대 n=168, 50대 n=201

1인가구가 현재 생활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고들어 보았다. 1인가구의 절반 정도는 ‘안정적 수입’(26.9%)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나의 건강’(22.5%), ‘안정적 주거’(12.9%), ‘안정적 직업’(8.9%), ‘가족의 건강’(5.0%)의 순이었다. 1인가구는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에 따른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경우 ‘안정적 수입’과 ‘안정적 주거’에 대한 니즈가 높았고, 40대는 ‘안정적 수입’과 ‘나의 건강’에 대해, 50대는 ‘나의 건강’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는 응답과 일치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나의 건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 50대의 경우 개선사항 1순위로 지적되었다.

1인가구가 밝힌 현재의 걱정거리와 1인 생활의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1인 생활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1순위 개선사항이었던 ‘경제적 안정’과 연결지어 ‘돈’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던져 보았다. 경제적 여유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를 요청한 결과, 1인가구의 37.6%가 전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돈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2.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40.9%, 30대의 39.5%, 40대의 34.8% 50대의 34.3%가 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적 안정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돈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또래보다 소득이 적어서’(51.2%), ‘주택 구입·거주 비용이 부담되어서’(51.1%), ‘생활비가 부담되어서’(41.2%)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또래보다 소득이 적어서’(59.2%)와 ‘생활비가 부담되어서’(49.6%)의 응답률이 높았고, 40·50대는 ‘주택 구입·거주 비용이 부담되어서’와 ‘체계적 금전관리를 못 해서’를 지적했다.

그림 Ⅲ-6 | 1인 생활의 개선과제 Top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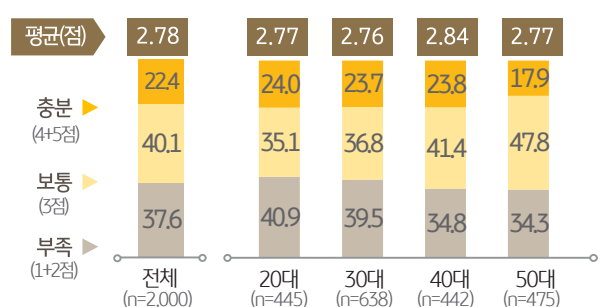
▶ 연령대별 1인 생활의 개선과제 Top 5

	20대	30대	40대	50대
1	안정적 수입	안정적 수입	안정적 수입	나의 건강
2	안정적 주거	안정적 주거	나의 건강	안정적 수입
3	나의 건강	나의 건강	안정적 직업	안정적 주거
4	안정적 직업	안정적 직업	안정적 주거	안정적 직업
5	가족들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불안한 미래	친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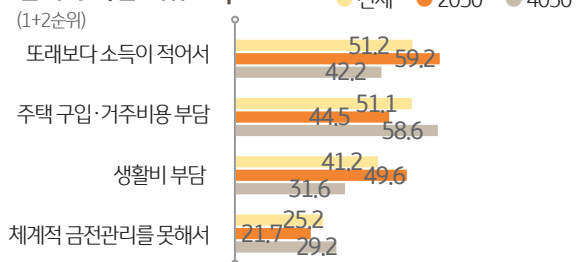
주1) 전체 n=2,000

주2) 20대 n=445, 30대 n=638, 40대 n=442, 50대 n=475

그림 Ⅲ-7 | 1인 생활을 하며 부족한 것(돈) (단위: %)



▶ 돈이 부족한 이유 Top 4



주1) 1점(매우 부족하다) ~ 5점(매우 충분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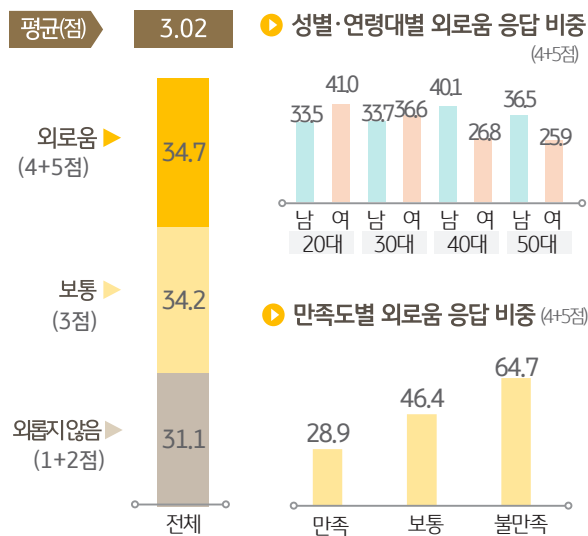
주2) 돈이 부족한 이유 n= 1,552 (돈 부족 1+2+3점 응답자, 응답률 1%미만 의견 제외)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1인가구가 유난히 외로움을 타고, 실외 활동보다 OTT·쇼핑·TV 시청 등 실내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

1인 생활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개선이 필요했던 '건강' 중 '정신적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고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1인가구의 외로움 체감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5점 만점 중 평균 3.02점으로 '현재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률(34.7%)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률(31.1%)보다 약간 높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외로움 체감 정도를 비교해 보면 20대와 3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외로움을 많이 탔고, 특히 20대 여성이 높은 응답률(41.0%)을 보였다. 반면 40대와 5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특히 40대 남성이 40.1%로 다른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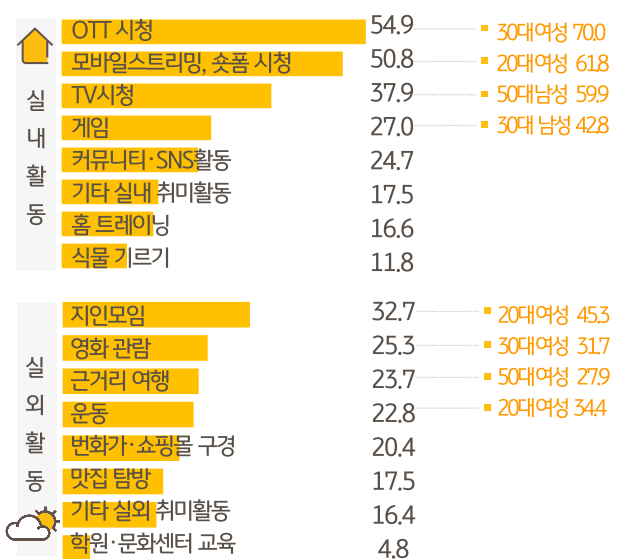
1인가구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는 활동으로는 'OTT 시청'과 '모바일 스트리밍·쇼핑 시청'이 가장 많았고, 특히 20·30대 여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TV 시청'은 50대 남성(59.9%), '게임'은 30대 남성(42.8%)의 응답률이 높았다. 실외 활동으로는 '지인 모임'(32.7%)이나 '영화 관람'(25.3%), '근거리 여행'(23.7%), '운동'(22.8%) 등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모임'의 경우 20·30대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고, '운동'의 경우 20대 여성(34.4%)이 가장 선호했다. 게임 등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8 | 1인가구의 외로움 체감 정도 (단위: %)



주) 전체 n=2,000 (20대 남성 n=233, 여성 n=212, 30대 남성 n=395, 30대 여성 n=243, 40대 남성 n=274, 여성 n=168, 50대 남성 n=274, 50대 여성 n=201)

그림 Ⅲ-9 |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여가활동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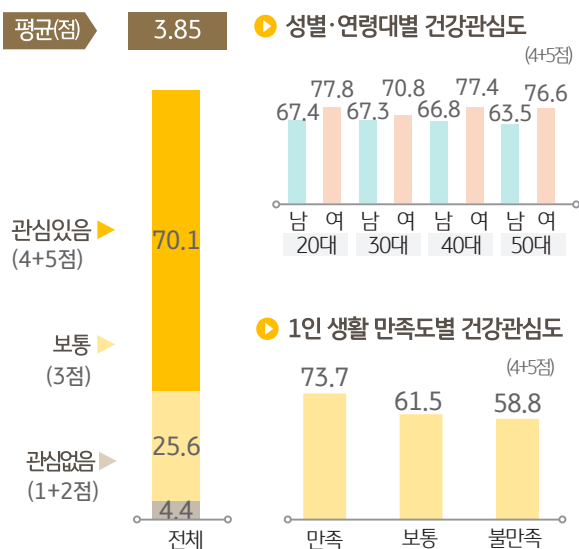
주) n=2,000, 기타 의견으로는 반려동물 기르기, 독서, 낚시, 산책, 등산 등이 있음

10명 중 7명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평소 ‘건강보조식품 섭취’, ‘주기적 운동’,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관리

1인가구가 밝힌 현재와 미래의 3대 걱정거리 중 마지막으로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도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1인가구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85점을 기록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약 3분의 2가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70.1%) 신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가장 높은 관심도(77.8%)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40대 여성(77.4%), 50대 여성(76.6%), 30대 여성(70.8%)의 순이었다. 이는 남성 중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인 20대 남성(67.4%)보다 높은 수치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1인가구의 73.7%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해 1인 생활 만족도와 건강에 대한 관심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가 평소 건강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는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 섭취’(54.4%)와 ‘주기적인 운동’(46.8%)이 가장 많았고, ‘충분한 수면’(42.5%)과 ‘식단 관리·식습관 개선’(35.5%)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건강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려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암’(41.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당뇨’(36.1%), ‘고혈압’(32.0%), ‘치과질환’(31.6%), ‘심혈관질환’(29.7%), ‘치매’(28.2%)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의 경우 상위 6개 질병 중 ‘암’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우려도를 보였다. 이는 앞서 1인 생활의 애로사항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이 상위 걱정거리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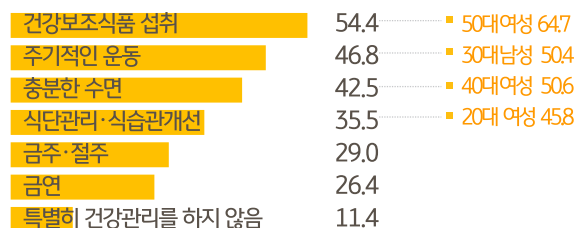
그림 III-10 | 1인가구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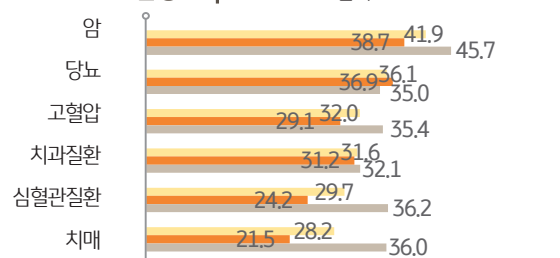
주) 전체 n=2,000 (20대 남성 n=233, 여성 n=212, 30대 남성 n=395, 30대여성 n=243, 40대 남성 n=274, 여성 n=168, 50대 남성 n=274, 50대 여성 n=201)

그림 III-11 | 건강관리 방법·미래 우려하는 질환 (복수응답, 단위: %)

▶ 평소 건강관리 방법



▶ 향후 우려되는 질병 Top 6



주1) n=2,000, 기타 의견으로는 심리상담,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있음

주2) n=2,000, 기타 질병으로는 관절염, 뇌경색, 정신질환, 골절 등이 있음

03 | 1인 생활 만족도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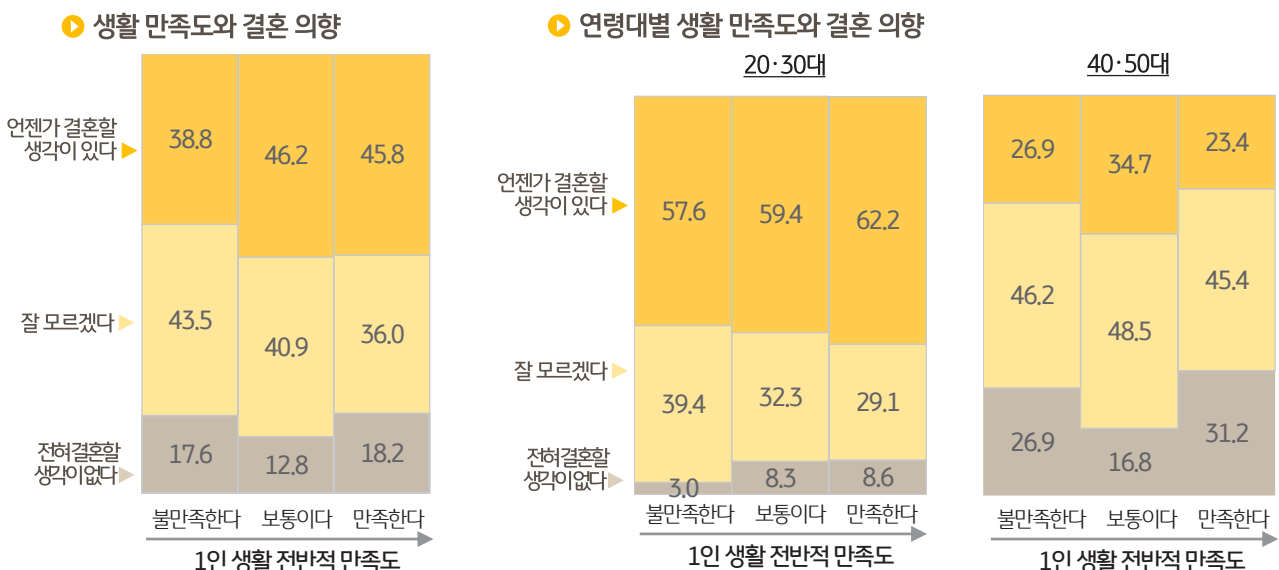
1인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강하며,
특히 20·30대의 경우 1인 생활 만족도와 결혼 의향은 정비례

비혼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인 생활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느끼는 1인가구는 생활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만족한다'는 1인가구에 비해 향후 결혼 의향이 낮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은 1인 생활 만족도에 따라 결혼 의향의 차이를 보였다. 우선 20·30대 청년층은 1인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강했다. 1인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20·30대 1인가구 중 57.6%가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인 생활에 '만족한다'는 1인가구의 62.2%가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40·50대 1인가구는 1인 생활 만족도와 향후 결혼 의향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청년층이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와 결혼 의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I-12 | 1인 생활 만족도와 결혼 의향

(단위: %)



주) 전반적인 1인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4+5점) n=1,424, 보통이다(3점) n=491, 불만족한다(1+2점) n=85

1인 생활에 만족할수록 건강 우려와 우울감은 감소하고 건강관리 관심은 증가 특히 우울감은 생활 만족도에 크게 좌우

1인 생활 만족도가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 우울감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먼저 1인 생활에 만족할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1인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73.7%로 높게 나타나 60% 전후의 관심도를 보인 1인 생활 만족도가 ‘보통이다’(61.5%)나 ‘불만족한다’(58.8%)는 응답자와 격차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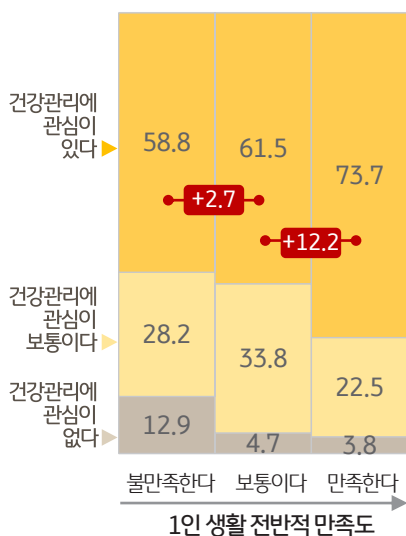
반면 1인 생활에 만족할수록 건강에 대한 우려는 감소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반대로 1인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건강에 대한 우려(70.6%)가 가장 높게 나타나 60% 전후의 우려를 보인 1인 생활 만족도가 ‘보통이다’(60.9%)나 ‘만족한다’(59.9%)는 응답자와 격차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1인 생활 만족도와 우울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1인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중 62.4%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밝힌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자 중 38.7%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밝혀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보다 23.7%p 낮았다. 1인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8.0%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밝혀 ‘보통이다’는 응답자보다 10.7%p,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보다 34.4%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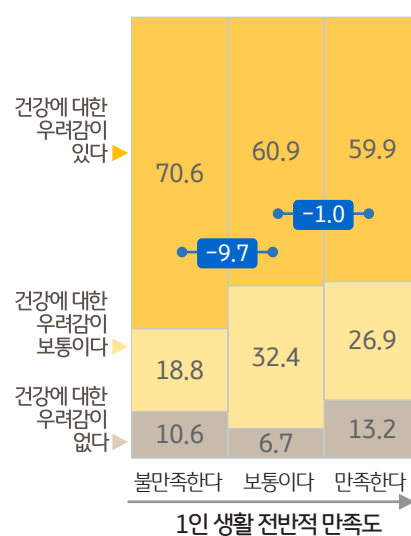
그림 Ⅲ-13 | 1인 생활 만족도와 건강에 대한 인식의 관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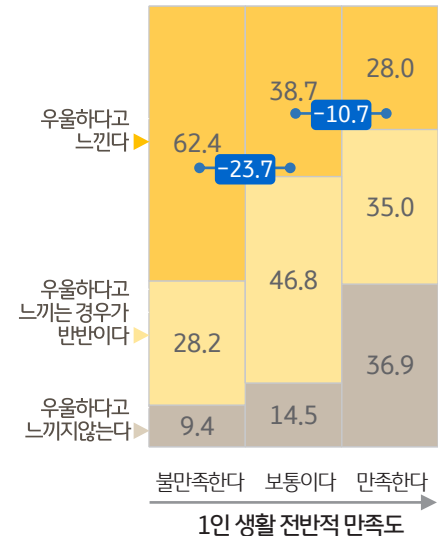
▶ 생활 만족도와 건강 관심



▶ 생활 만족도와 건강 우려



▶ 생활 만족도와 우울감



주) 1인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4+5점) n=1,424, 보통(3점) n=491, 불만족한다(1+2점) n=85

New Findings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1인 생활에 만족

- ✓ 1인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71.2%로 2022년(68.2%)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고, 이 중 앤데믹 이후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여가생활 만족도가 크게 증가(+6.1%p)
- ✓ 성별과 연령대별로는 20·30대 여성의 1인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50대 여성, 20·30대 남성, 40·50대 남성 순
- ✓ 여가생활, 경제력, 공간·환경, 인간관계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경제력. 경제적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 어렵게 생각되어서'가 6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1인 생활의 3대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 '외로움', '건강'

- ✓ 1인가구의 현재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 '외로움'(18.1%), '건강'(17.0%) 순이고, 미래의 걱정거리 역시 '경제적 안정'(26.4%), '건강'(25.2%), '외로움'(21.4%) 순
- ✓ 1인가구의 37.6%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22.4%에 그침
- ✓ 1인가구의 외로움 체감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02점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률보다 약간 높음
-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85점으로,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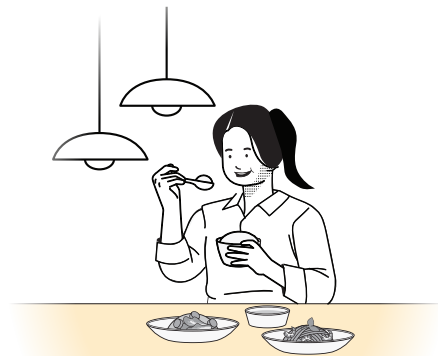


1인 생활에 만족할 수록 건강 우려와 우울감은 감소하고 건강관리 관심은 증가

- ✓ 20·30대 청년층은 1인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 1인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는 경향
- ✓ 1인 생활 만족도와 우울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1인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중 62.4%가 '우울하다'고 응답

IV [이슈1] 1인가구의 독립 준비

- 01 | 1인 생활의 시작 계기
- 02 | 1인가구 독립 시 준비 정도
- 03 | 1인가구의 독립 준비도와 만족도
- 04 | 1인가구의 생활 애로사항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인가구는 자발적, 비자발적 계기나 또는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1인 생활을 시작했다. 독립하게 된 계기와 여건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준비 기간은 다양했다.

1인가구가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여 1인 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열 가구 중 네 가구’가 혼자 살 날이 머지않은 시점에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제고는 개인 생활의 안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이를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1인가구가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 분석에 집중하여 독립 시 경험한 애로사항과 현재 생활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1인가구의 독립 준비 단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독립 준비 초기 단계의 진단에는 정량조사인 설문조사와 함께 정성조사인 표적집단심층면접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안정적인 독립 준비를 위한 필수 점검 사항을 선별하여 KB금융의 1인가구 독립 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01 | 1인 생활의 시작 계기

1인 생활을 시작한 계기는 ‘학교나 직장의 거리가 멀거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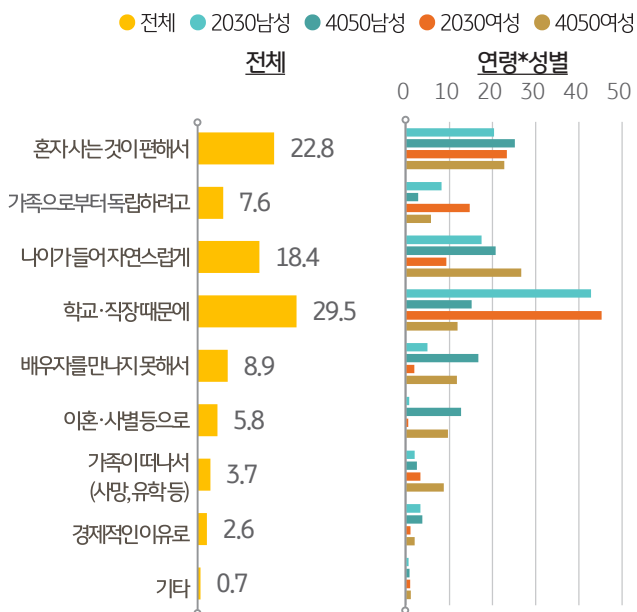
1인가구가 1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주된 계기는 ‘학교나 직장 때문이거나’(29.5%),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22.8%), ‘나이가 들어자연스럽게’(18.4%)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거나 가족의 간섭을 덜 받으려는 자발적인 의사로 1인 생활을 시작한 1인가구도 많지만, 학교나 직장의 거리가 멀거나 같이 살던 가족이 이혼이나 사별로 떠나게 되면서 비자발적 의사로 시작한 1인가구가 더 많았다.

1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30대는 40·50대에 비해 학교나 직장 근처로 옮기거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우가 많았고, 40·50대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이별이나 사별로 1인가구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 ‘동거 가족이 사망이나 유학 등으로 떠나면서’ 독립한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40·50대 여성에게서 특히 높았다. 여성은 가족과의 동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1인가구로 독립한 경우가 많았다.

‘혼자가 편해서’ 1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고, 40·50대 남성이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Ⅳ-1 | 1인 생활 시작 계기

(단위: %)



주) 전체 n=2000, 2030남성 n=628, 4050남성 n=548, 2030여성 n=455, 4050여성 n=369

그림Ⅳ-2 | 1인가구가 말하는 1인 생활의 시작 계기



주) 1인가구 표적집단심층면접 FGD(Focused Group Discussion) 결과

독립을 준비할 때 주로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포털’이나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

1인가구가 독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변의 가용 가능한 채널을 동원해 정보를 얻고 준비했을 것이다. 1인 생활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채널은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포털’이 50.5%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41.5%)에게 문의하면서 준비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 1인 생활의 터전인 거주지를 선택하기 위해 오프라인 채널인 ‘부동산 중개업자’(38.5%)나 온라인 채널인 ‘부동산 전문 앱’(35.6%)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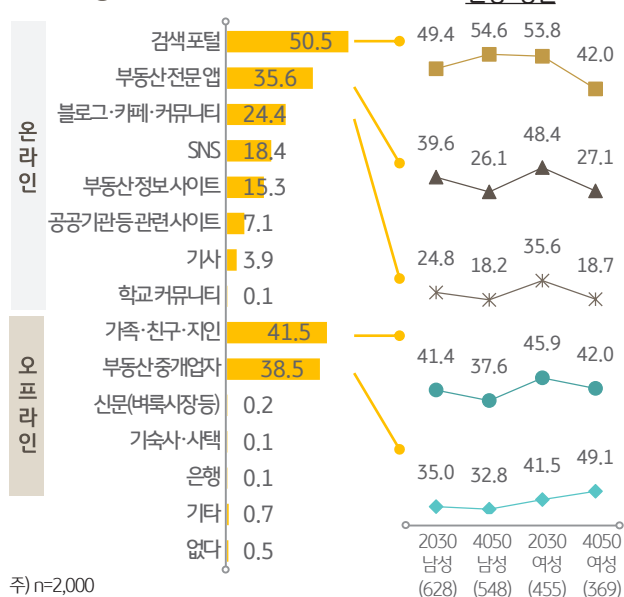
1인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활발히 정보를 찾아본 1인가구는 20·30대 여성으로 ‘검색 포털’(53.8%)이나 ‘부동산 전문 앱’(48.4%),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35.6%), ‘가족이나 친구, 지인’(45.9%) 등을 고르게 이용했다. 반면 1인 생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가장 소극적으로 수집한 연령 집단은 40·50대 여성으로 오프라인 부동산 중개 채널인 ‘부동산 중개업자’(49.1%)를 이용한 경우가 다른 그룹(20·30대 여성, 20·30대 남성, 40·50대 남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고 그 외 정보 채널의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적었다.

독립 계기별로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독립을 결심한 1인가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며 독립 계기에 따라 정보를 얻는 채널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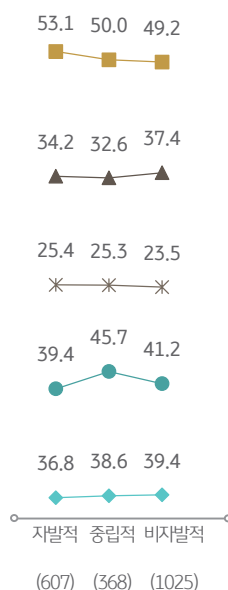
그림 IV-3 | 1인가구 독립 전 준비 정보 소스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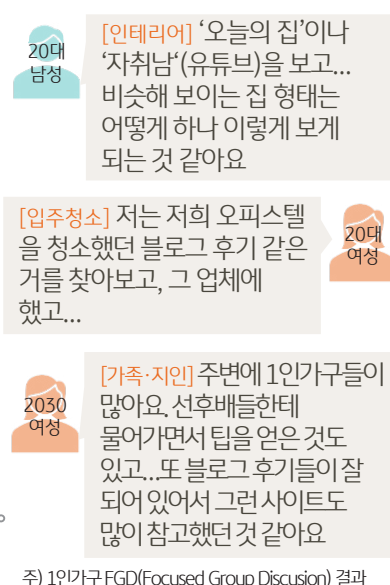
▶ 관련 정보 소스



▶ 독립계기별



▶ 1인가구가 말하는 독립 전 정보 원천



주) n=2,000

02 | 1인가구 독립 시 준비 정도

독립 준비 시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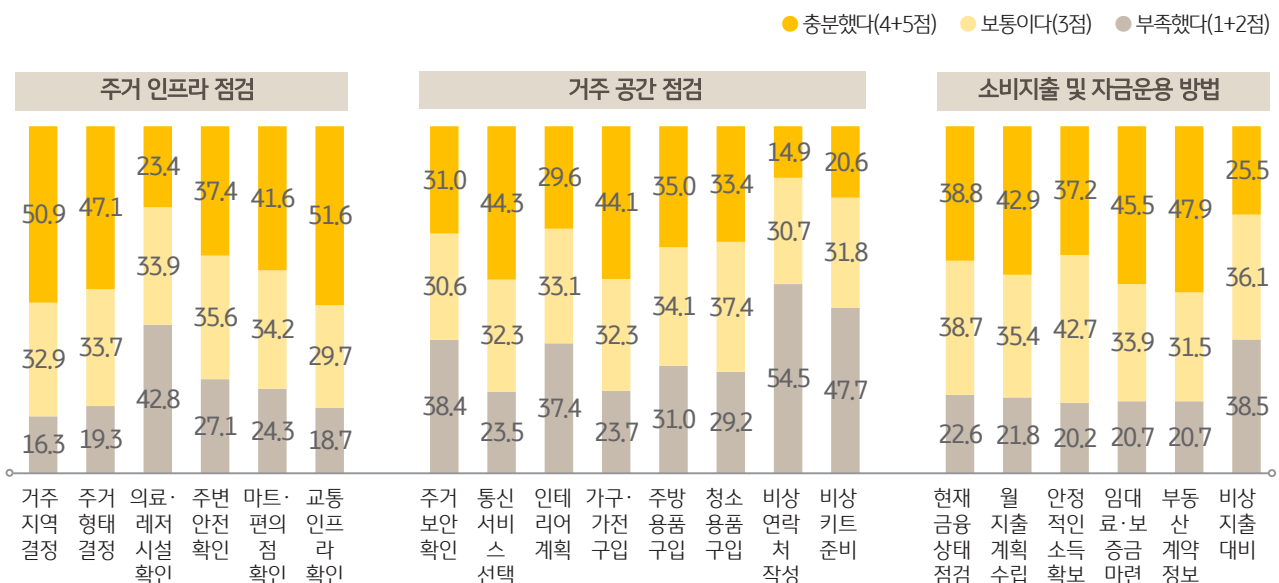
1인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 공간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인가구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1인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계기로 시작된 1인 생활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는지, 독립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이나 블로그,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독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때 자주 거론되는 ‘주거 인프라’나 ‘주거 공간’, ‘금융’의 대분류에서 20개 항목을 선별하여 그 중요도와 관계없이 준비 과정에서 ‘독립 준비 점검 및 준비 정도’를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이 독립 전 준비 정도가 부족했다고 응답했는데 ‘주거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주지 주변 ‘의료 및 레저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인’(42.8%)했는지에 대한 점검 부족을 지적했다. ‘주거 공간’ 측면에서는 혼자 산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처를 작성’(54.5%)과 간단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비상 키트 준비’(47.7%), 거주지에 상주 경비원이나 공동 현관의 도어락 유무 등 ‘주거 보안 확인’(38.4%), 거주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37.4%)등의 순으로 준비 부족을 회상했다. ‘소비지출 및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 지출에 대비’(38.5%)했는지에 대해 가장 취약했다.

그림Ⅳ-4 | 1인가구 독립 시 준비 정도 평가

(단위: %)



주1) 각 항목별 n=2000

주2)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점)~보통이다(3점)~매우 만족한다(5점))로 측정

주거 인프라 측면에서 20·30대는 주변 의료·레저 시설 확인에서, 40·50대는 거주 지역 및 주거 형태 결정에서 점검 부족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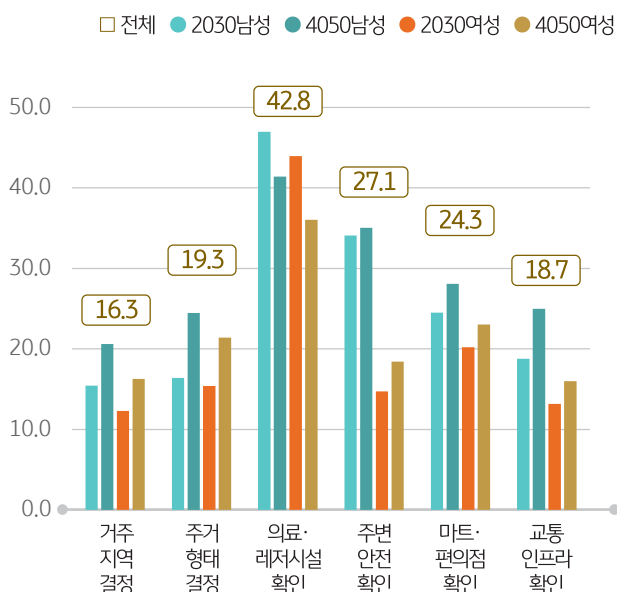
앞서 1인가구는 ‘주거 인프라’ 점검 측면에서 거주지 주변의 의료·레저시설 확인(42.8%), 파출소·소방서 등 안전시설과 주유소 등 불안한 시설 확인(주변 안전 확인, 27.1%), 마트·편의점 등 편의시설 확인(마트·편의점 확인, 24.3%)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거주 지역 및 주거 형태 결정, 교통 인프라 등 우선 점검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항목을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취약한 점검 포인트를 짚어보았다.

1인가구가 가장 준비 정도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주변의 의료·레저시설 확인’에 대해서는 20·30대 남성(47.0%)과 20·30대 여성(44.0%)이 40·50대 남성(41.4%)과 40·50대 여성(36.0%)에 비해 점검이 부족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시설의 경우 고연령대에서 자주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거 보안 확인’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평가는 20·30대 남성(48.4%)과 40·50대 남성(44.3%)이 20·30대 여성(26.2%)과 40·50대 여성(27.6%)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는데, 주거 안전은 여성에게 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거 인프라 관련 6개 항목 외에 주차 공간, 주변 소음, 거주지 전망,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갈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림Ⅳ-5 | 성별·연령대별 주거 인프라 관련 항목의 독립 준비 평가(준비가 ‘부족했다’는 경우만)

(단위: %)



주) 2030남성 n=628, 4050남성 n=548, 2030여성 n=455, 4050여성 n=369

1인가구가 말하는 주거 인프라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

2030 여성

[주차공간] 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 전쟁을 겪기 싫고 기계식 주차에 넣고 싶지 않아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졌어요

4050 여성

[소음] 저는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아파트가 주말에 장이 서는 곳이 있었어요...안 골랐어요

4050 남성

[주변식당] 슬세권이라고 슬리퍼 끌고 편하게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으면 살기 좋죠

2030 여성

[뷰] 그 전에 살던 데가 빌라였는데 사방이..거실 빼고 방은 다 막힌 벽 뷰여서 너무 싫었어요

4050 여성

[안전시설] 주변에 안전시설이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주) 1인가구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Discussion, FGD) 결과

거주 공간 점검 측면에서 주거 보안은 남성이, 통신 서비스는 20·30대 여성이 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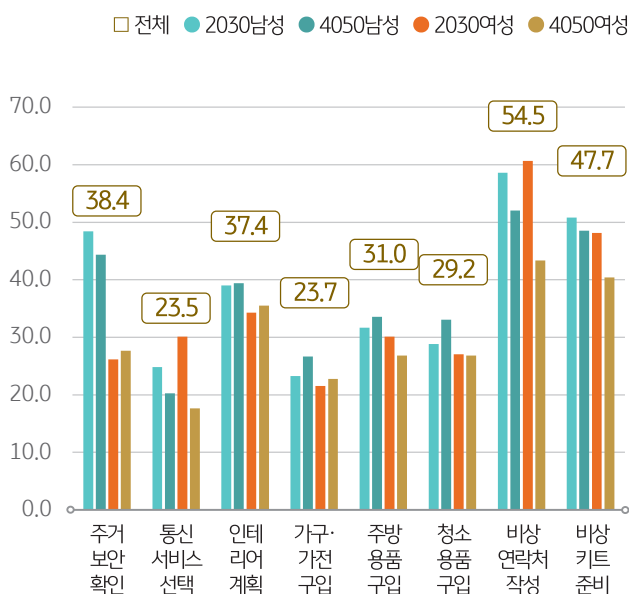
‘거주 공간’ 점검 측면에서는 1인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연락처 작성’(54.5%)과 응급처치용 ‘비상 키트 준비’(47.7%), ‘주거 보안 확인’(38.4%), ‘인테리어 계획’(37.4%)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생활에 필요한 ‘주방 용품 구입’(31.0%)과 ‘청소 용품 구입’(29.2%), ‘가구·가전 구입’(23.7%)과 ‘통신 서비스 선택’(23.5%)에 대해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20%를 넘어 주거 인프라 측면에 비해 거주 공간 측면에서의 점검이 부족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비상 연락처 작성’ 항목은 젊은층인 20·30대 남성(58.6%)과 20·30대 여성(60.7%)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중장년층인 40·50대 남성(52.0%)과 40·50대 여성(43.4%)에 비해 중요도 인식 정도가 낮았던 결과로 보인다. ‘비상 키트 준비’에 대해서는 40·50대 여성(40.4%)이 20·30대 남성(50.8%)이나 40·50대 남성(48.5%), 20·30대 여성(48.1%)에 비해 점검 정도가 높았다. ‘주거 보안 확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점검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전·가구 구입’, ‘주방 용품 구입’, ‘청소 용품 구입’ 등 생활 보조 물품에 대한 준비 점검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준비가 부족했으며, 특히 40·50대 남성이 준비가 부족했는데, 이들은 자발적 사유로 1인가구가 된 경우가 많음에도 생활 측면의 준비에 소홀했다.

표적집단심층면접 조사에서 1인가구는 내부의 층간 소음을 우려해 아래층까지 점검했고, 택배를 자주 받는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공용 현관에 도어락 및 보안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림 IV-6 | 거주 공간에 대한 독립 준비가 ‘미흡’했던 정도 (성별·연령대별)

(단위: %)



주) 2030남성 n=628, 4050남성 n=548, 2030여성 n=455, 4050여성 n=369

▶ 1인가구가 말하는 거주 공간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

[누수] 이사 후 번거위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확인해보니 위층 배관이 터져서 천장에 벌레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층간소음] 전에 살던 집은 층간 소음이 있어서, 이번에 주변을 알아보니 1층에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하고...그래서 지금 집을 선택했어요

[인테리어] (이사해 보니) 주방 싱크대 문의 경첩이 흔들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조치로 제가 드라이버로 조이고 살고 있어요

[가구처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 옵션이 없어서 가전, 가구를 다 샀는데 이제 풀옵션으로 이사하면 중고로 다 팔아야 해요

[안전시설] 택배를 많이 받는데 1층 공용 현관에 보안이 잘 되어있어야 될 것 같아 확인했어요

주) 1인가구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Discussion, FGD) 결과

소비지출 및 자금 운용 측면에서 비상 시 필요한 자금 마련이 가장 취약, 특히 20·30대 여성이 비상 지출 대비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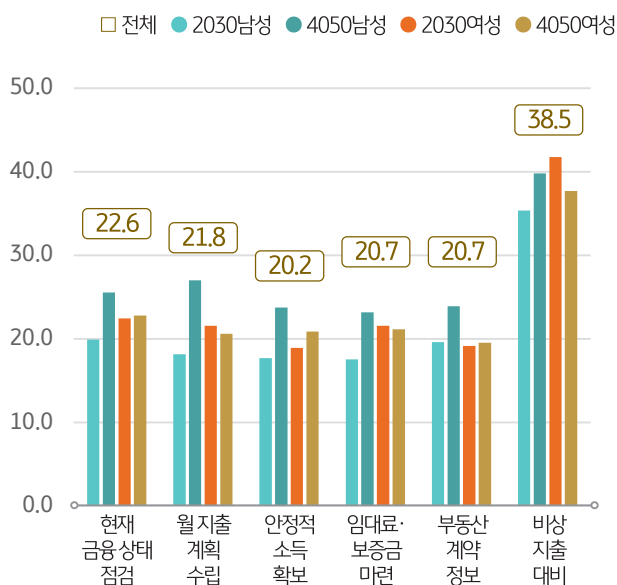
‘소비지출 및 자금 운용 점검’ 측면에서 1인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38.5%)이었다. ‘비상 지출 대비’가 부족했다는 응답자는 20·30대 여성(41.8%)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40·50대 여성(37.7%)이나 20·30대 남성(35.4%)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표적집단심층면접 조사에서 20·30대 여성 참여자는 자동차 범칙금이나 수리비, 병원 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외 ‘현재 금융 상태 점검’과 ‘월 지출 계획 수립’, ‘부동산 계약 정보’, ‘임대료·보증금 마련’, ‘안정적 소득 확보’의 5개 항목에서는 5명 중 1명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40·50대 남성이 20·30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20·30대와 40·50대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인가구는 소비지출이나 자금 운용 부문에서 주거비인 월세 지출을 제대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월세 부담이 커서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거나, 추가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 계획을 수립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가능한 상품을 찾고 대출 심사를 받는 데 최소 두 달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경험했다.

그림Ⅳ-7 | 성*연령별 소비지출 및 자금 운용에 대해 독립 준비 점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경우만)

(단위: %)



주) 2030남성 n=628, 4050남성 n=548, 2030여성 n=455, 4050여성 n=369

1인가구가 말하는 소비지출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

[대출계획] 저는 월세인데 보증금이 높아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80%, 나머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무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대출기간] 대출 받으려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심사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두 달은 예상해야 할 것 같아요

[비상지출] 차를 구매하다 보니, 관련된 범칙금, 갑자기 차 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또 병원이나 치과 치료 등...고정지출 이외에 다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금을 어떻게 할까...

[자금운용] 지금 월세가 비싸서 비용이 부담되고 돈도 안 모여서, 전세로 갈 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출계획] 반전세라 월세가 크고 고정비 감당이 안돼서, 평수를 줄이고 고정비를 줄이려 합니다

주) 1인가구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Discussion, FGD)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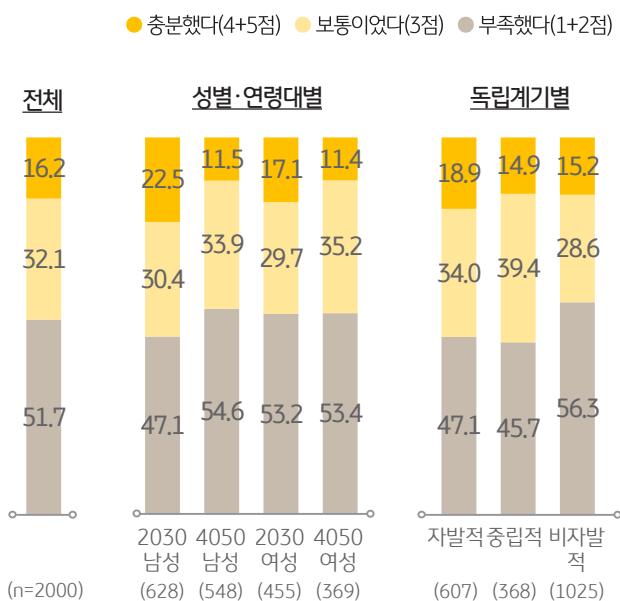
03 | 1인가구의 독립 준비도와 만족도

1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
독립 준비가 충분했다고 진단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향상

주거 인프라, 거주 공간, 소비지출 및 자금 운용의 세 부문의 20개 항목에 대해 1인가구의 독립 전 준비 정도를 살펴 보았다. ‘비상 연락처 작성’(54.5%)이나 ‘비상 키트 준비’(47.7%), ‘주변 의료·레저시설’(42.3%), ‘비상 지출 대비’(38.5%), ‘주거 보안 확인’(38.4%), ‘인테리어 계획’(37.4%), ‘주방 용품 구입’(31.0%)의 7개 항목에 대해 1인가구 중 30% 이상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했고, 그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응답률이 30% 미만이었다. 반면 모든 개별 항목에 대해 1인가구 중 25% 이상이 ‘준비가 충분했다’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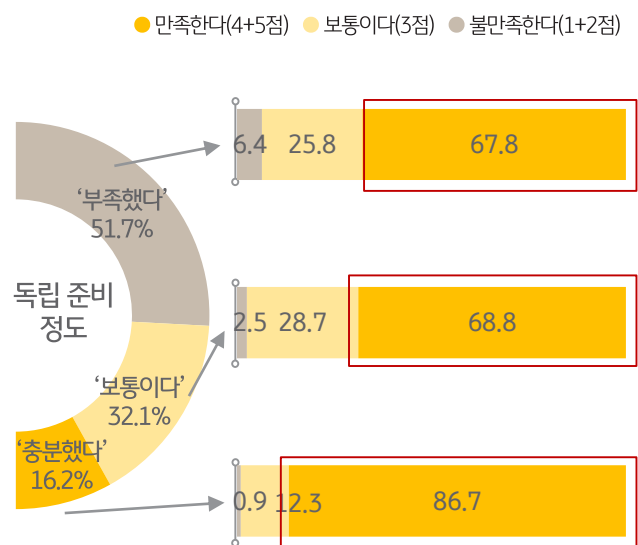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항목을 포함하여 ‘1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종합적인 측면을 질문한 결과, 세부 항목에서 추정하기 힘든 응답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준비가 충분했다’는 응답률은 16.2%에 그친 반면,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응답률은 51.7%로 세 배 가까이 높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로 1인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 항목별 진단 결과보다 전반적인 준비 정도는 더 미흡했고, 세부 항목 이외에 전반적 준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다른 추가 점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Ⅳ-8 | 1인 생활 전 독립 준비 정도 진단(준비 전) (단위: %)



주)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점)~보통이다(3점)~매우 만족한다(5점))로 측정

그림Ⅳ-9 | 1인 생활 전 독립 준비 정도별 생활 만족도



주)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점)~보통이다(3점)~매우 만족한다(5점))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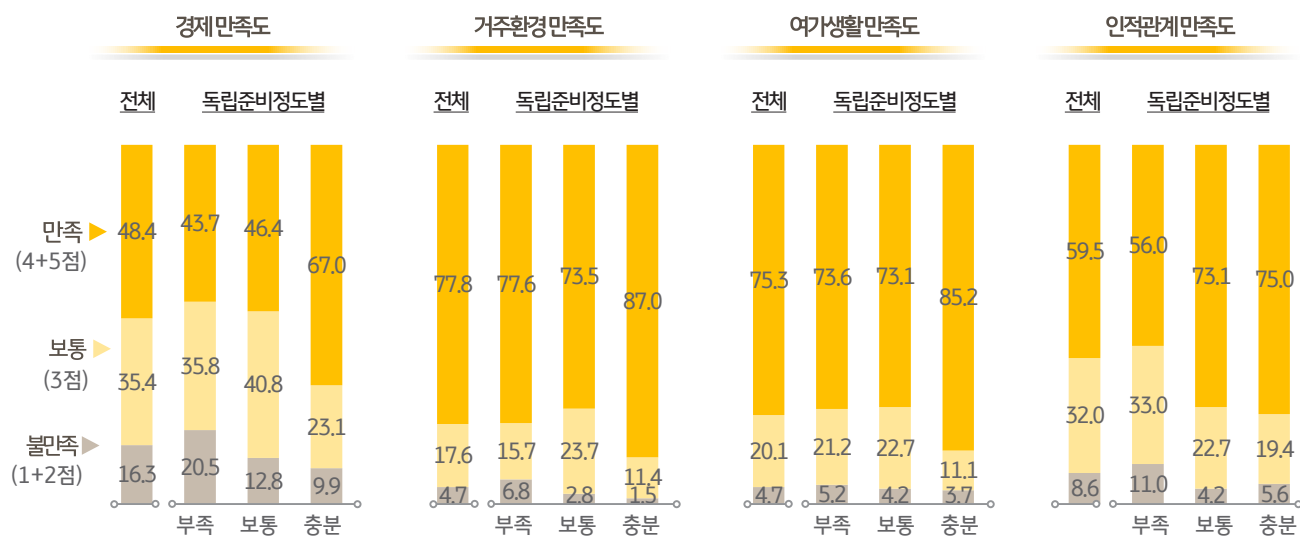
다음으로 독립 준비 정도와 생활 만족도 사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독립 준비 정도에 따른 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1인가구 중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했던 응답자 중 67.8%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준비 정도가 '보통이다'고 밝힌 1인가구 중 68.8%, 준비 정도가 '충분했다'고 밝힌 1인가구 중 86.7%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독립 준비 정도가 충분했다고 진단할수록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1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잘 되었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는 혼자 살면서 가족이 갖는 기능이 약화되어 우울감, 사회적 고립, 경제생활 기반 마련 등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갈수록 증가하는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 거주 환경, 여가생활, 인적관계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문은 '경제'(만족, 48.4%)로 나타났고, 다음은 '인적관계'(59.5%)였다. 독립 준비 정도에 따른 경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43.7%)거나 '보통이었다'(46.4%)로 응답한 1인가구의 만족도가 '충분했다'(67.0%)고 응답한 1인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인적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는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56.0%)고 응답한 1인가구의 만족도가 '보통이었다'(73.1%)거나 '충분했다'(67.0%)고 응답한 1인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들 그룹에 대한 세부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1인가구의 전반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한 1인가구 중 경제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20·30대 여성(38.0%)으로 다른 그룹(20·30대 남성 44.3%, 40·50대 남성 45.8%, 40·50대 여성 46.7%)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낮았다. 40·50대 남성(40.5%)은 인적관계 만족도에서 다른 그룹(20·30대 남성 53.0%, 20·30대 여성 74.4%, 40·50대 여성 46.7%)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Ⅳ-10 | 1인 생활 전 독립 준비 정도별 성별*연령별 생활 만족도(생활 만족도 세부 요소별)

(단위: %)



주1) 전체 n=2000, 독립 준비 정도별 부족 n=1034, 보통 n=642, 충분 n=324

주2) 생활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점)~보통이다(3점)~매우 만족한다(5점))로 측정

04 | 1인가구의 생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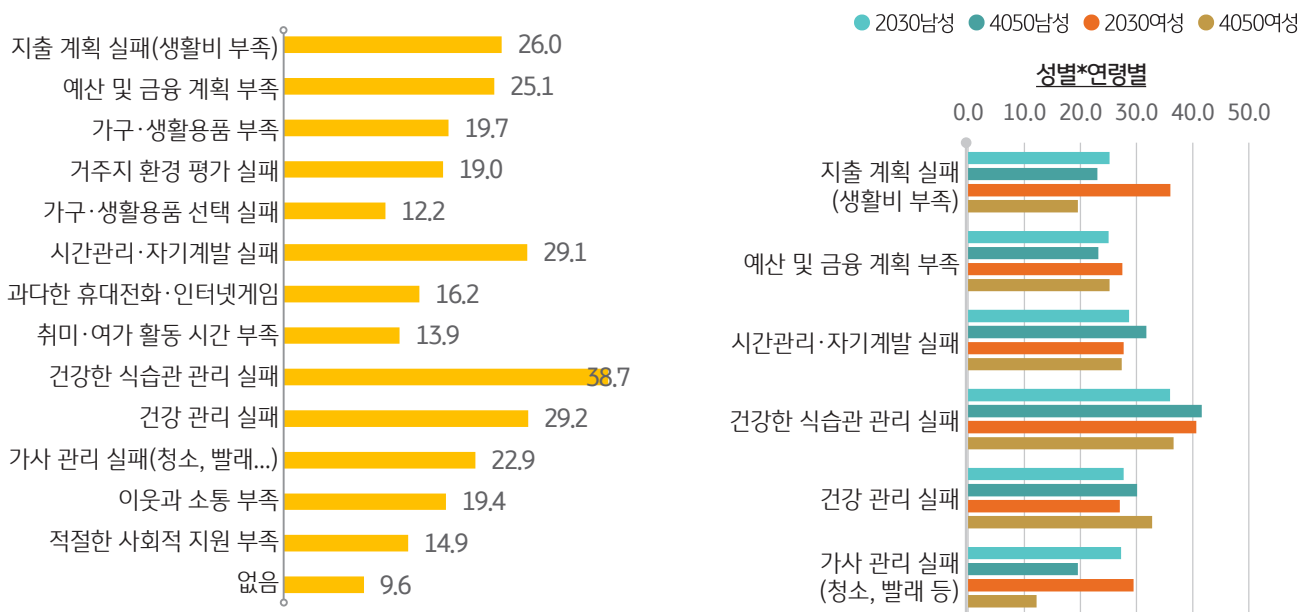
1인 생활 중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와 ‘건강관리 실패’의 고충을 겪고 있음

1인가구는 독립 전에 개별 준비 항목에 대해서는 독립 준비가 충분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반적인 독립 준비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절반 이상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살펴본 20개 항목 이외에 독립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찾아보았다.

1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통해 독립 준비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현재의 생활에서 애로사항을 느끼지 못하는 1인가구는 9.6%에 불과하며 90%정도는 한 가지 이상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1인가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38.7%)였고, 다음으로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강 관리 실패’(29.2%)를 꼽았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균형 잡힌 식사를 못 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시간관리·자기계발 실패’(29.1%), ‘지출 계획 실패’(생활비 부족, 26.0%), ‘예산 및 금융 계획 부족’(25.1%), ‘집안일 실패’(2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림 IV-11 | 1인가구의 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복수응답, 단위: %)



주) 전체 n=2000, 2030남성 n=628, 4050남성 n=548, 2030여성 n=455, 4050여성 n=369

1인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적집단심층면접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혼자 사니까 요리도 재료 준비부터 다 해야 하니까 귀찮아서 밥을 잘 안 해 먹어요.”(40·50대 여성),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귀찮아서 외부 음식을 계속 사 먹다 보니 건강이 나빠지는 게 확 느껴졌어요...”(20·30대 남성)라고 토로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 실패’나 ‘예산 및 금융 계획 부족’이나 ‘가사 관리 실패’에 대해서는 20·30대 여성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표적집단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20·30대 여성의 경우 “처음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하기에 (월 주거비를) 5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관리비만 20만 원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나는 50만 원만 생각했는데...”라고 응답하여 주거비와 월세의 개념을 혼동하여 지출 계획에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1인가구는 혼자서 가정의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관리 상황과 점검 포인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Ⅳ-12 | 1인가구가 말하는 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주) 1인가구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Discussion, FGD) 결과

그림Ⅳ-13 | 1인가구가 독립하면서 준비한 물품 목록 (상위 10개)

	가전	가구	주방용품	생활용품	욕실용품	식재료
1	멀티탭	이불	밥그릇,국그릇	세제	수건	물
2	드라이기	베개,베개커버	수저	옷걸이	삼푸, 바디워시	소금,설탕
3	청소기	매트리스	컵	빨래건조대	치솔, 치약	식용유
4	전자레인지	침대프레임	칼	쓰레기봉투	휴지	즉석밥
5	밥솥	행거	주방가위	세탁세제	청소도구	라면
6	냉장고	식탁,의자	후라이팬	바상약	욕실슬리퍼	김치
7	선풍기	커튼(블라인드)	키친타올,물티슈	손톱깎이	걸레	간장
8	전기장판(요)	발매트	라면용냄비	박스테이프	면봉	김
9	세탁기	전신거울	위생봉투,지퍼백	빗자루(청소포)	청소용고무장갑	계란
10	공기청정기	러그	고무장갑	돌돌이	대야	후추

주) 1인가구 FGD(Focus Group Discussion) 결과

KB금융이 제안하는 1인가구의 거주 공간 준비 체크리스트

01. 집 알아보기 전에

[금융]

- ☐ 현 금융상태 점검
- ☐ 매매·임대 보증금 처리 계획
- ☐ 월 지출 예산 수립(월세, 관리비, 식비 등)
- ☐ 안정적인 소득 확보
- ☐ 보증금 마련 위한 자금 확보
- ☐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비상자금 마련
- ☐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직접 납부 변경
- ☐ 정부지원 대출상품 가능 여부 확인
- ☐ 월세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확인

[정보 수집 채널]

- ☐ 검색포털사이트
- ☐ 부동산 앱
- ☐ 블로그·카페·커뮤니티
- ☐ 가족·친구·지인추천
- ☐ 부동산중개업자
- ☐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 ☐ 주택도시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 ☐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및 앱 (<https://khug.or.kr/jeonse>)

02. 집 구하러 다닐 때

[거주 인프라]

- ☐ 거주지, 주거 유형, 소유 형태 결정
- ☐ 근처 편의시설 위치 확인 (편의점, 마트 등)
- ☐ 교통 인프라, 주차장 확인
- ☐ 주변 소음 확인
- ☐ 집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CCTV, 가로등 등)
- ☐ 거리 분위기가 나와 맞는 지 확인
- ☐ 상주 경비원, 공동 현관 도어락 유무 확인
- ☐ 쓰레기 배출 방법 확인

[주거 공간]

- ☐ 방 배치도·준공연도 확인
- ☐ 빌트인 가구 확인(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 ☐ 수납공간·옷장 확인
- ☐ 창문 개수 확인(채광, 환기)
- ☐ 방음 확인

[금융]

- ☐ 대출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확인
- ☐ 월세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확인
- ☐ 소득·지출 계획 수립
- ☐ 월 관리비(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확인
- ☐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용 충당 계획

03. 집 계약할 때

[주거]

- ☐ 인터넷·TV 서비스 선택
- ☐ 주거 공간 어떻게 꾸밀지 계획
- ☐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계약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 ☐ 악성 임대인(상습채무 불이행자) 확인(안심전세포털)
- ☐ 주택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성 확인
- ☐ 법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건축물대장 열람)

[생활]

- ☐ 식사 준비 계획 수립(조리법 습득 등)
- ☐ 가사일 수행 계획(청소법 습득 등)
- ☐ 비상 연락처 작성
- ☐ 비상 키트(의약품, 식량 등) 확인

[금융]

- ☐ 부동산중개료, 이사 비용 확인
- ☐ 계약금·잔금 입금 방법 확인(온라인뱅킹 이체 한도)

04. 이사 당일에

[전체]

- ☐ 거실·바닥 상처 유무
- ☐ 벽·가구에 가려진 곰팡이 유무
- ☐ 수납 공간 곰팡이 유무
- ☐ 벽의 못 자국 유무
- ☐ 방충망·커튼 레일 파손 여부
- ☐ 콘센트·스위치 작동 여부(모두)
- ☐ 전등 작동 여부(모두)
- ☐ 에어컨·냉난방 장치 작동 여부
- ☐ 이상한 냄새 여부

[부엌]

- ☐ 환풍기·가스레인지 작동 여부
- ☐ 배수구 파손 여부
- ☐ 주방 주변 바닥, 벽, 싱크대 얼룩·흠집 여부

[욕실]

- ☐ 변기·세면대 수압 확인
- ☐ 욕실에 곰팡이·얼룩 유무
- ☐ 타일 파손 여부
- ☐ 세면대·바닥 배수 확인
- ☐ 세면대·변기 파손 여부

[기타]

- ☐ 현관문 고장 여부
- ☐ 인터폰 고장 여부
- ☐ 벌레 퇴치 흔적 여부(바퀴벌레 약 등)

05. 입주 직전 or 직후에

가전	가구	주방용품	욕실용품	생활용품
<input type="checkbox"/> 멀티탭 <input type="checkbox"/> 드라이기 <input type="checkbox"/> 청소기 <input type="checkbox"/> 전자레인지 <input type="checkbox"/> 밥솥 <input type="checkbox"/> 전기장판(요) <input type="checkbox"/>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input type="checkbox"/> 세탁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청정기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스탠드 <input type="checkbox"/> 에어프라이어 <input type="checkbox"/> 온수매트 <input type="checkbox"/> 다리미 <input type="checkbox"/> 건조기	<input type="checkbox"/> 이불 <input type="checkbox"/> 베개, 베개커버 <input type="checkbox"/> 매트리스 <input type="checkbox"/> 침대프레임 <input type="checkbox"/> 행거 <input type="checkbox"/> 식탁, 의자 <input type="checkbox"/> 커튼(블라인드) <input type="checkbox"/> 전신거울 <input type="checkbox"/> 발매트 <input type="checkbox"/> 러그 <input type="checkbox"/> 화장대 <input type="checkbox"/> 책상거울 <input type="checkbox"/> 책상 <input type="checkbox"/> 소파	<input type="checkbox"/> 밥그릇, 국그릇 <input type="checkbox"/> 수저 <input type="checkbox"/> 컵 <input type="checkbox"/> 칼 <input type="checkbox"/> 뒤집개, 국자 <input type="checkbox"/> 주방가위 <input type="checkbox"/> 프라이팬 <input type="checkbox"/> 키친타올 <input type="checkbox"/> 라면용냄비 <input type="checkbox"/> 위생봉투, 지퍼백 <input type="checkbox"/> 고무장갑 <input type="checkbox"/> 밀폐용기 <input type="checkbox"/> 도마 <input type="checkbox"/> 채반 <input type="checkbox"/> 냄비받침 <input type="checkbox"/> 랍, 호일	<input type="checkbox"/> 수건 <input type="checkbox"/> 샴푸, 바디워시 <input type="checkbox"/> 칫솔, 치약 <input type="checkbox"/> 휴지 <input type="checkbox"/> 변기솔, 청소솔 <input type="checkbox"/> 욕실슬리퍼 <input type="checkbox"/> 걸레 <input type="checkbox"/> 빨래바구니 <input type="checkbox"/> 면봉 <input type="checkbox"/> 청소용 고무장갑 <input type="checkbox"/> 대야 <input type="checkbox"/> 하수구 트랩 <input type="checkbox"/> 플런저	<input type="checkbox"/> 세제 <input type="checkbox"/> 옷걸이 <input type="checkbox"/> 빨래건조대 <input type="checkbox"/> 쓰레기봉투 <input type="checkbox"/> 세탁세제 <input type="checkbox"/> 손톱깎이 <input type="checkbox"/> 비상약 <input type="checkbox"/> 박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물티슈 <input type="checkbox"/> 돌돌이 <input type="checkbox"/> 빗자루(청소포) <input type="checkbox"/> 커터칼 <input type="checkbox"/> 살충제 <input type="checkbox"/> 줄자 <input type="checkbox"/> 공구용품(드라이버) <input type="checkbox"/> 우산

New Findings



1인가구는 독립을 준비할 때 검색 포털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

- ✓ 1인가구가 독립한 계기는 ‘학교나 직장이 멀어서’ 등 비자발적 계기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음
- ✓ 독립 준비 관련 정보는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포털’(50.5%)과 ‘가족·친구·지인’(41.5%)을 통해 얻음
- ✓ 20·30대 여성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40·50대 여성은 정보 수집에 소극적



1인가구는 독립 전 ‘거주 공간’ 관련 점검이 부족했다고 응답

- ✓ ‘주거 인프라’ 측면에서는 주변 ‘의료·레저시설 등 편의시설 확인’에 가장 소홀(42.8%)
- ✓ ‘거주 공간’ 측면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처 작성’(54.5%), ‘비상 키트 준비’(47.7%), 공동 현관 도어락 등의 ‘주거 보안 확인’(38.4%), 거주 공간 ‘인테리어 계획’(37.4%)에 소홀
- ✓ ‘소비지출·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 자금 준비’(38.5%)가 취약



1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독립 전 1인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

- ✓ 과거 1인가구를 시작하기 전 전반적인 준비 정도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응답률은 51.7%
- ✓ 40·50대 남성의 54.6%가 독립 준비 정도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 독립 계기별로는 비자발적으로 독립한 경우 응답자의 56.3%가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



독립 전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음

- ✓ 독립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한 1인가구의 67.8%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밝혔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1인가구의 68.8%, ‘충분했다’고 응답한 1인가구의 86.7%가 현재 생활에 만족
- ✓ 생활 만족도 중 ‘경제 만족도’(만족한다, 48.4%)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20·30대 여성(38.0%)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음(2030 남성 44.3%, 4050 남성 45.8%, 4050 여성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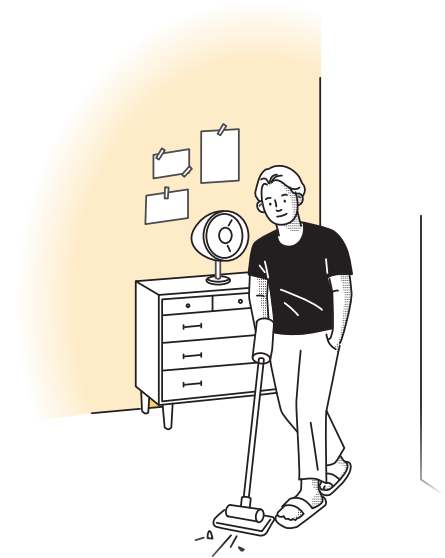


현재 1인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

- ✓ 1인가구의 90% 정도는 생활 만족도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 ✓ 1인가구의 생활 애로사항은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실패’(38.7%)와 ‘건강 관리 실패’(29.2%)가 많음
- ✓ 그 외 ‘시간관리·자기계발 실패’(29.1%), ‘지출 계획 실패’(생활비 부족, 26.0%), ‘예산 및 금융 계획 부족’(25.1%), ‘집안일 실패’(2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

V [이슈2] 2030 디지털 금융생활

- 01 | 디지털 생활
- 02 | 디지털 지출관리
- 03 | 디지털 자산관리
- 04 | 디지털 금융행태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20·30대 1인가구는 40대 이상 1인가구보다 스마트폰 활용도와 의존도가 높고, 동년배의 다인가구에 비해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 스마트폰 이용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20·30대 1인가구가 디지털 관련 금융생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20·30대 1인가구의 디지털 관련 금융생활을 디지털 밀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디지털 밀착도는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따라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스마트폰에 밀착된 1인가구를 ‘스마트밀착형’으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인 1인가구를 ‘스마트친화형’으로 구분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20·30대 1인가구는 스마트밀착형이 38.3%(394명), ‘스마트친화형’이 15.0%(155명)를 차지한다.

스마트밀착형과 스마트친화형의 디지털 관련 금융생활을 파악하고자 모바일앱 이용 현황 및 SNS 활동 참여 정도, 디지털을 활용한 지출관리와 자산관리 현황, 금융사 이용 행태 등을 살펴본다.

01 | 디지털 생활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SNS·메신저·OTT 플랫폼·모바일게임을 주로 이용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디지털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20·30대 1인가구를 일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디지털 생활을 살펴보았다. 하루 평균 2시간 미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친화형’과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밀착형’으로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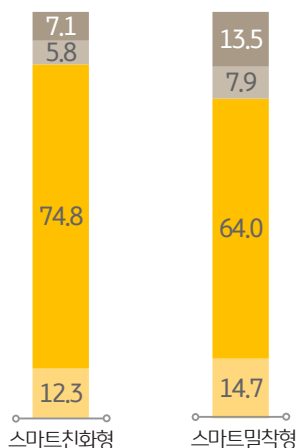
먼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직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았다. 스마트폰을 적게 쓰는 ‘스마트친화형’은 사무근로직 비율(74.8%)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스마트밀착형’보다 10.8%p 높았다. 반면 ‘스마트밀착형’의 경우 ‘판매·서비스직’(7.9%)과 ‘기타’(프리랜서·자영업, 12.5%)를 합쳐 21.4%에 달해 ‘스마트친화형’(12.9%)보다 8.5%p 많았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항목은 스마트밀착형의 경우 ‘SNS’(+19.2%p), ‘메신저’(+13.4%p), ‘OTT플랫폼’(+7.5%p), ‘모바일게임’(+6.8%p)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정보검색·뉴스’(-12.2%p), ‘은행 업무’(-4.7%p)는 더 적게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1 | 직업

(단위: %)

● 기타(프리랜서, 자영업) ● 판매·서비스직 ● 사무근로직 ● 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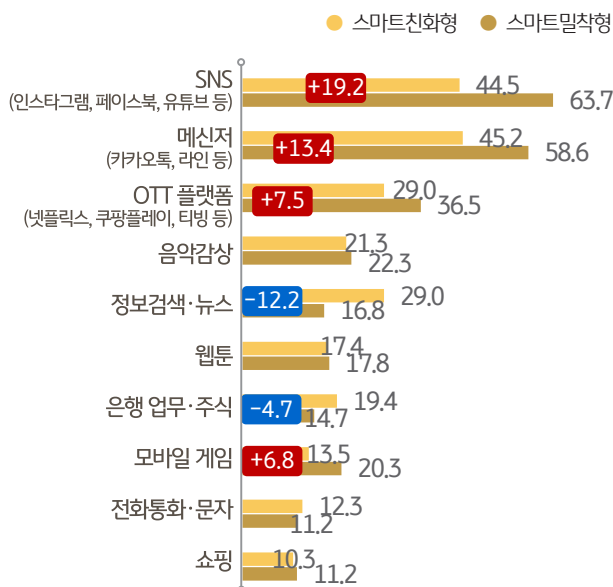


주1) 기타는 프리랜서, 자영업 포함

주2) 스마트친화형 n=155, 스마트밀착형 n=394

그림 V-2 | 스마트폰 주 이용항목

(1+2+3순위, 단위: %, %p)



주) 스마트친화형 n=155, 스마트밀착형 n=394

디지털 네이티브인 20·30대 1인가구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스마트밀착형과 스마트친화형 모두 ‘SNS’로 나타났다. 스마트밀착형과 스마트친화형의 SNS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자 SNS 이용 빈도와 이용하는 이유, 자주 이용하는 앱을 알아보았다.

먼저 SNS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하루 3회 이상(수시로)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20·30대 1인가구는 스마트밀착형의 경우 67%를 차지한 반면 스마트친화형의 경우 33.5%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SNS를 이용하는 이유의 경우 ‘스마트밀착형’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서’(64.6%), ‘시간을 때우려고’(56.4%)가 가장 많았고, ‘스마트친화형’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서’(52.2%)가 1위, ‘정보·뉴스 확인’(39.9%)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앞서 ‘스마트친화형’의 스마트폰 주된 이용 항목에 ‘정보 검색·뉴스’ 응답률이 높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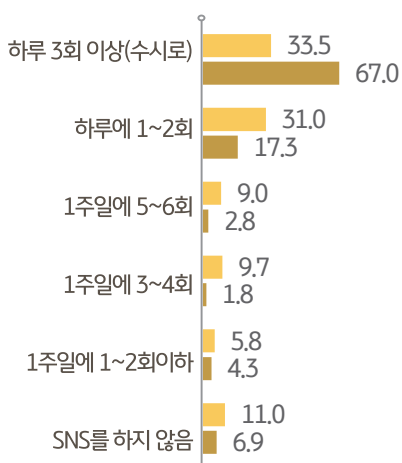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용하고 있는 SNS 앱 5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페·블로그’, ‘페이스북’, ‘엑스(트위터)’ 순으로 ‘스마트친화형’과 ‘스마트밀착형’이 동일했다. 다만, ‘엑스’ 이용률이 ‘스마트친화형’은 5.1%에 불과한 반면 ‘스마트밀착형’은 16.1%로 세 배 이상 더 많았다. 상대적으로 SNS 이용이 적은 ‘스마트친화형’이 상위 4개의 SNS앱 이용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3 | SNS 이용 빈도·이용 이유·이용하는 SNS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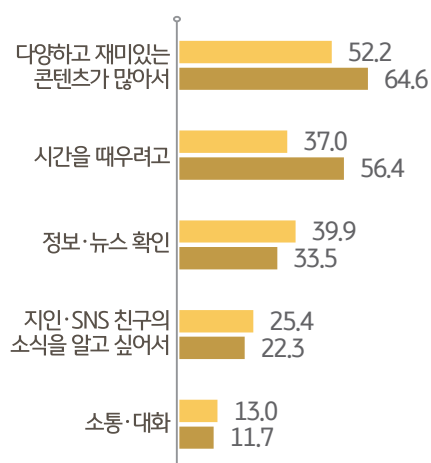
(단위: %)

● 스마트친화형 ● 스마트밀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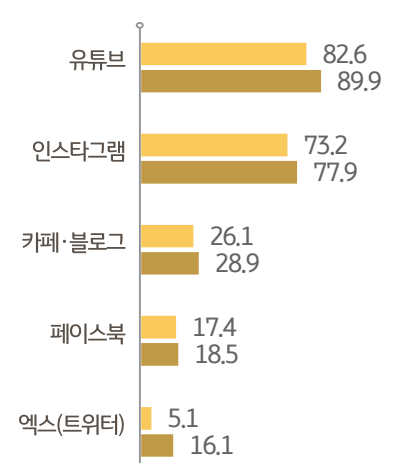
▶ SNS 이용 빈도(스마트폰 보유자)



▶ SNS 이용 이유 Top5(1+2+3순위)



▶ 주로 이용하는 SNS 앱 Top5(복수응답)



주) 스마트폰 보유자 중 스마트친화형 n=155, 스마트밀착형 n=394, SNS 이용자 중 스마트친화형 n=138, 스마트밀착형 n=367

02 | 디지털 지출관리

스마트밀착형은 지출관리를 위해 스마트친화형보다
가계부전용앱, 금융사앱 활용에 적극적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밀착형’과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친화형’이 어떻게 지출관리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지출관리 방법을 질문해 보았다. 별도로 ‘지출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스마트밀착형’이 64.7%, ‘스마트친화형’이 68.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에 비해 소비지출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계부 전용앱’(16.5%)이나 ‘금융사앱’(14.7%), ‘핀테크앱’(14.5%) 등을 주로 사용했다. 반면 ‘스마트친화형’은 ‘스마트밀착형’보다 지출관리에 덜 적극적이었고 ‘수기 가계부(엑셀)’이용률이 16.1%로 ‘스마트밀착형’보다 5.7%p나 더 많았다.

‘스마트밀착형’은 지출관리 방법을 이용하게 된 계기로 오프라인에서 ‘친구·지인·주변사람 추천’을 통해 추천받아 활용한다는 응답률(22.7%)이 가장 높았고 ‘스마트친화형’(13.2%)보다 9.5%p 많았다. 이외 ‘스마트밀착형’은 ‘포털 검색’(19.6%), ‘SNS’(19.6%), ‘블로그·카페·커뮤니티’(12.2%)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지출관리 방법을 알게 되어 이용하게 되었다.

그림 V-4 | 주된 지출관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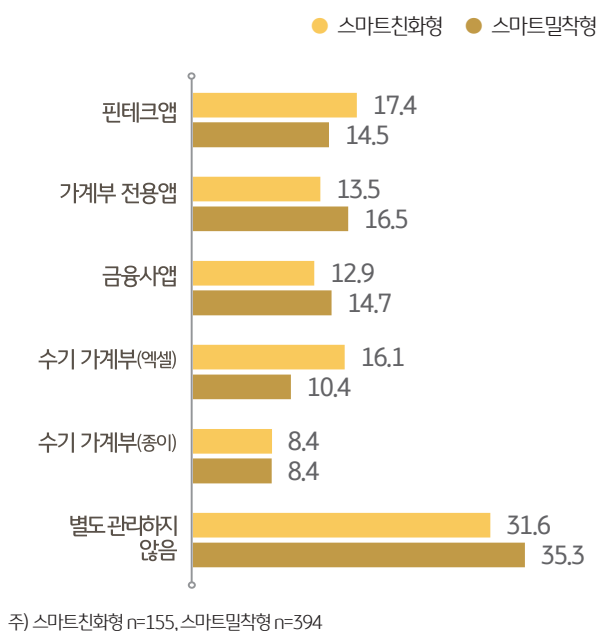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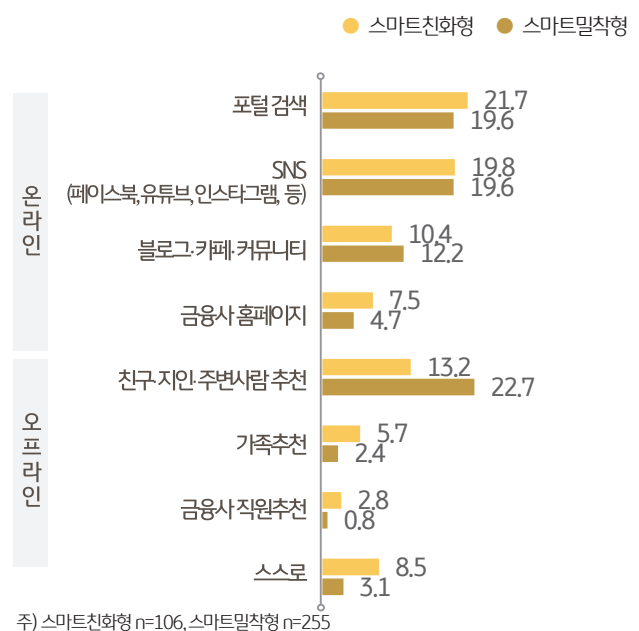


그림 V-5 | 주된 지출관리 방법을 이용한 계기 (복수응답, 단위: %)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소득에서 생활비 지출 비중이 6.1%p 높음

다음으로 항목별 월 지출액을 살펴보았다. ‘스마트밀착형’의 경우 월 소득은 292만 원이고 이 중 43.8%를 생활비로 지출한 반면 ‘스마트친화형’의 월 소득은 308만 원이고 생활비는 이 중 37.7%를 지출해 ‘스마트밀착형’의 생활비 지출 비중이 ‘스마트친화형’보다 6.1%p 더 많았다. 월 지출액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스마트밀착형’의 경우 월 저축액과 여유자금이 월 소득의 43.9%를 차지한 반면 ‘스마트친화형’의 경우 월 저축액과 여유자금이 월 소득의 51.3%로 7.4%p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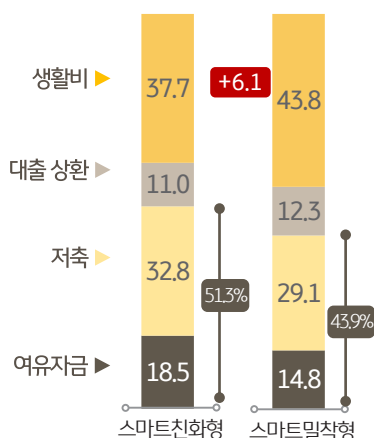
생활비 구성항목별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스마트밀착형’은 생활비 중 ‘월세·관리비’ (24.2%)와 ‘식비’(33.2%) 비중이 전체 생활비의 57.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스마트친화형’은 ‘월세·관리비’(23.0%)와 ‘식비’(32.1%)가 전체 생활비의 55.1%를 차지했다.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생활비 중 ‘월세·관리비’ 비중이 1.2%p 높았다.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항목에서도 ‘스마트밀착형’은 ‘월세·관리비’, ‘식비’, ‘대출 상환’, ‘경조사비’에서 ‘스마트친화형’보다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월세·관리비’로 ‘스마트밀착형’의 45.7%가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여겨 ‘스마트친화형’보다 10.9%p 더 높았다. 다음으로는 ‘식비’였는데 ‘스마트밀착형’(41.4%)이 ‘스마트친화형’(33.5%)보다 7.9%p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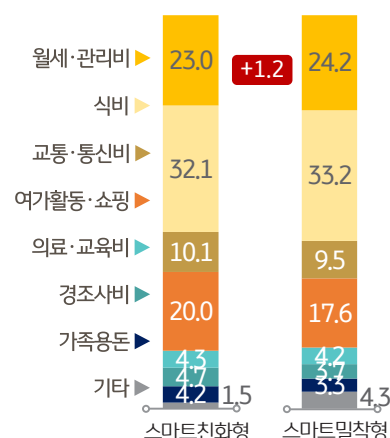
그림 V-6 | 항목별 월 지출액 및 지출 부담 항목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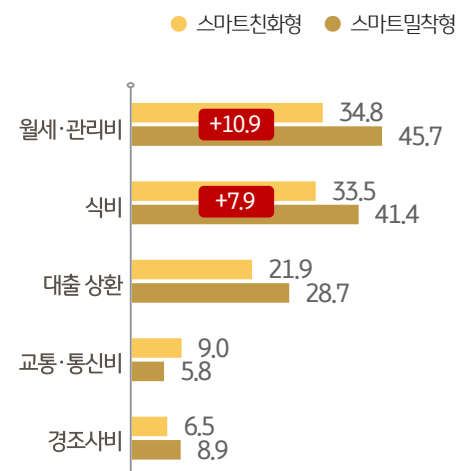
▶ 항목별 월 지출액



▶ 생활비 구성항목별 지출액



▶ 지출 부담 항목 Top5 (단위: %)



주) 스마트친화형 n=155, 스마트밀착형 n=394

03 | 디지털 자산관리

스마트밀착형은 자산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많음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스마트밀착형’은 ‘그렇다’(22.4%)고 응답한 비율보다 ‘그렇지 않다’(38.5%)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자산관리 자신감이 낮았다. 반면 ‘스마트친화형’은 ‘그렇다’(31.6%)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29.4%)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예·적금’ 비중이 5.6%p 더 높고 주식·ETF·선물·옵션 등 ‘투자자산’ 비중은 7.7%p 더 낮았다. 다음으로 재테크 정보 탐색 채널 Top6를 살펴보면 ‘스마트밀착형’은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이용률이 ‘스마트친화형’보다 각각 11.5%p, 6.1%p 높았다. 반면 ‘가족·지인의 추천’, ‘오픈채팅방·재테크 소모임’의 경우 ‘스마트밀착형’의 응답률이 ‘스마트친화형’보다 각각 2.3%p, 6.6%p 더 낮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재테크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도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인터넷 검색,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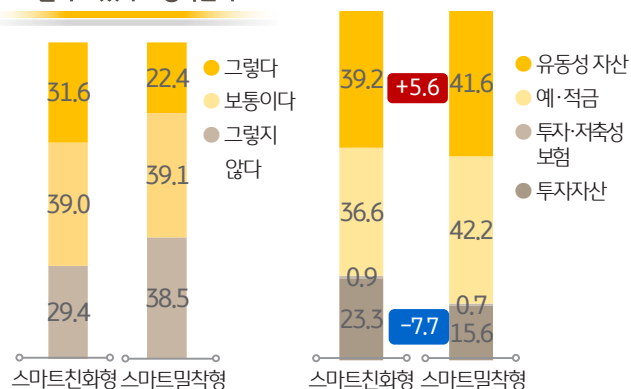
그림 V-7 | 자산관리 인식

(단위: %,p)

▶ 자산관리 인식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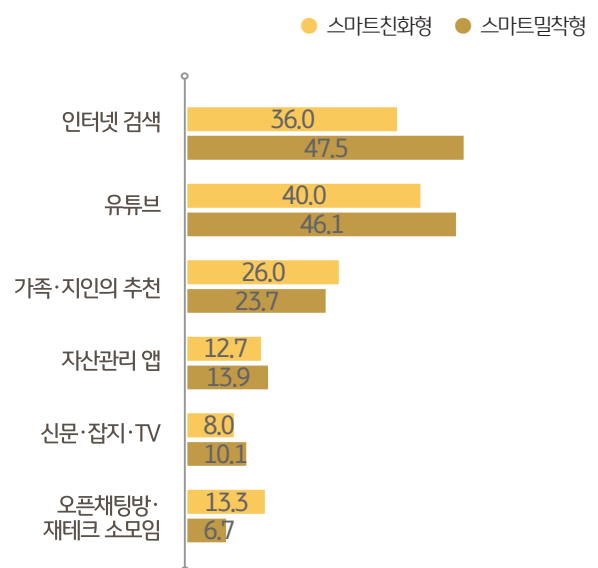


주1)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 스마트친화형 n=155, 스마트밀착형 n=394

주2) 유동성자산은 현금, 수시입출금, CMA·MMF, 투자자산은 주식·ETF·선물·옵션, 펀드, 일임형·신탁 파생형, 채권, 가상자산 등을 포함

그림 V-8 | 재테크 정보탐색 채널 Top6

(1+2순위, 단위: %)



주) 투자상품 보유자 및 재테크 관심자, 스마트친화형 n=150, 스마트밀착형 n=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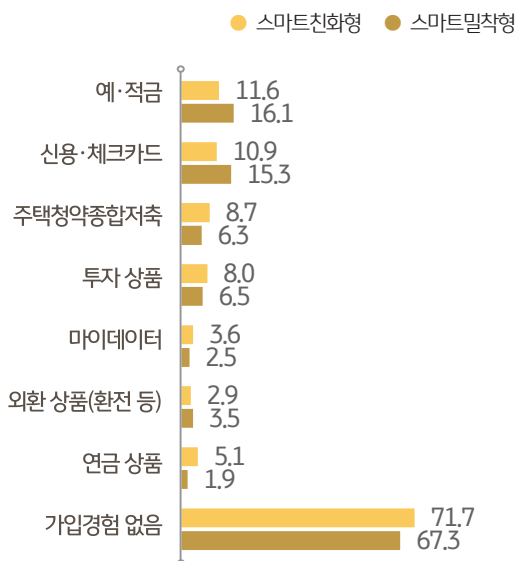
스마트밀착형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만족도 및 추천 의향이 스마트친화형보다 더 높음

SNS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금융상품 홍보 게시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금융사에서 특정 상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혜택이 좋은 금융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SNS를 통해 알게되어 가입하거나 이용한 금융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밀착형’과 ‘스마트친화형’에게 질문했다.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예·적금(+4.5%p)’과 ‘신용/체크카드(+4.4%p)’를 더 많이 가입한 경향을 보였다. ‘가입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은 ‘스마트밀착형’(67.3%)이 ‘스마트친화형’(71.7%)보다 적어 전반적으로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SNS를 활용한 금융상품 가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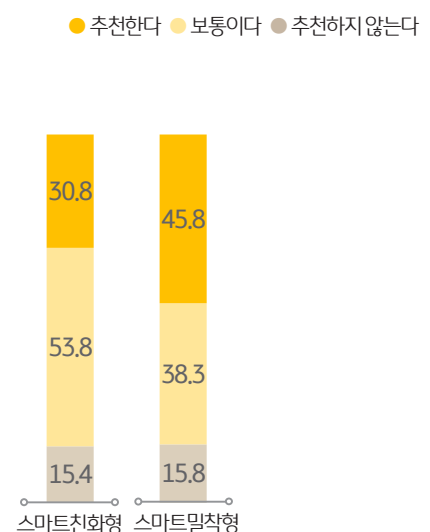
향후 SNS를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가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스마트밀착형’의 45.8%가 ‘추천한다’고 응답해 SNS를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정보 탐색 및 가입 과정에 만족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스마트친화형’은 SNS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 가입을 ‘추천한다’는 응답률이 30.8%로 스마트밀착형보다 15%p 적었다.

그림 V-9 | SNS를 통해 알게되어 가입한 금융상품·서비스 (단위: %)



주) 스마트 친화형 n=138, 스마트밀착형 n=367

그림 V-10 | SNS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추천의향 (단위: %)



주) SNS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가입 경험자, 스마트친화형 n=39, 스마트밀착형 n=120

04 | 디지털 금융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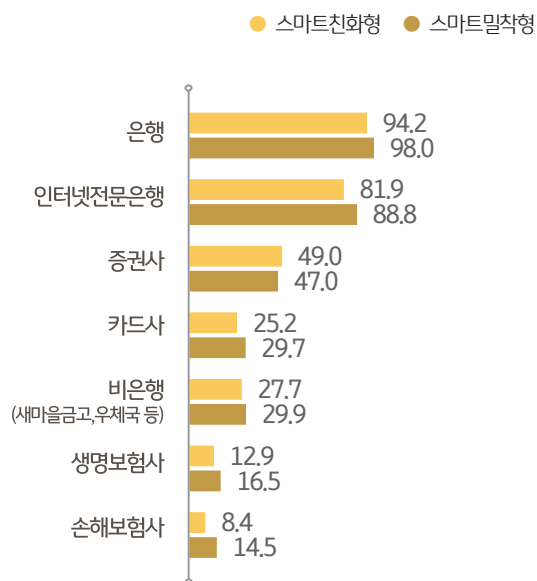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높은 금융권 이용률을 보임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라 금융사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현재 이용 중인 금융업권을 질문해 보았다. ‘스마트밀착형’과 ‘스마트친화형’ 모두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률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업권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금융권 이용률을 보였다.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과 비교해 ‘증권사’(-2.0%p)를 제외한 ‘은행’(+3.8%p), ‘인터넷전문은행’(+6.9%p), ‘카드사’(+4.5%p), ‘손해보험사’(+6.1%p)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 앱’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응답률이 높은 스마트밀착형의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이 쉬워서’가 48.4%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혜택이 좋아서’(40.3%), ‘미션·이벤트 참여를 위해서’(29.8%),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편해서’(22.6%)가 뒤를 이었다. ‘스마트친화형’의 경우에도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이 쉬워서’(40.5%)가 1위를 차지했고 ‘수수료 혜택이 좋아서’(37.8%),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더 편해서’(32.4%), ‘미션·이벤트 참여를 위해서’(29.7%) 순이었다.

그림 V-11 | 현재 이용중인 금융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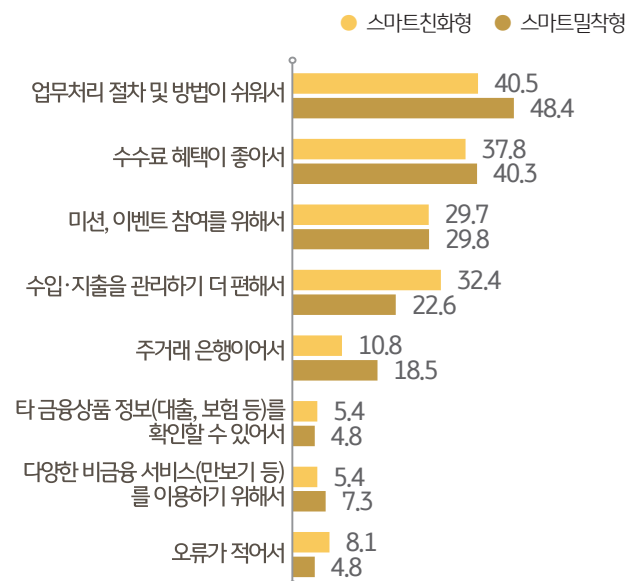
(복수응답, 단위: %)



주) 스마트친화형 n=155, 스마트밀착형 n=394

그림 V-12 |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1+2순위, 단위: %)



주)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중은행 모바일뱅킹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 중 스마트친화형 n=37, 스마트밀착형 n=124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인터넷 전문은행,페이앱을 더 자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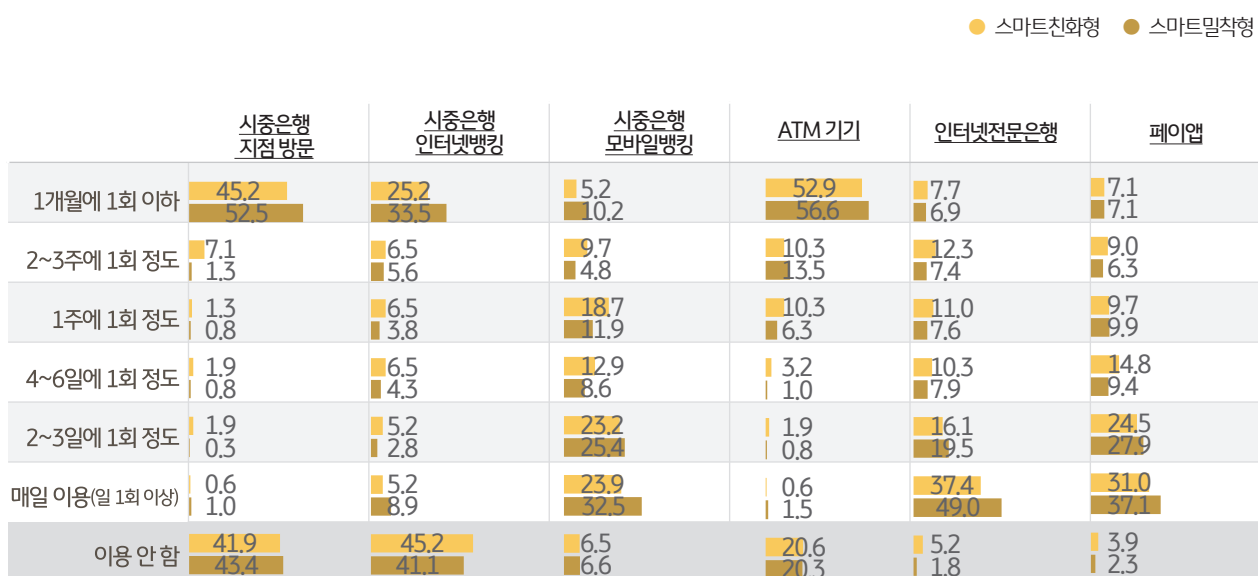
금융서비스 채널별 이용 빈도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스마트밀착형’이 모바일뱅킹, 인터넷전문은행,페이앱을 ‘스마트친화형’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매일 이용한다(일 1회 이상)’고 응답한 채널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장 많았는데, ‘스마트밀착형’의 절반(49.0%)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해 ‘스마트친화형’의 이용 응답률(37.4%)과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스마트친화형’ 5.2%, ‘스마트밀착형’ 1.8%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페이앱’을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스마트밀착형’(37.1%), ‘스마트친화형’(31.0%)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3일에 1회 이용한다는 응답률도 ‘스마트밀착형’이 27.9%, ‘스마트친화형’이 24.5%를 차지했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스마트밀착형’(2.3%), ‘스마트친화형’(3.9%)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시중은행 모바일뱅킹’을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스마트밀착형’이 32.5%, ‘스마트친화형’이 23.9%로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매일 접속한다는 비율이 낮았다.

‘시중은행 인터넷뱅킹’과 ‘시중은행 지점 방문’, ‘ATM 기기’의 이용률은 저조했다. 특히 ‘시중은행 지점 방문’은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더 적었고, 반면 ‘시중은행 인터넷뱅킹’은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이용 빈도가 많았다.

그림 V-13 | 금융서비스 채널별 이용 빈도

(단위: %)



주) 각 항목별 스마트친화형 n=155, 스마트밀착형 n=394

New Findings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SNS, 메신저, OTT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

- ✓ 사무근로직 비율은 ‘스마트친화형’이 74.8%로 ‘스마트밀착형’(64.0%)보다 높음
- ✓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SNS’(+19.2%p), ‘메신저’(+13.4%p), ‘OTT플랫폼’(7.5%p), ‘모바일게임’(+6.8%p)을 더 많이 이용
- ✓ ‘스마트밀착형’의 67.0%는 하루 3회 이상 수시로 SNS를 이용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소득에서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음

- ✓ ‘스마트친화형’과 ‘스마트밀착형’ 모두 앱을 통해 지출관리를 하고 있으며 ‘엑셀 가계부’는 ‘스마트친화형’이 5.7%p 더 많이 이용
- ✓ ‘스마트밀착형’은 월 소득(292만원)이 ‘스마트친화형’(308만원)보다 적고, 월 소득 중 생활비 지출 비중도 ‘스마트친화형’보다 6.1%p 더 많음
-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예·적금 비중은 스마트밀착형(42.2%)이 스마트친화형(36.6%)보다 5.6%p 높음



스마트밀착형은 자산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음

- ✓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자산관리를 더 못하고 있다고 생각
- ✓ 재테크 정보 탐색 채널은 ‘스마트밀착형’의 경우 인터넷 검색, 유튜브, 자산관리 앱을 선호하고 ‘스마트친화형’은 가족·지인 추천 비중이 높음
- ✓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험은 ‘스마트밀착형’이 ‘스마트친화형’보다 더 많고 가입 만족도도 더 높음



스마트밀착형은 스마트친화형보다 높은 금융권 이용률을 보임

- ✓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은 스마트밀착형(88.8%)이 스마트친화형(81.9%)보다 높음
- ✓ 시중은행 모바일뱅킹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로 ‘업무 절차 및 방법이 쉽고, 수수료 혜택이 좋아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
- ✓ ‘스마트밀착형’의 거의 절반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시중은행 앱을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32.5%를 기록

VI [이슈3] 韓-日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

- 01 | 주변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
- 02 | 결혼관
- 03 | 향후 결혼 의향
- 04 | 예상되는 결혼에 따른 애로사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에 이른다. 6년 전인 2018년 585만 가구(29.3%)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 전체 가구의 4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다 먼저 1인가구 증가세에 접어든 일본은 아시아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1인가구가 폭증하기 시작해 1988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38%를 차지했고 2050년에는 44.3%에 달할 전망이다. 1인가구 비중 증가 추세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10년 정도 후행하는 양상이다.

현재 청년 1인가구는 결혼 전 거치는 라이프스테이지의 한 단계로 그칠 수도, 비혼 의지로 1인 생활을 지속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국 청년 1인가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우자 선택 요건, 결혼 의향 등에 대해 일본 청년 1인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청년 1인가구는 25~34세, 일본은 18~34세를 대상으로 했다.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8~34세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가장 최근 결과(2021년)를 활용했다.

01 | 주변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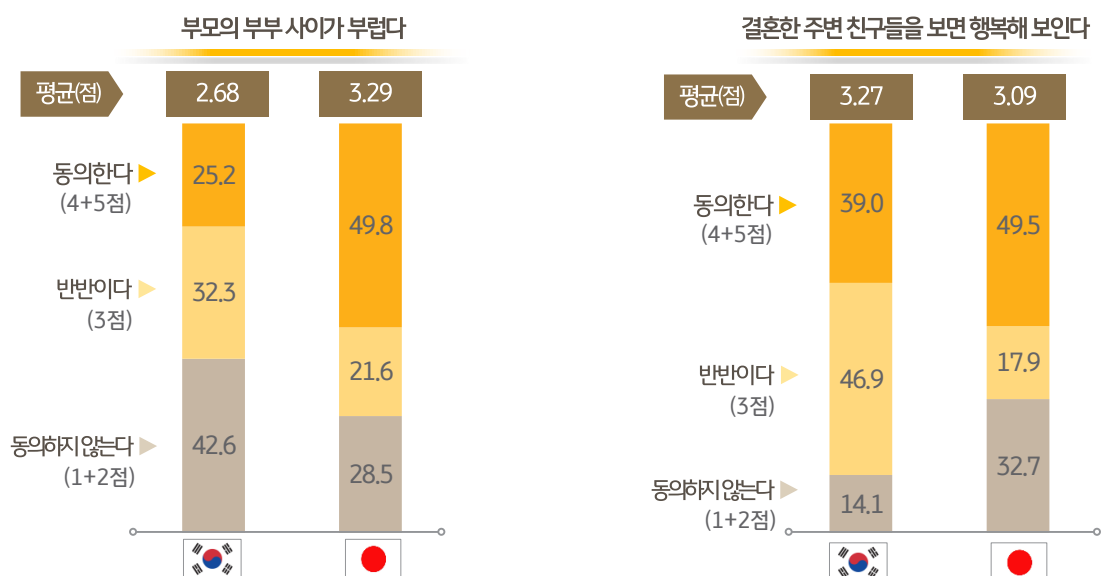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을 파악하고자 주변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각부터 살펴보았다. 주변에서 접하는 정보가 목표나 인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변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각이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해 청년 1인가구는 어떻게 보고있는지를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에 대한 동의 정도로 알아보았다. 한국 청년 1인가구의 25.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일본 청년 1인가구는 49.8%가 동의하며 절반 정도의 동의율을 차지했다.

한편 ‘결혼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행복해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 청년 1인가구는 ‘동의한다’의 응답률이 39.0%로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동의율(49.5%)에 비해 낮았다.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주변의 결혼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고, 이 중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그림 VI-1 | 주변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시각 (한국 vs. 일본)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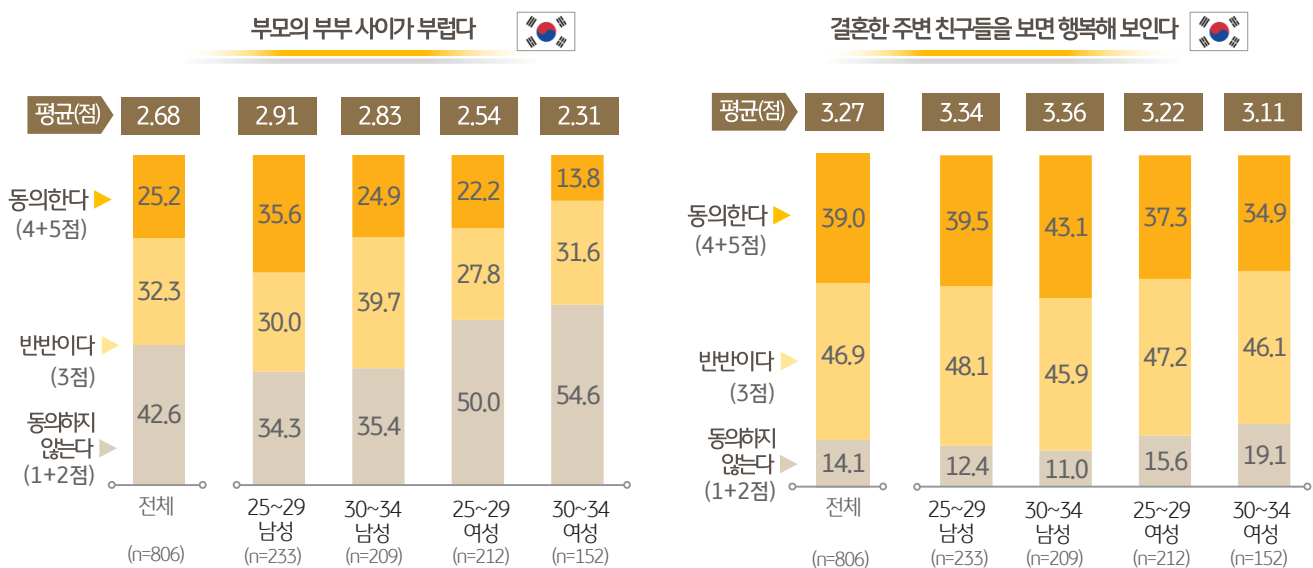
주1) 한국 25~34세 1인가구 전체 n=806, 일본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 n=4,033, '결혼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행복해보인다' n=4,039 (무응답 제외)
주2) 동의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2점), 반반이다(3점), 약간 동의한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성별과 연령별로는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는 의견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결혼생활이 부럽다고 생각했다. ‘25~29세 남성’의 35.6%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34세 남성’(24.9%), ‘25~29세 여성’(22.2%), ‘30~34세 여성’(13.8%)의 순이었다.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의 경우 35% 정도인 것에 비해 여성은 과반이 넘었다. 이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부모의 결혼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행복해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연령별 차이보다는 성별 차이가 강해 여성보다 남성이 지인의 결혼생활이 부럽다는 생각이 컸다. 한국의 청년 1인가구 중 ‘30~34세 남성’의 43.1%가 친구의 결혼 생활이 부럽다는 시각을 가졌고, 다음은 ‘25~29세 남성’으로 39.5%의 동의율을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는 ‘25세~29세’(37.3%)가 ‘30~34세’(34.9%)보다 친구들의 결혼생활이 부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남성의 동의율은 40%대인 데 비해 여성의 동의율은 35%대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34.0세, 여성은 31.5세임을 고려하면 결혼적령기(30~34세)의 남성이 여성보다 또래 집단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2 | 한국 청년 1인가구의 연령별 주변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시각

(단위: 점, %)



주) 동의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2점), 반반이다(3점), 약간 동의한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02 | 결혼관

한국 청년 1인가구 10명 중 4명은
‘평생 혼자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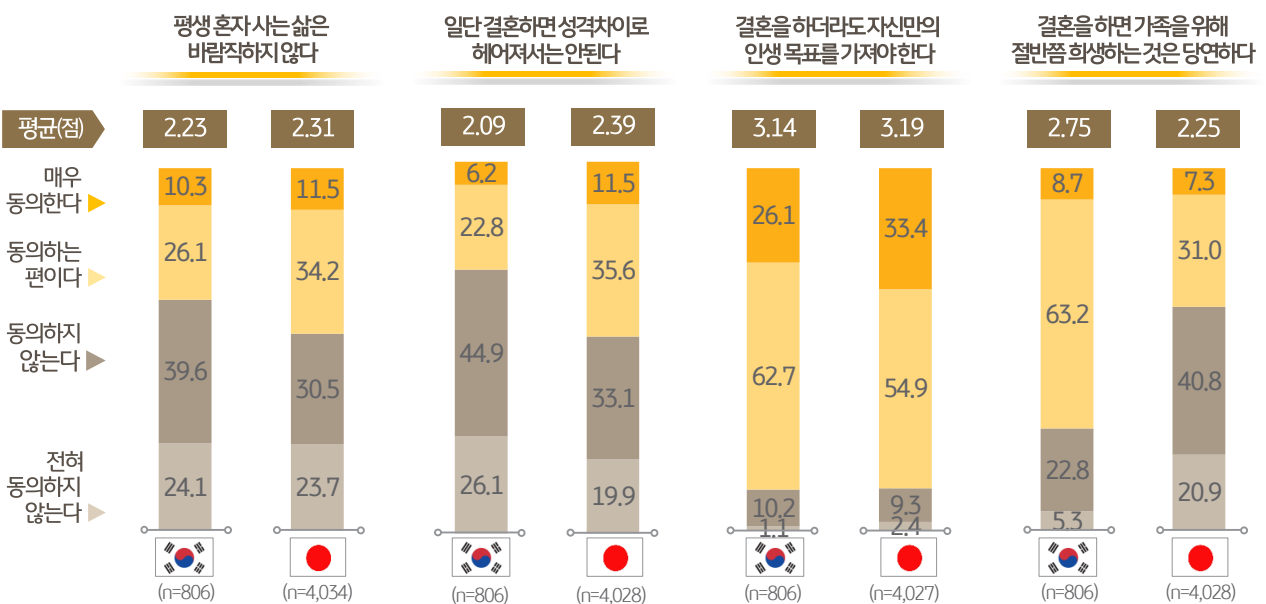
앞서 부모와 주변 친구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각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이번에는 결혼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져 한국과 일본의 청년 1인가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비교해 보았다.

1인 생활 지속 정도를 알아보고자 ‘평생 혼자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한국 청년 1인가구(36.4%)가 일본 청년 1인가구(45.7%)보다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1인 생활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이혼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인식을 나타내, ‘일단 결혼하면 성격 차이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29.0%가 동의한 데 비해 일본 1인가구는 47.1%가 동의했다.

앞서 한국 청년 1인가구가 1인 생활에 대한 지속 의향이 높은 이유는 결혼을 통해 희생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인생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8명이 동의했는데, ‘결혼을 하면 가족을 위해 절반쯤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의 71.8%가 동의한 데 비해 일본은 38.3%만이 동의했다.

그림 VI-3 | 결혼 인식 동의 정도 (한국vs일본)

(단위: 점, %)



주) 한국 25~34세 1인가구 전체 n=806, 일본 18~34세 1인가구 전체 n=4,039(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더 엄격한 배우자 선택 요건을 가지고 있음

최근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육각형 인간’을 ‘이상형’으로 꼽는 경우가 유행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완벽한 인간을 대변하는 육각형 인간을 기초로 완벽한 배우자의 요건을 선정하여 한국과 일본 청년 1인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외모’, ‘학력’, ‘경제력’, ‘직업’의 네 가지 개인적 요건과 ‘성격’, ‘취미’, ‘가사·육아태도’, ‘업무 특성 이해’의 네 가지 관계적 요건을 선정하여 질문해 보았다.

한국과 일본 청년 1인가구 모두 배우자를 고를 때 개인적 요건보다 관계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격’, ‘가사·육아태도’, ‘업무 특성 이해’, ‘취미’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 요건별로 한국과 일본 청년 1인가구의 중요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성격’(90.6%), ‘가사·육아태도’(62.7%), ‘취미’(38.8%)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업무 특성 이해’는 일본 청년 1인가구(49.8%)가 한국 청년 1인가구(41.0%)보다 더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했다. 그 외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에 비해 개인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전반적으로 배우자 선택 요건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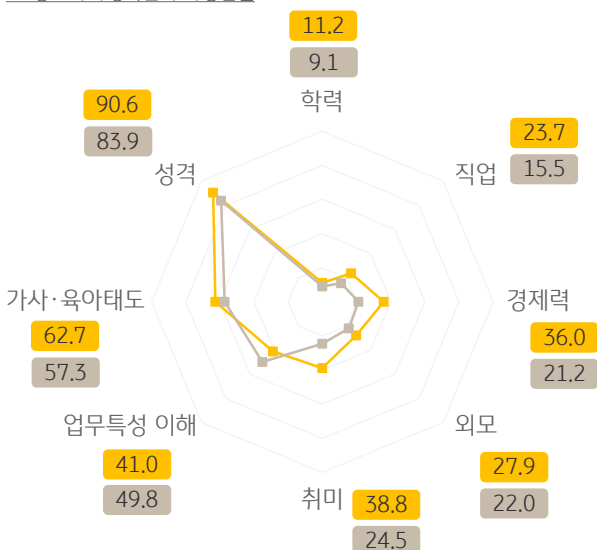
한국 청년 1인가구의 배우자 선택 기준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엄격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취미’, ‘외모’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외모’에 대해서는 남성(33.3%)과 여성(20.1%)의 응답률 차이가 컸다.

그림 VI-4 | 배우자 선택 요건 (한국vs일본)

(단위: %)

※ ‘중요하게 생각한다’의 응답률

■ 한국 ■ 일본



주1)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만 한국 n=520, 일본 n=4,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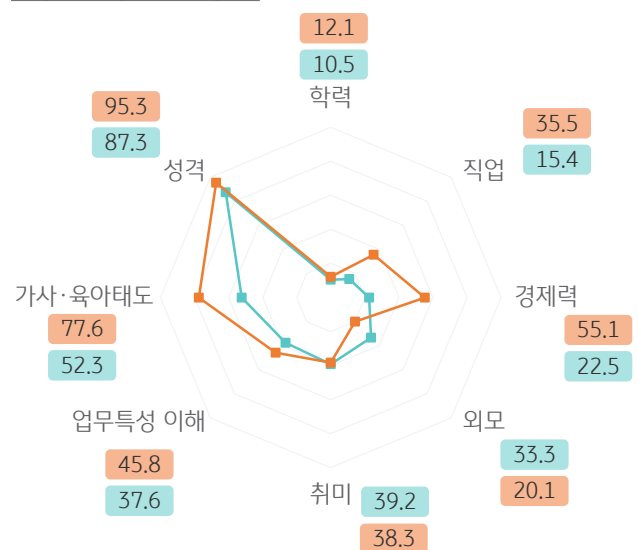
주2)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고려하는 편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 1개 선택

그림 VI-5 | 성별 배우자 선택 요건 (한국)

(단위: %)

※ ‘중요하게 생각한다’의 응답률

■ 남성 ■ 여성



주1)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만 n=520 (남성 n=306, 여성 n=214)

주2)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고려하는 편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 1개 선택

03 | 향후 결혼 의향

”
향후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 의지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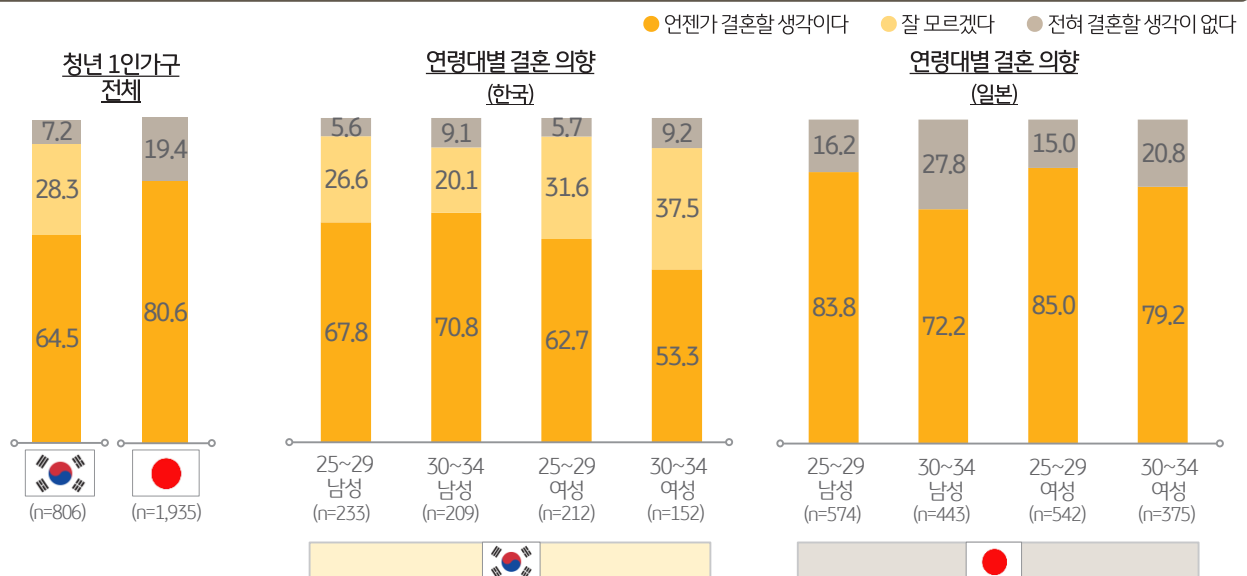
부모나 주변인의 결혼생활을 동경하는지 알아본 데 이어 이번에는 향후 결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해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일본 청년 1인가구에 비해 결혼 여부에 대한 유동적인 성향이 강했고, 반면 일본 청년 1인가구는 비혼을 유지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64.5%는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다’로 응답했고, 28.3%는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향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응답자 비율은 일본 청년 1인가구(19.4%)가 한국 청년 1인가구(7.2%)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아직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제외하고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남성의 결혼 적령기(초혼 연령 34.0세)인 30~34세의 남성 1인가구가 ‘언젠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의향을 밝힌 경우는 70.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일본 청년 1인가구는 비혼 의지가 확고한 경우가 한국 청년 1인가구보다 높았는데, 특히 일본의 ‘30~34세 남성’(27.8%)에게서 비혼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며 한국의 동년배와 반대 성향을 보였다.

그림 VI-6 | 한국 청년 1인가구와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 의향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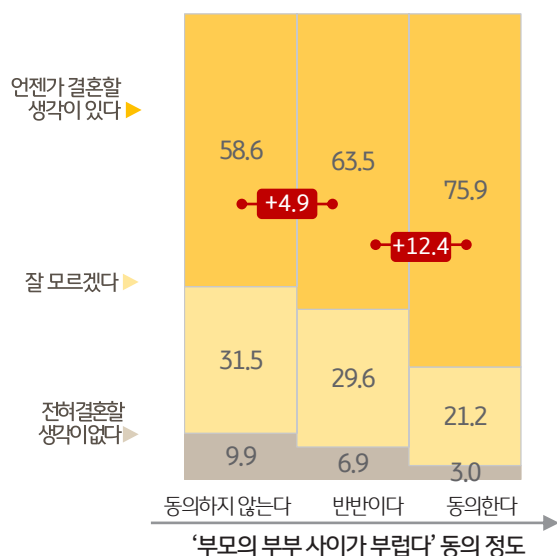
한국 청년 1인가구의 결혼 의향에는 경제적 여유보다 부모의 결혼생활이 더 크게 작용

25~34세의 한국 청년 1인가구의 64.5%는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고 28.3%는 ‘잘 모르겠다’고 계획도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청년 1인가구의 결혼 의향에 경제적 여유와 주변 결혼생활 인식 중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주변 결혼생활 인식의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자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75.9%가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 ‘반반이다’(63.5%)와 ‘동의하지 않는다’(58.6%)의 응답률과 차이가 컸다.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결혼의향(75.9%)에 비해 ‘반반이다’는 응답자의 결혼의향(63.5%)은 12.4%p 낮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결혼의향(58.6%)은 17.3%p 낮게 나타나며 부모의 결혼생활이 청년 1인가구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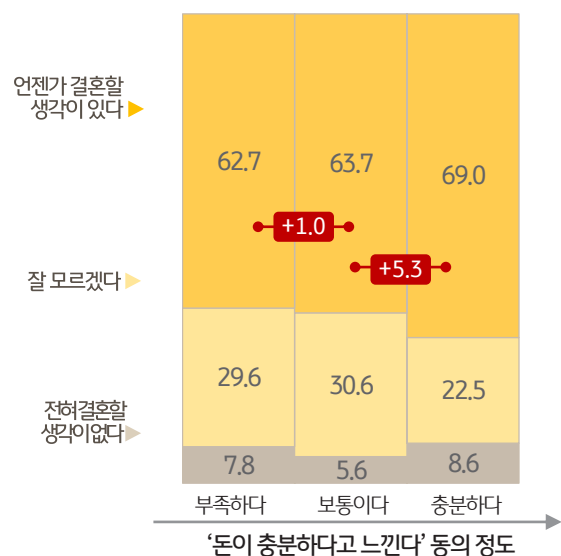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 정도와 결혼 의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돈이 충분하다’는 응답자 중 69.0%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다음으로 ‘보통이다’(63.7%), ‘부족하다’(62.7%) 순으로 결혼 의향이 소폭씩 감소하는데 그쳐 경제적 충분정도에 따라 결혼의향이 결정되는 영향은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결혼생활이 경제적 여유에 대한 만족도보다 청년 1인가구의 결혼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7 | 주변 결혼생활 인식에 따른 결혼 의향 (한국) (단위: %)



주)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에 동의하지 않는다 n=343, 반반이다 n=260, 동의한다 n=203

그림 VI-8 | 경제적 여유 정도에 따른 결혼 의향 (한국) (단위: %)



주) '돈이 충분하다고 느낀다'에 동의하지 않는다 n=335, 반반이다 n=284, 동의한다 n=187

04 | 예상되는 결혼에 따른 애로사항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서’,
일본 청년 1인가구는 ‘자녀나 가족을 가질 수 있어서’ 결혼을 생각

앞에서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다’라고 결혼 의향을 명확하게 밝힌 한국 청년 1인가구(64.5%)와 일본 청년 1인가구(80.6%)에게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예시는 한국과 일본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국에 적합한 예시로 구성했다.

먼저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결혼 의향자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로는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서’가 44.8%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28.3%), ‘외롭지 않기 위해서’(11.0%), ‘2세를 낳아 기르고 싶어서’(8.5%) 등의 순이었다. 결혼 이유 1위인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남성(42.5%)보다 여성(48.1%)에게, 2위인 ‘결혼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는 여성(24.8%)보다 남성(30.7%)에게 더 크게 작용했다.

반면 일본 청년 1인가구는 ‘자녀나 가족을 가질 수 있어서’(29.4%)를 가장 중요한 결혼 이유로 꼽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27.4%)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13.7%)가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안정된 가정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한국 청년 1인가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데 비해 일본 청년 1인가구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아 양국 간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드러냈다.

그림 VI-9 | 결혼 의향자의 결혼하고싶은 이유 Top6 (한국 vs. 일본)

(단위: %)

대한민국				일본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안정된가정을 갖고 싶어서	44.8	42.5	48.1	자녀나가족을 가질수있어서	29.4	26.0	32.5
결혼하면더 행복할것같아서	28.3	30.7	24.8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27.4	34.6	21.0
외롭지않기위해서	11.0	9.8	12.6	경제적으로 여유가생겨서	13.7	7.9	18.8
2세를 낳아 기르고 싶어서	8.5	10.1	6.1	애인과함께 살 수 있어서	12.1	13.0	11.4
때가되면결혼하는 것이당연해서	4.2	5.2	2.8	사회적으로 대등해질수있어서	6.2	7.4	5.2
혼자별거에는 부담이되어서	1.5	1.0	2.3	부모님을안심시키고 주변가대에부응	5.9	5.4	6.4

주)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한국 n=520(남성 n=306, 여성 n=214), 일본 n=2,741(남성 n=1,286, 여성 n=1,455)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을 크게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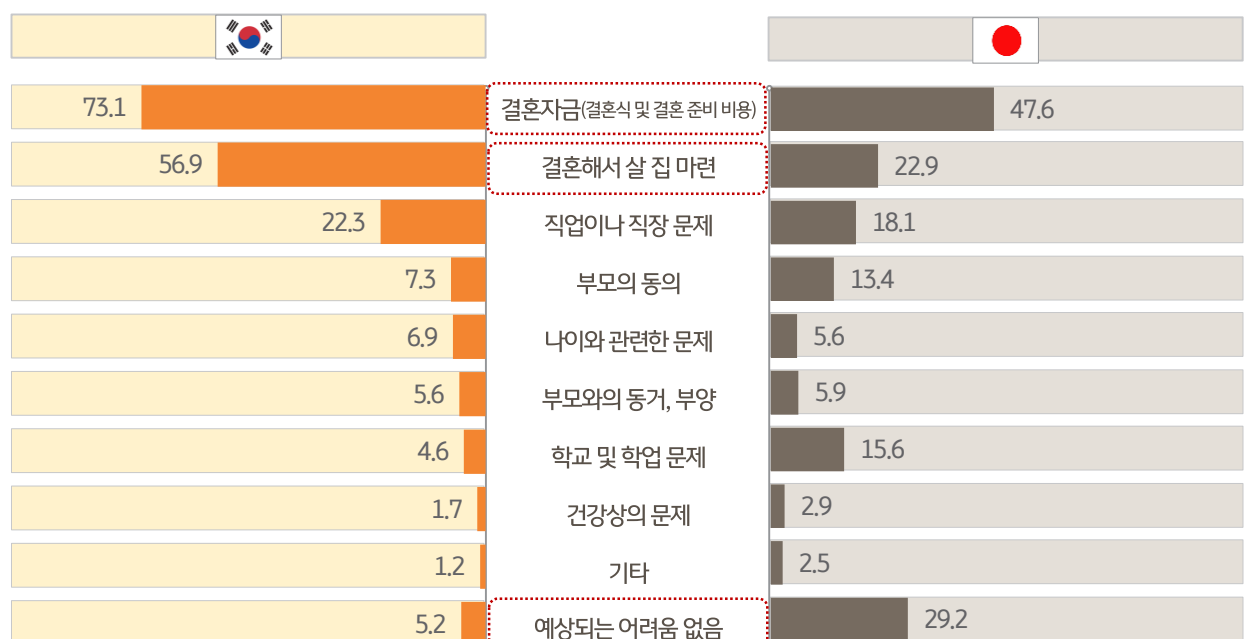
결혼을 생각하는 한국 청년 1인가구에게 결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이를 통해 결혼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예상되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해보았다. 한국 청년 1인가구의 94.8%와 일본 청년 1인가구의 70.8%는 결혼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 청년 1인가구의 걱정이 더 컸다.

결혼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애로사항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 1인가구 모두 ‘결혼 자금 마련’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상했고, 한국 청년 1인가구(73.1%)가 일본 청년 1인가구(47.6%)에 비해 25.5%p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해서 살 집 마련’에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에 비해 두 배 정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국과 일본 간 응답률 차이가 큰 부분은 ‘부모의 동의’와 ‘학교 및 학업 문제’로 한국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일본 청년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생각해, ‘부모의 동의’에 대해 한국 청년 1인가구(7.3%)보다 일본 청년 1인가구(13.4%)가 두 배 정도, ‘학교 및 학업 문제’는 한국 청년 1인가구(4.6%)보다 일본 청년 1인가구(15.6%)가 네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VI-10 | 결혼 의향자가 예상하는 결혼에 따른 애로사항 (한국 vs. 일본)

(1+2순위, 단위: %)



주) 한국(25~34세 1인가구 중 결혼 의향 있는 경우) n=520, 일본(18~34세 중 결혼 의향 있는 경우, 무응답 제외) n=3,216

New Findings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부모의 결혼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

- ✓ ‘부모의 부부 사이가 부럽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 청년 1인가구(25~34세)의 25.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1인가구(18~34세)는 49.8%가 동의
- ✓ ‘주변의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행복해 보인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한국 청년 1인가구(39.0%)보다 일본 청년 1인가구(49.5%)가 더 높았음



한국 청년 1인가구 10명 중 4명은 ‘평생 혼자 사는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 ✓ ‘혼자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 청년 1인가구는 36.4%, 일본 청년 1인가구는 45.7%가 동의
- ✓ 배우자 선택 시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성격, 가사·육아태도, 취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배우자 선택 요건이 엄격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비혼 의지가 낮음

- ✓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64.5%는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다’로 응답. ‘향후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률은 한국 청년 1인가구(7.2%)에 비해 일본 청년 1인가구(19.4%)가 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 한국 청년 1인가구의 결혼 의향에는 경제적 여유보다 부모의 결혼생활이 더 크게 작용



한국 청년 1인가구는 일본 청년 1인가구보다 결혼 시 경제적 측면을 더 부담스러워함

- ✓ 결혼 의향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의 결혼 이유로는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서’가 44.8%로 가장 컸고, 일본은 ‘자녀나 가족을 가질 수 있어서’(29.4%)를 결혼의 장점으로 꼽음
- ✓ 한국 청년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결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결혼 자금’을 꼽았고, 그 비율(73.1%)이 일본 청년 1인가구(47.6%)보다 현저히 높음

● 참고자료

【서적】

- 김난도 외(2023.10), 『트렌드코리아 2024』
- 김형균(2019),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 통계개발원(2024),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 국회미래연구원(2023), 제1차 노동과 정치의 미래: 한국과 일본의 대화
- 통계개발원(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 통계청(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통계청(2023),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실험적 통계)
-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 보고서
- 통계청(2022),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아티클】

- 국회미래연구원(2023.9), 제1차 노동과 정치의 미래: 한국과 일본의 대화 (불안한 일본, 분노한 한국 -7개국 인식조사로 본 동아시아 청년의 마음)
- 국회미래연구원(2023.3), 국가미래전략 Insight, 64호
- 국회미래연구원(2022.7), 국가미래전략 Insight, 48호
- 국제사회보장리뷰(2019.12),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2019 겨울호
- 통계개발원(2023.12),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2024.2), Living Alone and Feelings of Depression Among Adults Age 18 and Older, Number 199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3.8), 第16回出生動向基本調査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No.40

【언론자료】

- 뉴스픽(2023.5.13), 걷고 퀴즈 풀고 건강·재미 만끽... 티끌 모으는 ‘짠테크’
- 조선일보(2024.1.29), 1인가구 800만 육박...80%가 고독사 위험
- 중앙일보(2024.4.19), MZ세대 재테크, 1g씩 금사모으는 ‘소금족’늘어난다
- 동아일보(2024.4.18), 30대 “자녀 낳겠다” 9.4%P↑ “반등 신호” vs “저출산 여전”
- 동아일보(2024.4.29), 기그 노동자 일하게 하려면..개인의 목표와 관성 고려해야
- 중앙일보(2024.4.18), 집 없는 신혼부부, 절반이 애 안낳았다

발행인: 양종희

편집인: 정신동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연구자: 부장 황원경(wk.hwang@kbfk.com), 연구원 강윤정(rkang@kbfk.com)

조사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인쇄: 신우씨앤피